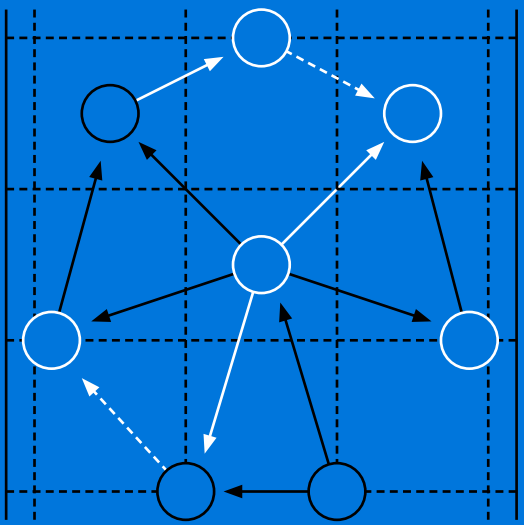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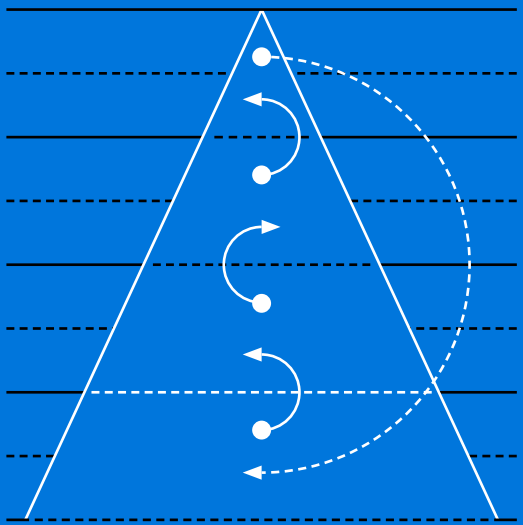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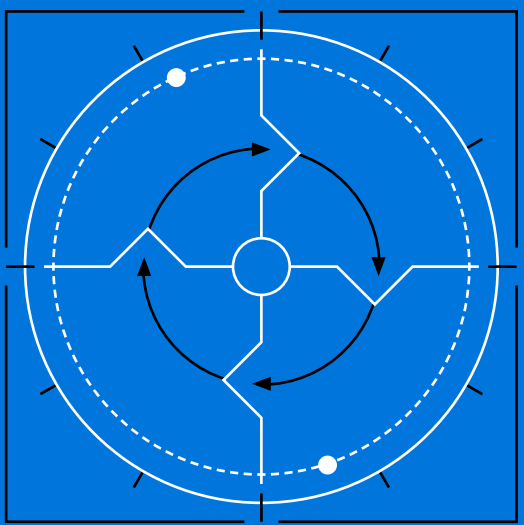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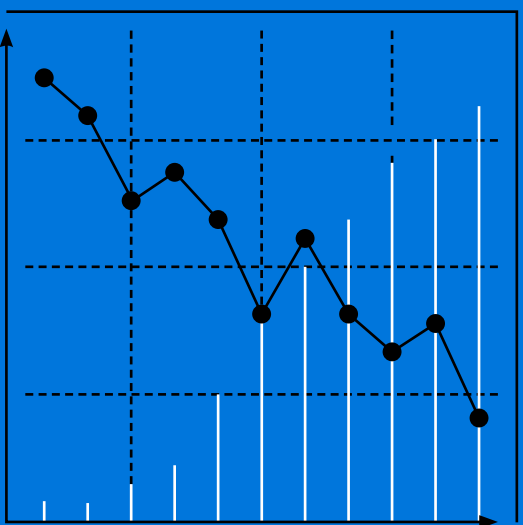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이 책은 서울문화재단 2019-2020년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목차

Ⅰ	**연구개요**	7
	1 연구배경	9
	2 연구목적	11
	3 연구범위와 방법	12
	4 추진과정	13
	5 기대효과	14
Ⅱ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15
	1 지역문화의 개념화	17
	2 문화예술 생태계 논의 지형	27
	3 지역문화 정책의 경향성 분석	34
	4 지역문화 평가지표	40
	5 소결	49
Ⅲ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환경변화**	51
	1 주요 개념 정의	53
	2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59
	3 소결	77
Ⅳ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의견과 쟁점**	81
	1 현장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조사 및 분석 결과	84
	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결과	90
	3 소결	95
Ⅴ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유형화**	97
	1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99
	2 서울의 주요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104
	3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	145
	4 소결	153
Ⅵ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55
	1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57
	2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60
	참고문헌	169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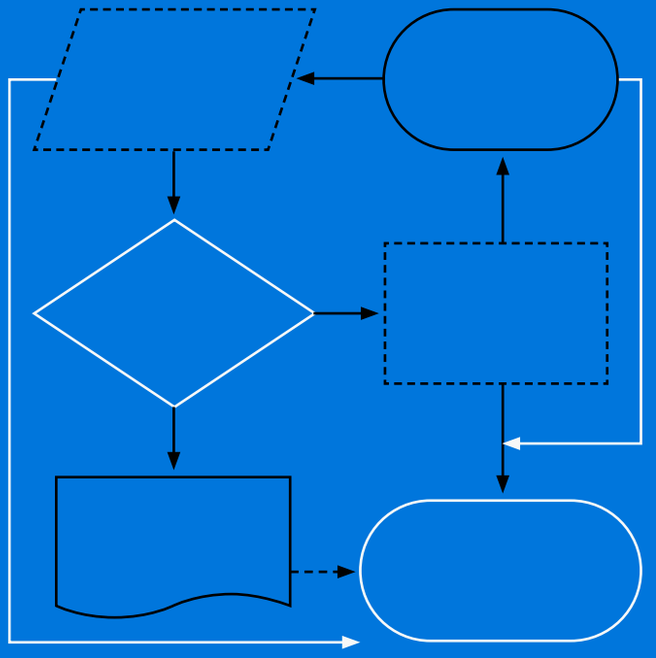
‹표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목록 18
‹표2› 글로벌 창조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21
‹표3›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비교 22
‹표4› 한국 문화도시·창조도시 선행연구 목록 및 요약 23
‹표5› 생활문화·지역문화 관련 연구 25
‹표6› 홍대 지역 선행연구 목록 및 요약 32
‹표7› 서울 기초(자치구)문화재단 설립 현황 33
‹표8›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지역관련 추진과제 39
‹표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43
‹표10› 서울문화지표 체계 구축 연구 세부지표 45
‹표11› 2018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 항목 47
‹표1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중 지역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 55
‹표13› 생활문화의 연구적 개념 정의 56
‹표14› 초중등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 64
‹표15› 혼인상태별 가사노동시간 67
‹표16› AB-5 법안이 명문화한 ABC 테스트 내용 67
‹표17› 남녀별 인구 70
‹표18› 혐오표현의 정의 73
‹표19› 혐오표현의 분류 73
‹표20› 혐오표현 대응하기 74
‹표21› 신공공관리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75
‹표22› 협력적 거버넌스 실행체계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76
‹표23› 프랑스 파리시의 소상공인쿼터제 79
‹표24›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79
‹표25› FGI(Focus Group Interview) 참여자 85
‹표26› FGI 주요 내용 86
‹표27› 전문가FGI: 지역문화의 정의 90
‹표28› 전문가FGI 주요 내용 92
‹표29›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102
‹표30›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 영역 103
‹표31› 지역문화생태계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105
‹표32›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자료 출처 107
‹표33›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113
‹표34›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121
‹표35›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130
‹표36› 문래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139
‹표37› 서울특별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10개) 145
‹표38›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 분류 148
‹표39›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150
‹표40›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150
‹표41›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151
‹표42› 문래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152
‹표43›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67

그림 목차

‹그림1›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인증 지역 20
‹그림2› 플로리다의 글로벌 창조성 지수 분석 결과 21
‹그림3› 창작공간과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 27
‹그림4› 문화 다이내믹스 지도 29
‹그림5› 캘리포니아 문화예술 생태계 구조도 30
‹그림6› 캘리포니아 지역문화예술 단체 현황 30
‹그림7›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37
‹그림8›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 비전 및 전략 37
‹그림9› 서울시 비전 2015와 비전 2030 비교 39
‹그림10›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41
‹그림11›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 54
‹그림12› 생산인구, 고령인구 비중 추이 60
‹그림13›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의 수 변화 61
‹그림14› 1인 가구 및 성별 변화 추이 62
‹그림15› 일본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63
‹그림16›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65
‹그림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8
‹그림18› 지구 온도 변화 그래프 69
‹그림19› 서울에서 여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나? 70
‹그림20› 세대갈등의 원인 72
‹그림21› 세대갈등의 전망 72
‹그림22›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개념도 99
‹그림23› 성북문화재단 비전/미션 117
‹그림24› 중구 민선7기 9대전략 중 문화부문 전략 124
‹그림25› 마포문화재단 비전/미션 135
‹그림26› 영등포문화재단 비전 143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와 방법
4 추진과정
5 기대효과



1 연구배경

■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한국사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양극화, 경쟁의 심화, 기술과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현상, 고령화 등 전통적인 사회적 갈등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전면화 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적 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사건이였으며, 이는 문화정책 전반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부터 국가 주도의 공급형 문화정책들의 한계와 역기능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 중심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필요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고 있음

■ **사회혁신 정책의 확산과 새로운 주체의 등장**

— 최근의 지역문화생태계는 창작과 향유의 두 축으로 치환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문화비전2030을 통해 구체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 서울시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협치,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등)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과 주체들이 형성되었음

— 특히 서울시가 구 단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혁신적 가치들을 매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활동이 일상의 영역에서 확대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주체들을 연결하는 지역문화 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짐

■ **서울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따른 새로운 지역문화정책의 필요**

— 서울시는 사회혁신을 위한 문화정책을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정식화하고 문화주권, 문화공생, 문화재생, 문화창조, 문화협치의 5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지역을 범주로 하는 추진계획을 통해 개발주의 중심의 지역 정책 담론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와 지역 고유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지역의 삶을 구체화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지역문화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태

■ **지역문화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과제설정의 필요**

—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되어 그동안 서울시의 주요한 문화정책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문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지자체별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확대되면서 지자체-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의 역할과 관계설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해진 상황

— 서울문화재단은 그간 창작지원과 시민문화향유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와 지역 현장의 변화 등에 조응하는 새로운 과제설정과 운영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2 연구목적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개념 설정과 지역문화생태계 현황의 파악**

—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리 및 재정의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분석과 구조 파악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이슈 파악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기초 연구**

— 지역문화생태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주요 사회 의제 정리

— 생태계적 관점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사례 조사 및 분석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도출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 형성**

—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 생태계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

— 지역문화생태계 현장에 기반한 정책과제 도출

— 지역문화생태계 정책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 설정

3 연구범위와 방법

1) 시간적 범위

■ 2019년

2)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서울의 주요 지역문화생태계)**

3) 내용적 범위

■ **서울의 지역문화 관련 자료 분석**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이슈 조사**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도출**

4)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개념들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조사

— 지역문화 관련 주요 지표 및 조사자료 분석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 검토 및 분석

— 국내외 주요사례 조사 및 분석

■ **FGI**

— 주요 정책개념 및 연구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 청취

— 서울시 지역문화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라운드테이블**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활동주체와의 라운드테이블

— 연구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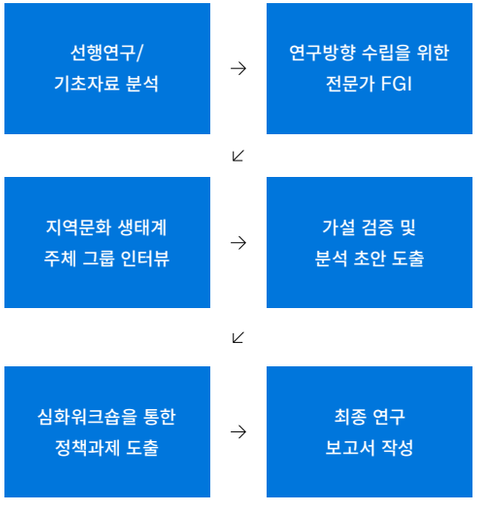
— 지역문화생태계 현장의 구조 및 주요 이슈 파악

■ **심화워크숍**

— 연구를 통해 정리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화 토론을 통한 의견 청취

— 후속 연구를 위한 의제 정리 및 정책과제 도출

4 추진과정



5 기대효과

■ **서울시/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마련**

–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통합적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정책 개념의 설정과 지역 현황의 파악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의제 발굴과 후속 과제 설정**

– 서울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에 따른 주요 의제와 지형 파악

– 후속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과제 도출

■ **서울시 지역문화 현장 중심의 정책 협력체계 구축**

– 서울 각 지역의 주요 주체 발굴을 통해 정책 공론장 형성의 기초 마련

– 만들어 제시하는 정책이 아닌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계기 마련

II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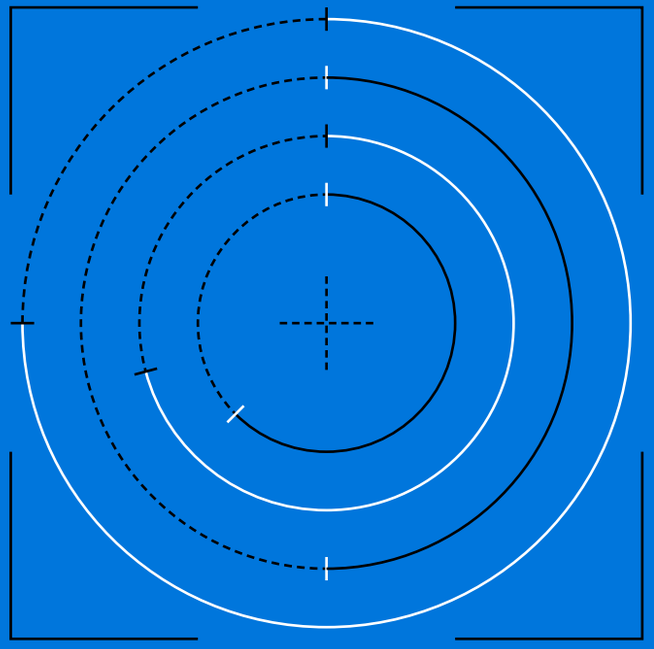
1 지역문화의 개념화

2 문화예술 생태계 논의 지형

3 지역문화 정책의 경향성 분석

4 지역문화 평가지표

5 소결



1 지역문화의 개념화

1) 지역문화와 로컬리티(Locality)

1-1) 지역문화

■ **지역문화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활동,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문화 관련 대표법안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1항에서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위의 법안은 지역문화의 지리적 범위와 경계를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두 가지로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역문화'라는 용어는 행정구역상의 지역보다는 서울이나 대도시, 중앙에 대비된 '지방'으로서의 지역을 연상시킴**

— 정책적 예를 보면, 1983년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 수립' 등 이미 1980년대부터 중앙과 지방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존재(조광호, 2016)

— 이상봉(2018)은 중앙과 지방의 물리적 격차가 문화적 차원에까지 확대, 심화되어 서울은 우월하고 지방은 열등하다는 차별적 인식이 만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자율과 분권을 제공하는 식으로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문화정체성'의 차원에서 지역문화라고 하면 일상의 소소한 문화적 실천이나 활동보다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 상징 · 지식·신앙·예술·관습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 전주 한옥마을, 제주 돌하르방, 경상도 사투리, 평양냉면, 개성 만두 등이 전통적으로 언급되는 지역문화의 예임

— 지역문화의 기반을 역사적 전통에서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 '지역학'이 최근 주목받고 있음. 한 예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지역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현대 경기도의 형성과정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 지역연구자 양성과정, 지역학 심층발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운영할 계획임(경기문화재단 보도자료 참조)

1-2) 로컬리티

-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역사·전통·과거로서의 지역, 소외·낙후·불평등으로서의 지방이 아닌 한 지역의 구체적인 현상과 특성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의미의 지역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로컬리티(locality) 논의로 발전함

- 로컬리티는 지역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간, 지리, 도시 관련 학제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개념임

- 한국의 로컬리티 논의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로컬리티인문학' 사업단의 연구가 대표적임. 아래 표는 이 사업단에서 발간한 '로컬리티 연구총서'의 목록임

‹표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연구총서 목록

번호	제목	출판년도
1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2009
2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2010
3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2010
4	로컬의 문화지형	2010
5	포섭과 저항의 로컬리티	2013
6	선망과 질시의 로컬리티	2013
7	차이와 차별의 로컬리티	2013
8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2013
9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2013
10	창조성과 도시	2013
11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2013
12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2013
13	로컬의 일상과 실천	2013
14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2013
15	다문화와 인정의 로컬리티	2015
16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	2016
17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2017
18	로컬서사와 재현	2017
19	트랜스 로컬리티와 경계의 재해석	2017
20	로컬리티의 시간성	2017
21	사건 정치의 토포스: 외부의 잠재성과 로컬리티	2017
22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2017
23	도시와 공생	2017
24	오키나와를 읽다	2017
25	젠더와 로컬리티	2017
26	로컬리티와 포스트모던 공간성	2017
27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	2017
28	공동체와 로컬리티	2017
29	20세기 동아시아 화교의 지속과 변화	2017
30	제국의 관문-개항장도시의 식민지 근대	2017

- 위의 연구총서는 공간과 장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여기에 부여된 특성과 성격, 조건들을 분석하고, 이런 요소를 통해 고유한 공간성과 장소성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중앙에 대비된 지방, 또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 삶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지역에는 고유한 '로컬리티(지역성)'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런 로컬리티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간, 장소 외에 공간과 장소를 규정하는 다양한 가치의 차원, 이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여러 층위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2-1) 배경 설명

- 문화도시·창조도시는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적 개념이지만, 학문적·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화도시·창조도시는 위에 서술한 '지역문화'와 '로컬리티'가 만나는 접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부연하자면 지역문화는 특정 지리적 경계 안의 문화적 활동과 자원을 의미하고, 로컬리티는 이런 활동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문화적 조건들 그리고 이를 통해 발현되는 정체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는 외적 형식이고 로컬리티는 이 형식을 채우는 내적 조건과 요소에 해당함

— 문화도시와 창조도시는 그 이름에서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의 방향이나 사례의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도시는 행정구역상 시(city)가 아니고 쇠퇴한 공업단지, 낙후된 빈민가 등 협소하고 제한된 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음. 낙후된 공간의 재생을 위해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나 로컬리티 논의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유사함

— 따라서 문화도시·창조도시 논의는 직접적으로 지역문화를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론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문화도시

- **문화도시(Cultural city)는 1970년대 이후 대두된 유럽의 도시 쇠퇴 문제로부터 기인함. 20세기 초반 전개된 도시의 공업화는 유럽 여러 국가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였지만, 환경 공해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화 중심의 개발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됨**

- **문화도시 개념은 1985년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배우였던 멜리나 메리쿠스(Melina Mericus)가 제안한 것으로, 그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유럽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것을 주장함 (라도삼, 2006)**

— 이후 유럽의회는 매년 1~3개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선정,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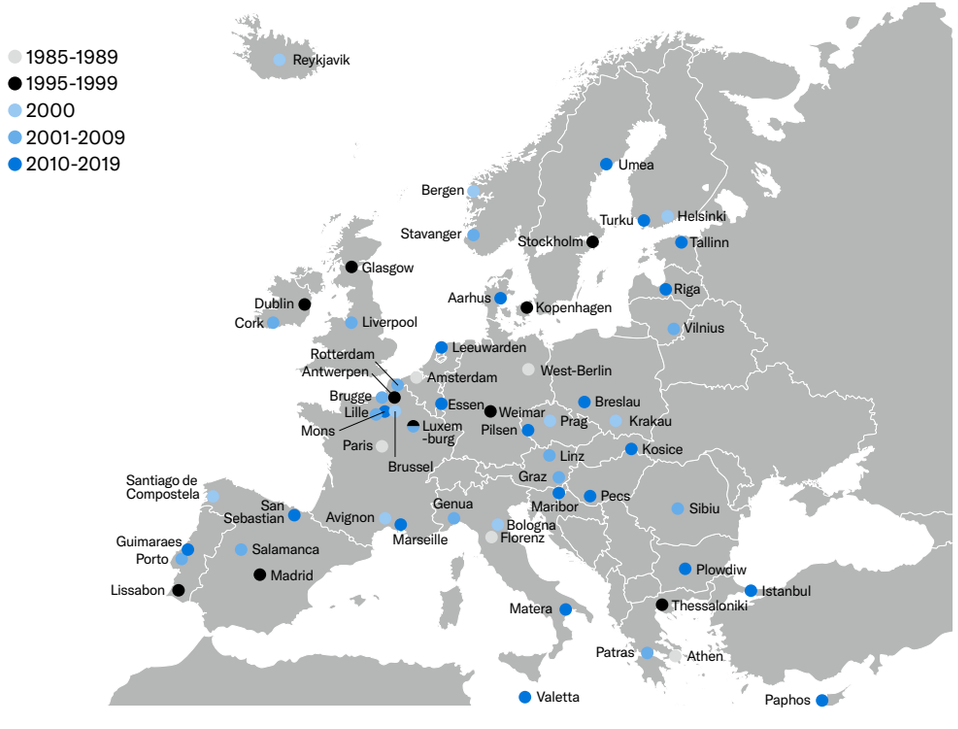
— 이렇게 선정된 유럽의 문화도시가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에 성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게 되면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

— 2004년 시작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Program)의 효시가 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 지역, 소득 수준, 역량, 인구규모가 다양한 도시들이 창의산업의 영역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시범사업, 모범사례 홍보, 연구, 회의, 협력사업, 훈련 및 역량 강화, 정책 등의 영역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수행
- 창의분야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음식, 미디어아트의 분야가 있음
- 한국에서 지정된 도시는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전주(미식), 부천, 원주(문학), 광주(미디어아트), 통영, 대구(음악)의 9개 도시임

‹그림1›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인증 지역



2-3) 창조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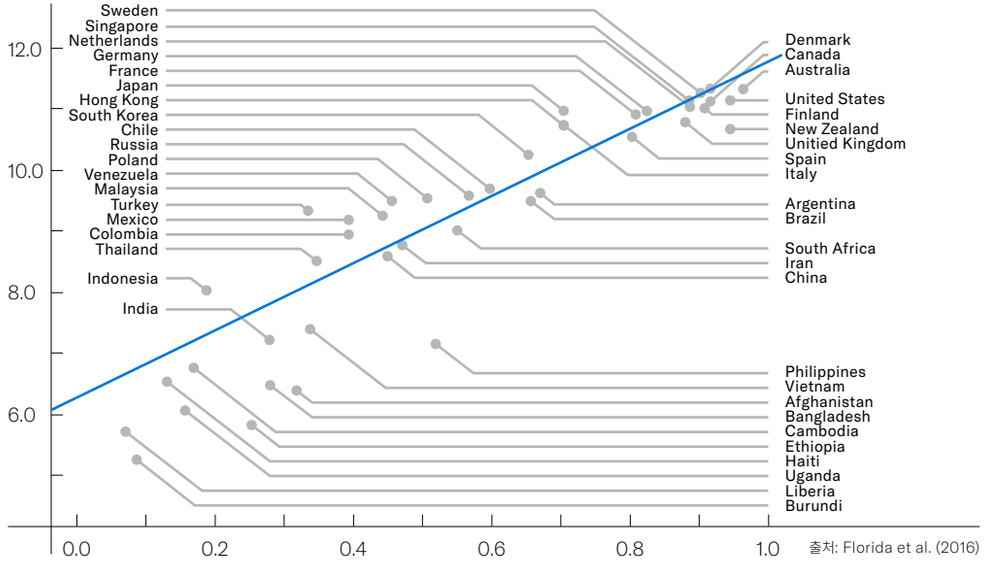
- **창조도시(Creative city)는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가 그의 대표작인 창조계급(Creative class) 에서 제안한 개념**

— 미국 실리콘밸리, 플로리다 등 주요 도시의 사례를 언급하여 예술가, IT엔지니어, 변호사, 연구자 등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일할수록 더욱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함

‹표2› 글로벌 창조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대구분	소구분	설명
Technology	연구개발 투자	GDP 중 연구개발 투자비용 (World Bank 자료)
	연구자	연구자 수 (World Bank 자료)
	혁신	특허 수(US PTO 자료)
Talent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World Bank 자료
	창조계급 수	컴퓨터 엔지니어, 수학, 건축, 물리학, 사회과학, 예술,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미디어, 법조인 등 (ILO 자료)
Tolerance	소수자에 대한 태도	갤럽 설문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갤럽 설문

‹그림2› 플로리다의 글로벌 창조성 지수 분석 결과



출처: Florida et al. (2016)

– 창조성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든 글로벌 창조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는 아래와 같음

- **창조도시 논의는 계량적으로 결과를 측정할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 및 자원 없이도 새로운 창조인력의 유입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문화도시 개념보다 더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 결과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창조도시 정책을 수립하게 됨**

- **위의 그래프는 약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창조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가치창출(GDP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함. 한국은 창조성지수 0.7, 경제지표 10.0 수준으로 상위그룹에 속함**

- **이상 논의한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3›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비교

구분	문화도시	창조도시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향점(목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국가	유럽, 일본, 한국 등	미국, 캐나다, 싱가폴, 중국 등
범위	중소규모 도시~대도시	대도시(인재 집적)
정책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인증사업	창조산업, 창조클러스터, 창조인재유치
주체	공공기관, 제도	민간 기업

2-4) 한국의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 **2000년대 초중반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도시·창조도시 정책이 추진됨**

–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사업부서 신설, 재원 제공 등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컬쳐노믹스(Culturenomics)'와 '디자인노믹스(Designomics)' 정책으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설하고 거리의 간판을 디자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더 많은 관광객을 서울에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부산은 서울과 다르게 낙후되고 쇠퇴한 도시공간(예: 감천문화마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 문화창조도시 정책을 추진함

- **위의 사업과 정책이 도시의 문화적 역량에 관심을 가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역문화와는 접점이 부족함. 왜냐하면 지역문화는 근본적으로 지역 고유의 유산, 자원, 가치 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진행된 문화창조도시 정책의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신규 시설, 공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목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토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문화도시·창조도시 정책의 한계는 이밖에도 목표 중심, 자발성·자생성 부족, 경제적 가치 추구 등이 논의되었고 다음 표는 이런 한계를 논한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상술한 것처럼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문화도시, 창조도시 정책은 지역문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 큰 한계로 지적되었음. 그러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도시 정책이 설계되기 시작함**

– 제4장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표4› 한국 문화도시·창조도시 선행연구 목록 및 요약

저자(연도)	제목	요약
남기범 (2008)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창조적 계층의 유인을 위한 단순한 연성 하부구조 구축이 아닌, 문화예술 주체, 장소와의 상호관계에서 창조도시를 지향해야 함. 지역의 내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플로리다, 사사끼, 랜드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 사사끼는 창조산업, 랜드리는 창조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회적 경제 모델에 입각해 창조도시를 재개념화하면 창조도시의 요소는 '사회적 자본'이 되고, 이를 통해 사회와 자연이 상생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식의 사회적 소유를 주요 경제 형태로 가질 수 있음
원도연 (2011)	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창조도시에서 중요한 건 도시의 '문화력'이며, 문화력은 도시의 문화적 자원과 예술인들의 창의성에서 나옴.
손경년 (2011)	문화예술로 여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문화도시 조성이 도시내부에서 도시문화를 생산, 소비하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하면서 이들의 문화역량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체감 및 공동체성의 확립,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될 때 생활문화가 활성화됨
정진원, 김천권 (2014)	문화도시조성 쟁점요인의 중요도 분석-인천광역시 전문가와 시민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문화도시의 쟁점은 네 가지로 구분됨. '경제성 추구-정체성 확립', '광역권 도시공간-근린권 도시공간', '성장기제 촉진-도시 다양성을 위한 접근', '방문자 - 지역주민'으로 요약됨
소진광 (2015)	창조도시의 양면성: 창조와 해체의 융합	창조도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공간 함수인 도시정체성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 즉, 창조도시 개발에서 창조와 해체의 양면성을 융합하기 위해서는 시간함수에서 역사인식이 강하고 공간함수에서 문화적 차별성이 강한 도시정체성의 시공간 좌표를 통해 접근 필요.

3) 문화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3-1)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 창조도시·문화도시 담론은 지역에 사는 거주민에 방점을 찍기보다 도시를 방문하고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거주민을 도시를 살아가는 여러 행위자 중 하나로 간주

- 한편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문화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이를 토대로 한 생활문화·생활예술 논의가 그것임

-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펼쳐 나가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여 성남시민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를 만들며 이를 도모하는 핵심 조직으로 성남에서 활동하는 문화클럽(문화동호회)들끼리의 네트워크 사업인 '사랑방 문화클럽'을 운영

- 이 사업은 이후 생활문화 또는 생활예술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광역 및 주요 기초 문화재단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생활문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지역적 색채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서울이나 전남 해남, 경남 통영 등 어디에도 살사 댄스 동호회, 색소폰 동호회, 꽃꽂이 동호회가 운영될 수 있고 이런 동호회들은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지 않음

- 그런데도 정책 영역에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가 종종 교집합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지역문화 정책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 발굴이나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 형성이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임. 부연하자면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만들어지거나 강화되지 않으며, 독특한 문화적 활동과 행사가 열리는 것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활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 연결망, 상호신뢰와 소통 등이 지역문화 활동이 추구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임

-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지만 동시에 지역성, 지역사회, 또는 지역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는 아래와 같음

‹표5› 생활문화·지역문화 관련 연구

저자(연도)	제목	요약
박승현 (2008)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은 생활예술 동호회들의 네트워크인데, 이 활동을 촉진하여 성남시가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성남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생활문화 활동이 지역문화의 핵심 요소로 작동하는 사례임
강윤주·심보선 (2013)	생활예술공동체 내 문화예술매개자의 역할 분석: 인천 '문화바람'의 경우	인천 생활예술공동체의 메카로 불리는 문화바람(공간이자 단체)의 사례를 통해 이 공동체에서 문화예술매개자가 기존 문화예술동호회의 회장이나 강사와 어떻게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한 연구임.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역문화적 관점은 인천이란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에 관한 것으로, 공업지역의 노동자들이 생활예술공동체에 참여하고, 이 활동을 통해 인천의 지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하나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함
이의신 (2018)	지역축제가 생활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생활문화가 개인과 지역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하며, 생활문화와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원주댄싱카니발의 사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생활문화 활동이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며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는 곧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3-2) 지역문화와 지역사회

-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는 지역사회 연구와도 관련성이 높음

- 지역사회 연구는 전통적으로 지역(커뮤니티)에서 형성된 관계적 자원(연결망, 네트워크)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정과 방식을 분석하였으며(Chaskin, 2001), 주로 건강·보건·안전·빈곤 등의 이슈를 탐구하였음.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에서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예술의 사회적 가치' 논의가 이와 연관됨

-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문화예술 활동이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평등의식을 고양하거나, 사회 문제를 예술적 방식으로 드러내거나 해결한 사례, 예술을 통해 유대감과 연대감을 증진한 사례들을 말함 (박신의, 2013)

-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곧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는 것으로 연결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산의 낙후된 동네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개발한 감천문화마을의 사례가 있음. 개발이 완성된 뒤 관광객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역의 자생성과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현재 많이 받고 있지만 마을이 처음 조성되었을 때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사회 문제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회자되었음 (김창수, 2012; 이상훈, 2018)

■ **즉 문화예술이 사회에서 가지는 위치와 저변이 넓어질수록 문화 또는 예술의 독자적 개념을 넘어선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고, 지역문화의 경우에도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거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나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이 기여하는 지점에 대한 고민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2 문화예술생태계 논의 지형

1) 정의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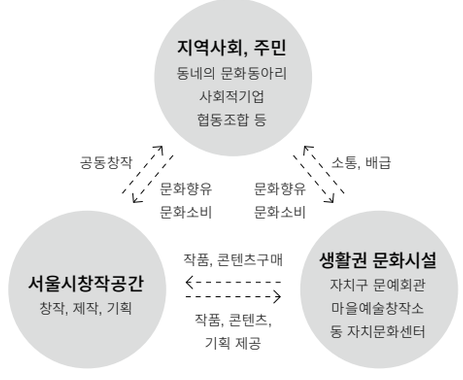
■ **생태계(ecosystem)는 생물 군집과 그 군집이 접한 비생물적 환경(물리적·화학적 환경)이 유기적인 집합을 이룬 것을 말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용어임. 아서 탄슬리(Arthur Tansley)는 1935년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되는 생물적·비생물적 구성요소들을 표현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제창하였으며 '계'라는 단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직된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였음**

■ **문화예술생태계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

— 첫째, 예술의 생산-유통-소비-참여의 단계를 개별화된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관계로 보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전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원을 위한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작품이 창작되고 동시에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알림. 이처럼 예술가의 창작을 그 자체로 바라보기보다 창작이 유통되는 과정, 유통된 작품을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방식, 이를 통해 증진되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 또는 문화적 수준을 하나의 순환고리 안에서 검토하는 것임

— 둘째,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전체 사회세계 속에서 예술이 타 영역과 관계 맺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 다음의 그림은 서울시 창작공간(문래예술공장 등)이 다른 시설과 상호교류를 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선순환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어떻게 공간이 다른 행위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줌

‹그림3› 창작공간과 지역사회의 선순환구조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4)

— 셋째, 특정 예술장르에 관계된 모든 요소와 조건을 통틀어 '음악생태계', '문학생태계', '무용생태계' 등으로 부름. 예를 들어 음악생태계라고 하면 뮤지션, 공연장 운영자·종사자, 소속사, 레이블, 음악축제 운영자, 기획자, 매니저, 기술자, 악기제조업 등 다양한 행위자와 공간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함. 따라서 음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다층적 상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생태계적으로 BTS(방탄소년단)의 성공을 예를 들어 분석한다면 뮤지션 개인의 매력과 역량뿐만 아니라 이들을 키운 소속사의 기획과 전략, 그리고 강력한 팬덤의 조직의 영향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함

— 넷째, 특정 문화지역·지구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의미함. 외국에서는 클러스터(cluster), 국내는 문화지구라고 흔히 이야기함. 그런데 이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라고 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애매한 지점이 많음. 예를 들어 대학로는 연극 장르가 집결된 문화지구로 지역 안에 연극을 위한 각종 시설 및 공연장, 인력이 존재. 그러나 대학로는 산업적으로 구성된 생태계라는 점에서 일반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괴리 발생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태계는 어떤 대상, 층위, 시기를 논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이 달라짐. 그러나 여기서 공통적으로 생태계의 특성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한 대상에 연결된 모든 관계망과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이 종합된 메커니즘과 구조를 본다는 것임**

2) 해외 선행연구

■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주요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 연구소에서 생태계 관점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여기서는 그 중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몇 개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생태계적 관점의 필요성',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태계와 지역문화'에 대해 요약적으로 소개함**

2-1) 문화 다이내믹스 지도: 미국의 예술생태계 탐구 (The Cultural Dynamics Map: Exploring the Arts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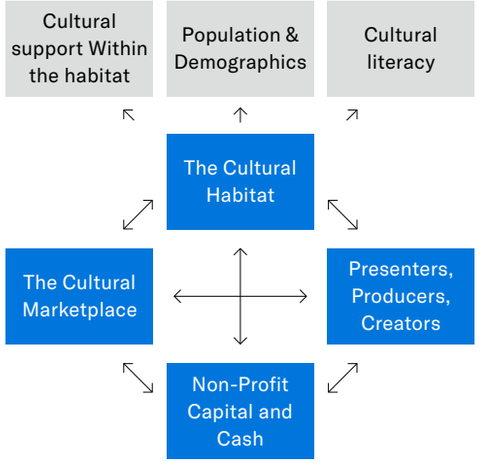
■ **문화 다이내믹스 지도(The Cultural Dynamics Map)는 2003년 발족한 프로젝트로, 문화예술 생산, 소비, 지원, 경험의 세계를 시스템적 사고 체계를 통해 이해하려는 시도임**

■ **이 지도는 예술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부연하자면 관객, 기부자, 조직 등의 역동적이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예술 전문가들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음**

■ **이 지도는 예술생태계의 영역을 '문화서식지(The Cultural Habitat)', '문화시장(The Cultural Marketplace)', '생산자(Presenters, Producers and Creators)', '비영리 성격의 자본과 자금(Non-Profit Capital and Cash)'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세부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흐름을 지도에 나타냄**

■ **지도의 영역과 구성요소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4› 문화 다이내믹스 지도



* 출처: Kreidler & Eng(2005)을 재구성

■ **이 관점의 핵심은 경제적·비경제적 또는 제도적·일상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통합적 세계 아래에서 조망한다는 것임**

— 문화시장에서 창작자들이 생산한 결과는 다시 문화서식지의 문화적 독해력(cultural literacy)이나 인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

— 문화 영역의 창작자와 생산자는 단순히 전문가와 아마추어로 구분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각자의 활동이 강화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생김

2-2) 미국 캘리포니아주 문화예술생태계 (California's Arts and Cultural Ecology, 2011)

■ **생태계적 관점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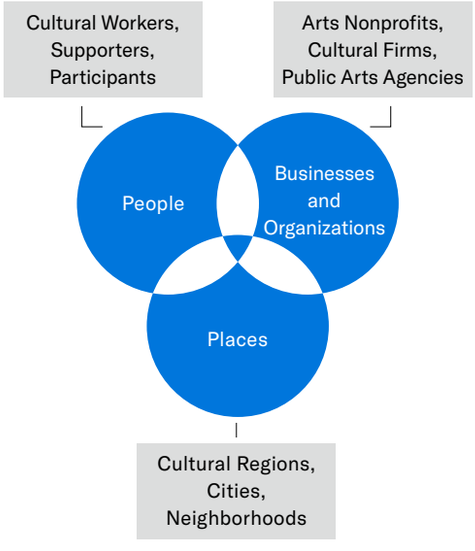
— 문화예술생태계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 생산자, 실연자, 지원자,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수많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개념임

— 40여년 전 생태학자, 과학자, 정책가들이 세계의 구성요소를 구분, 절단되지 않는 연결된 구조로 바라보기 위해 생태계 관점을 고안한 것처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최근 창작자, 지지자, 정책가들은 관계적, 통합적 시각에서 문화예술생태계를 강조하기 시작함

— 문화예술생태계의 여러 구성요소는 거리(distance), 예술계 규칙과 목표(arts disciplines and missions), 조직의 규모(size of organizations), 조직 형태(organizational form) 등을 기준으로 파편화되어 문화예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중요성과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함

■ **캘리포니아 문화예술생태계 구조도: 사람(people), 사업과 조직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장소(places)의 세 축으로 구성됨**

‹그림5› 캘리포니아 문화예술생태계 구조도



* 출처: Marksen et al(2011)

— 조직(Organizations): 조직은 예술적 표현을 고양시키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 실연, 지원, 보존하는 역할

— 사람(People): 문화노동자, 매니저, 참여자, 기여자 등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시간, 자원, 에너지를 투입하고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 장소(Places): 동네, 마을, 도시, 지역, 국가 등 문화예술 창조, 혁신, 생산, 참여의 무대가 되는 공간

■ **지역 예술과 문화예술생태계 (Regional arts and cultural ec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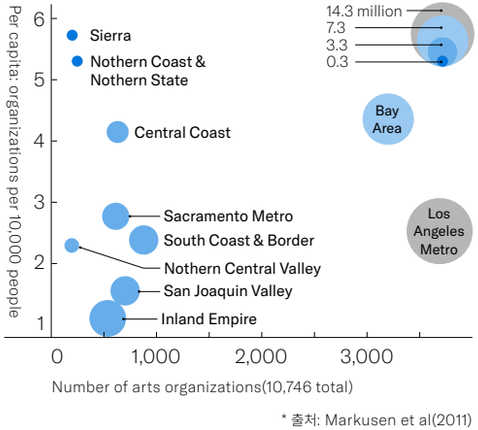
— 캘리포니아 문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특징은 캘리포니아 주 세부 지역, 도시와 마을, 동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지역이 가진 특징적인 풍경과 역사, 지역 정착민의 인구학적 패턴, 사회경제적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침

— 이 차이는 한마디로 '커뮤니티(community)'에 기인한다고 강조할 수 있으며, 장소와 밀접하게 결합된 사람들의 조합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장기적인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조직, 예산 구조, 인구 구성, 도시의 위치, 산업 구조 및 직업적 특성, 공공 문화지원의 방식, 거주민 소득, 자산, 학업 수준, 인종, 연령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함

‹그림6› 캘리포니아 지역별 문화예술 조직 현황 (Arts and cultural organization by region)



* 출처: Markusen et al(2011)

2-3) 문화생태계 (The Ecology of Culture, 2015)

■ **문화생태계란 용어는 1950년대부터 인류학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문화정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임**

■ **John Knell의 ‹생존하는 예술 (The Art of Living, 2007)›에서 처음 '펀딩 생태계(funding ecology)', '문화예술생태계(arts and cultural ecology)' 용어를 사용한 뒤 2008년 DCMS(영국 문화부)에서 발간한 ‹우리의 창조적 능력 (Our Creative Talent)›라는 보고서에서 '예술생태계(arts ecology)'를 처음 언급함**

■ **영국 문화부 장관인 Ed Vaizey는 2011년 ‹창조생태계(The Creative Ecology)›라는 연설에서 '공공지원을 받는 예술과 상업예술 간의 협력, 전문적 그리고 자발적 예술, 문화예술 산업'을 일컬어 창조 생태계라고 명명하면서 예술의 가장 위대한 강점은 생태계에 기반한다고 강조함**

■ **문화생태계의 정의와 용례에 대한 문화정책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문화생태계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공적 지원 문화, 상업 문화, 가정 문화**

— 공적 지원 문화(publicly funded culture): 문화 분야의 공적 지원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지원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상업 문화(commercial culture):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직접적 공적 지원 없이 개인 및 조직의 활동을 유지

— 가정 문화(homemade culture):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의미하며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함. 예를 들어 아마추어 예술, 자발적 예술의 영역도 여기에 포함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도 이 영역의 하나임. 영국 통계에 의하면 이 영역에 연계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5%로 추정하고 있음

3) 클러스터와 집적된 문화예술 자원

- 클러스터(cluster)는 산업집적지를 말하는 것으로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함.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가 모인 '대덕연구단지',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 등이 대표적인 클러스터임

-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낙원동 악기상가, 인사동 화랑거리, 대학로 소공연장 등 주요 지역에 오랜 시간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었음. 2000년대 중반 서울시는 '문화특구' 사업을 통해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특구', '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음

- 낙원동, 인사동, 대학로, 서초동이 산업집적지의 성격이 강한 반면 홍대 지역은 소규모 클럽, 출판사, 디자인회사, 레이블 등의 산업집적지에 더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거리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이 분명함

- 다음의 표는 홍대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관련 연구를 정리한 것임

-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홍대는 많은 예술가가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이고 대학로나 서초동처럼 특정 예술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적 실험이 일어나는 공간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홍대 지역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상당하여 홍대 지역은 예술가들이 사수하고 지켜가야 하는, 보존하고 육성해야 하는 공간이며 이 지역에서의 활동은 예술가들에게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줌

‹표6› 홍대 지역 선행연구 목록 및 요약

저자(연도)	제목	요약
신정란·최창규 (2010)	홍대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지역이 젊음, 문화, 공연 등의 장소성을 가지는데 있어 예술가 및 창조적 인재들의 유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김수아 (2015)	홍대 공간의 문화적 의미 변화 –공간 이용자의 기억을 중심으로	1990년대가 주요한 생산의 시기로 홍대 인디 문화가 자생적으로 발생했으며 홍대 문화 공간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관광자로 홍대에 유입되어 공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주희현 (2017)	홍대인근 출판사 밀집현상에 대한 소고	정부정책으로 파주출판단지가 조성되었지만 대형 출판사들이 여전히 홍대 지역에 북카페, 북살롱 등의 문화적 거점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출판 생태계에 대해 이해

-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접근한 방식이 홍대의 '지역문화생태계'를 모두 다룬다고 보기 어려움. 왜냐하면 지역문화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를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임. 일례로 홍대 옆에 위치한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경우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예술이 공동체 형성과 유대감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홍대의 지역문화라고 하면 성미산마을의 사례보다는 홍대 거리에서 펼쳐지는 축제, 거리공연, 클럽데이 등을 연상시킴. 본 연구는 지역문화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을 지역문화 생태계로 간주함

4) 한국의 지역문화생태계 논의 등장

-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문화향수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분석 결과) 자신이 거주하거나 직장이 위치한 생활권의 '동네(neighborhood)'를 중심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다양한 방식의 문화공간과 행사가 늘어남

— 연희예술극장, 신촌극장, 로로스페이스 등 소규모의 생활권 기반 공연장 및 문화공간 설립

— 카페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북카페, 카페 등 개성이 돋보이는 소규모 공간이 동네에 많이 생기고 이를 중심으로 일상문화를 즐기는 트렌드 발생

- 또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방 시·군 및 대도시의 자치구 수준에서 기초문화재단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중앙정부나 광역문화재단과 차별화된 기초문화재단 고유의 사업 영역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지역에 정주하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포섭됨

‹표7› 서울 기초(자치구)문화재단 설립 현황

연도	지역
2004	중구
2007	구로, 마포
2008	강남
2012	성북, 영등포
2013	종로
2015	광진, 서초, 성동
2017	강북, 금천, 도봉, 은평
2018	동대문, 동작
2019	관악, 노원, 송파, 양천
2020	강동

- 지역이란 지리적 공간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배분되는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예산·실행 주체는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예술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동일 집단인 경우가 많음

— 문화예술 공공지원 분야를 예술창작,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사회적경제 등으로 구분해 본다면 본업으로는 예술창작을 수행하는 예술가가 부업의 의미로 예술강사가 되어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의 효과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는 예술단체가 많으며 이런 경우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예산과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분야의 공공지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음

— 마을·동네를 무대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축제, 교육, 강의, 네트워킹, 공연, 전시 등의 활동은 지역주민에게 주체와 분야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달되기보다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예술적 자원과 프로그램으로 전달됨

- 반면 사업을 주관·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중앙정부 기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오면 유사한 사업이 중첩되는 일도 있고 실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게 사업이 실행되기가 힘든 구조임

3 지역문화 정책의 경향성 분석

1) 지역문화 정책의 역사[1]

1-1)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2002)

- **'새 문화관광 정책(1998)'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중앙부처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조광호, 2016)**

— 2001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문화 진흥의 계기를 마련

— 우리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 보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진흥정책 추진

— 전통문화도시, 전통문화마을, 전통문화지역 조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

— 지역문화원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특성화의 기틀을 다짐

1-2)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7)

-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창의한국(2005)' 중 '문화·관광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목표 선포 (조광호, 2016)**

— 문화를 통한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립과 시스템 구축

—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결할 정책적 방향 제시

— 사회적 제가치의 형평분배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문화의 진흥 정책마련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위해 문화관광부 내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역 간 정책조정·협력기능을 강화한 전담부서인 지역문화과를 문화정책국에 설치

— 분권·자율·참여 기조에 입각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문화단체, 지역민을 지역문화진흥의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재원마련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모색

— 사업추진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1-3) 이명박 정부 (2008–2012)

-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을 포괄하는 '지역문화발전방안'을 발표**
- **「지역문화진흥법(안)」을 통한 법적지원체계 마련과 동시에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
-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 부여) 조성을 추진**
- **전국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진흥하고, 주민의 일상에 체감되는 생활공감 문화정책을 추진**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역문화행정가 및 민간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연수 실시**
- **지방대를 활용하여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진행, 지역문화 관계자 사이의 정책네트워크 구축하여 효율 제고**
- **지역문화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 통계조사' 연구를 진행, 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

1-4) 박근혜 정부 (2013–2017)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과 '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를 새로운 정책목표로 설정**
- **'지역문화발전방안'의 주요과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문화의 창의성 진흥을 통한 특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마무리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문화전문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법정 기본계획의 수립·발표**
- **지역별 특화발전 및 일상 속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1)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2016)의 제2장 '지역문화 관련 정책변화 및 동향'을 바탕으로 서술함.

2) 지역문화정책의 쟁점

2-1) 지역분권과 지역혁신

■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의 강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가 더욱 촉진되어 지역의 강화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대두됨 (정종은 외, 2018)**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를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화한 이후 지역분권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됨**

–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의 성장·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함 (정종은 외, 2018)

■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이 계속 핵심과제로 논의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수도권-지방, 중앙-지방, 도시-농촌 격차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의 가장 큰 방해요소로 지적되기 때문임**

■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되면서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생김**

– 여기서 오늘날의 지역 발전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지역 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 정부의 지역 혁신이 진정 혁신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화의 기본으로 문화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정종은 외, 2018)

■ **문화비전 2030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5월 발표한 새로운 문화비전으로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의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였고, 여기서 도출된 9개의 의제 중 지역문화와 관련된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 양식을 보호·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는 원칙 아래 6개의 대표 과제 도출

■ **또한 구체적인 법·제도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배경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 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 2015년 발표된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2020년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음

1)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그림7›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비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문화동호회 참여율 '14년: 4.2% → '19년: 7%)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기반시설 '14년: 2,515개소 → '19년: 3,375개소)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문화도시·문화마을 '14년: 3개소 → '19년: 50개소)	
	사람중심	지역중심 / 과정중심
추진 목표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세계화 추진
추진 체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추친체계 구축	

* 출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15)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4)

- 2019년 한 해 동안 1차 계획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여 2차 계획 수립
-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구술포럼'이란 이름의 지역 순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하여,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박종달, 2019)
- 지역문화정책 환경 개선, 생활문화 진흥, 문화도시·문화지구, 문화인력 및 기관 육성,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구체화

‹그림8›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 비전 및 전략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 비전·가치·목표

비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가치·목표	자치 자율성·참여성·신뢰성	포용 다양성·연결성·융합성	혁신 내생성·지속가능성
	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
	· 지자체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19년 1.6% →'24년 1.8%) · 지역 규모별 문화향유 격차 감소('19년 13.5% p →'24년 10% p)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 지역문화 협력 체계 개선 · 지역문화 재정 확충 · 지역문화 역량 강화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 지속가능한 지역예술생태계 구축 ·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3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 ·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사업 육성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 공간 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지원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 제1차와 2차 계획의 주요 차이점

- 자체 진단 결과 제1차 계획은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 기반을 구축했으나 협치 구조 및 자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 구체적으로 지역 기반 기관들 간 분절적 사업으로 협치 구조에 한계가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성, 시설 인력 등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자율성과 역량이 저하됨
-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혁신추구와 다양성 보호가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세계화에 따른 지역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현상에 대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보호 시급

2-2) 문화적 도시재생

■ 지방소멸, 지방쇠퇴와 함께 구도심이나 낙후지역의 재생 이슈 또한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 2000년대 초부터 낙후지역 중심으로 행해진 벽화마을사업,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은 예술가들이 투입되어 도시의 미관을 변화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을 다시 유입하는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됨

— 당시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단위의 마을이나 동네를 대상으로 하거나, 총체적 문화예술적 접근이라기보다 벽화나 시각예술을 활용한 미관, 경관 재생 중심으로 이루어짐

■ 2010년대 이후 구도심의 오래된 건물이나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재생된 공간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 비즈니스, 카페, 공방 등이 연이어 오픈하면서 공간과 사업의 재생을 동시에 수행하는 우수 사례로 보고됨

— 세운상가, 을지로, 전주 청년몰 등이 대표적 사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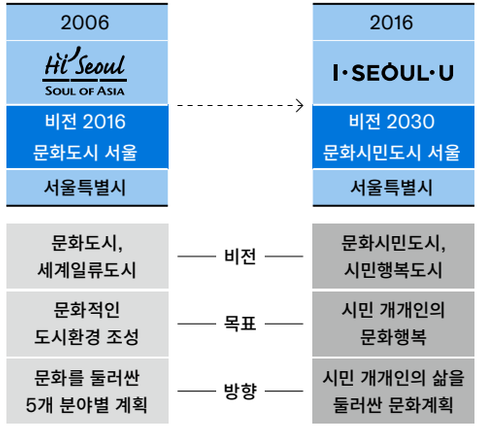
— 이 공간은 주로 청년 메이커스, 청년 창업, 청년 스타트업, 청년 크리에이터 운동과 결합하여 공간을 채우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소개됨

■ 최근에는 '문화적 도시재생'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하나로 정책화되어 자치구 단위에서 낙후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하여 문화적 도시재생을 신청하고 지원을 통해 문화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3) 서울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서울시에서 수립한 이 비전은 2016년 6월 발표한 것으로 2006년 수립한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 이후 10년 만에 수립한 문화도시 비전임

‹그림9› 서울시 비전 2015와 비전 2030 비교



■ 개인을 둘러싼 5가지 차원의 계획은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으로 구분되며, 지역문화 생태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일상적 공간의 문제'인 '지역'임

■ 지역과 관련한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표8›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지역관련 추진과제

목표	과제	세부과제
거점형 문화공간을 생활중심 문화환경으로	일상의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 서울은 미술관 추진 · 만개 무대 조성 · 생활문화공간 조성 · 특색 있는 문화시설 확충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자치구 중심 지역문화지표 형성 · 취약지역 문화환경 우선 개선 · 권역별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미술관 건립 ·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 문화자치 기반 강화	· 자치구별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 자치구별 기초문화재단 설립 · 시민문화지원 사업 자치구 이양 · 지역문화인력 양성
문화를 지우는 재생에서 담아내는 재생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	· 문화적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운영 ·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시행
	자생적 문화지역 보호, 육성	· 문화지역 관리를 위한 문화지구 제도 혁신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방안 마련

4 지역문화 평가지표

1) 지역문화지표와 평가체계

■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를 실증적으로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졌음. 이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문화 지표인 ‹지역문화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와 서울 지역에 한정된 ‹서울문화지표› (서울문화재단 주관)조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지역문화 지표의 체계적 특징을 정리하고, ‹문화향수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특정 지역 버전인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서울문화재단 주관)를 검토하여 이 조사를 ‘지역문화’ 관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함**

1-1) 지역문화 실태조사

■ **조사 목적 및 대상**

— 지역문화 현황파악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 정립 및 기초 통계자료 생산. 지역문화진흥정책 추진 전략 제시,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의 수립으로 지역의 문화 역량 강화(문화체육관광부, 2019: 3)

— 전국 229개 자치단체(226 기초자치단체, 2 행정시, 1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조사된 정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지역문화실태조사 DB 입력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 **조사 연혁**

—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2014.07.29.)으로 지역문화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및 행정자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문화체육관광부, 2019: 4), 법에는 지역 간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지역문화실태조사 실시가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이를 근거로 2012년에는 시범조사 실시, 2013년과 2015년에는 2회에 걸쳐 공식적인 조사가 실시된 바 있음

—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년 조사’는 2019년 ‘국가승인통계(보고통계)’(공식 통계명 : “지역문화 현황통계”)로 인정받은 이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 5)이며, 2020년 기준부터 3년 주기로 작성될 계획임

‹그림10› 지역문화실태조사(지역문화지표) 추진경과

2012	2013	2014	2015	2018
***158개 기초 시범조사, 38개 지표, 서면조사**	***229개 기초 전수조사, 37개 지표, 서면조사**	***온라인 DB시스템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문화실태조사 본격화, 전국 기초대상 온라인 조사 실시**	***지역문화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화 추진**
· 광역시를 제외한 158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범조사 실시 · 성과: 지역문화지표 체계 도입 및 효과성 검증 · 한계: 측정범위 모호, 분석의 틀 미흡	· 전국 229개(세종시 제외)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표조사체계 구축 · 성과: 전수조사 실시, 분석의 틀 체계 정립 · 한계: 공공과 민간영역 혼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한계	· 37→26개 지표 대폭 축소(전문가 설문·자문, 지자체 의견 수렴 등) · 전년도 상위 12개 지역 대상 온라인 시범조사 실시 · 민간영역 제외, 지표의 정량화·객관화	· 전국 229개 (세종시 포함) 기초자치단체 대상 온라인조사 실시 · 온라인 DB 시스템 구축 · 입력과 조회가 편리,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 지역문화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등록 · 27→28개 지표 조정 (전문가 자문, 신규지표 추가 및 수정) ·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지표체계 수립

* 출처: 2017 지역문화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9: 12)

■ 조사 항목

–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지표조정에 대한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4개 대분류, 10개 중분류, 28개 지표를 확정함

‹표9›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정책사업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기초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7년 당해)	지자체
	정책환경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17년 현재)	지자체/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17년 현재)	지자체
	문화예산	기준연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17년 당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2017년 당해)	지자체
문화 자원	문화유산	문화유산 보존 관련 조례 제정 유무(2017년 현재)	지자체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 비율(2017년 당해)	지자체
	기반시설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17년 현재)	지자체/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17년 현재)	문체부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17년 현재)	장애인인증개발원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17년 현재)	지자체
	자원활용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2017년 당해)	지자체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7년 당해)	전국지역축제총괄표
		기초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문화 활동	활동조직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17년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17년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인력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17년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관광해설사 수(2017년 현재)	지자체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17년 당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 향유	지역주민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문화가 있는 날' 기초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및 카드 발급률(2017년 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7년 당해)	지자체

* 출처: 2017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9: 19)

1-2) 서울문화지표 조사

■ **조사 목적 및 대상(서울문화재단, 2018)**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후 지역문화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역문화 실태 파악의 중요성 증가함에 따라,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표수립과 실태조사 필요

— 서울특별시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를 발표하고 특히 '지역' 범주의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지역기반 자료의 필요성 증대

— 중앙 정부의 문화와 지역 관련 지표와 통계 관련 광역 단위(서울시) 실태를 총체적 파악과 자치구 단위 현황 파악이 어려워 보완이 필요

■ **조사 연혁**

— 2015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를 통해 5개 대분류, 21개 중분류, 53개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함

— 2016년 발간한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에서는 50개 세부지표를 개발함

— 2년 주기의 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누적 생산할 계획임

■ **조사 항목**

‹표10› 서울문화지표 체계 구축 연구 세부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문화기반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수 ·등록문화재 수 ·서울미래유산 수	·시도지정 문화재 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
	법정 문화지구	·문화지구 및 문화도시 지정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공공 문화기반시설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규모 ·공공 문화기반시설 가동일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생활문화공간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수 ·공공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민간 문화기반시설 수 ·민간 문화공간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가동일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규모 ·민간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수 ·민간 문화기반시설 프로그램 수
문화인력	문화예술 인력양성	·문화예술고등교육기관 수	·기관 학생 및 졸업생 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수 ·문화예술사업체 고용률	·예술교육 강사 수 ·문화예술사업체 종사자 수
문화시장	문화예술 사업체	·문화예술 사업체 수 ·사회적 경제 사업체 수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문화예술 유통 플랫폼	·축제 규모	
	문화예술작품 유통	·문화예술 작품 유통량	
	문화예술 매출	·문화예술 사업체 매출액	·공연상품 티켓판매액
문화참여	여가와 문화예술	·평일/휴일 여가시간 ·휴가 기간 중 문화예술 활동 비중	·여가 중 문화활동 비중 ·여가 공간 중 문화시설 이용률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예술 관련 지출 비용
	문화예술 참여	·문화예술 교육 참여율 ·지역문화예술 참여율	·문화예술 자원봉사 경험률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율
	문화복지	·문화복지 수혜건수	
	문화생활 및 문화환경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예술 관심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문화정책	문화정책 법체계	·문화정책 조례 수 및 제개정 수	
	문화예술 예산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 기부금 및 후원금액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예술 창작지원 예산 총액	
	문화정책 기구	·지역문화진흥기관 수 ·지역문화 진흥기관 인력 수	

1-3)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조사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임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향수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광역 지역 버전의 형태이며, 상당수 문항의 구성 및 측정하려는 지표가 이 조사들과 유사함

■ 조사 연혁

— 현재까지 2014, 15, 16, 18년 총 4회차의 조사가 진행됨

— 2014년 조사는 시범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Web 조사로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및 재단 사업 참여 경험자(문화관심집단) 총 2,9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함(2014년 12월 2일 ~ 12월 26일 진행)

— 서울시민에 대한 포괄적 조사인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는 비교척도로 활용함

— 2015년 조사는 기존 조사와 더불어 ‘자치구 조사’를 시행하여 7개 자치구 (금천, 구로, 강남, 노원, 마포, 성북, 영등포) 문화서비스 접점구민[2]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 진행함

— 2016년 조사 추진과 함께 “조사대상의 비일관성, 이론적 근거 부족 등 내부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서울문화재단, 2017a: 6)”되어 조사의 신뢰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2017)›가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 2016년 조사는 일반 시민 대상의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 패널(2천명)’을 활용함

— 2018년 조사에서는 서울시 산하 9개 기관으로 문화관심집단을 확장하고, 일상생활 문화예술활동 문항을 추가하여 서울시민의 매체를 이용한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각 자치구의 문화관련 서비스에 관심 있는 구민: 각 구청, 구립문화시설, 기초문화재단 등의 홈페이지 회원 및 방문자. 각 자치구 문화프로그램 이용자, 문화시설 방문자 및 기타 자치구 서비스 대상자 등

■ 조사 항목

‹표11› 2018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 항목

항목	세부 항목
문화/ 여가활동 실태	· 하루 평균 여가 시간, 여가 시간 충분성 · 주로 하는 여가 활동 및 여가활동 동반자 · 가장 희망하는 여가 활동 · 평소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 관람 경험 및 만족도	· 최근 1년 문화활동 관람 (총 횟수/본인 지불 횟수/총 비용) · 과거 관람 경험 · 문화예술관람 의향 · 문화 프로그램 관람 의향 · 문화예술관람(참석) 동반자 · 문화예술 행사 주 관람 지역 · 문화예술관람 만족도 · 문화예술관람 불만족 이유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문화예술 활동 참여 경험/형태/빈도 · 문화예술 교육 최초 시기/기간 · 문화예술 활동 참여 만족도
일상생활 문화예술활동 경험 및 만족도	· 미디어 활동/문화예술 활동 경험 · 문화예술 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 경험 · 이동 공간 내 이용 콘텐츠 · 일상생활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문화예술활동 경험과 인식	· 문화예술활동 동기 및 전이 · 문화예술활동 장애 요인 ·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 문화예술 중요도 · 문화예술 정서적 효과 · 좋아하는 음악
문화예술 만족도 및 행복지수 등	· 서울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 거주 자치구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 거주 자치구 문화환경 수준 · 삶의 만족도(행복 정도)

■ 지역문화 관점으로 본 조사의 특징

—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

▫ 조사 문항 중 “최근 1년 기준으로 다음의 공간 또는 공연·행사를 얼마나 자주 이용·참여하셨습니까?”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답변에는, 공간(북카페/ 복합문화공간/ 독립서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거리 음악공연/ 거리 일반공연/ 캐리커처/ 아트플리마켓)에 대해 4점 척도로 활동 수준을 묻고 있음

▫ 공간의 분류 중 ‘북카페’, ‘독립서점’,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공간은 아님. 최근 이러한 소소한 공간을 탐방·관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복합문화공간(예술의 전당, 문예회관 등)’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별 활동수준 비교 분석’을 통해 공간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 측정 가능함

— 지역기반 문화예술 활동

▫ 조사 문항 중 “귀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주로 어느 지역에서 관람하십니까?”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답변에는 ‘생활권 주변의 예술행사를 주로 관람한다(거주지/직장)’, ‘특정 지역과 관련 없이 관심 있는 행사를 찾아다니는 편이다’, ‘기타’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음

▫ 여기서 ‘생활권 주변’을 선택한 사람은 다른 문항을 선택한 사람에 비해 지역기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집단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에 대한 응답 결과도 지역기반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문화환경에 대한 인식

▫ 조사 문항 중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전반적인 문화환경(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수준 등)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5점 척도로 자치구의 문화환경 만족도를 조사함

▫ 조사 문항 중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문화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문화 시설이 다양하다’, ‘행사나 프로그램이 풍부하다’, ‘거주지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다’,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는 4개의 범주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고 있음

▫ 조사 문항 중 ‘서울 문화환경 만족도’ 결과와의 점수 차이를 통해 서울시 대비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치구에 대한 만족도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음

5 소결

■ **지역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해석 존재**

— 지역문화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유산·자산·자원에 기초한 지역성에서부터 지역주민 공동체가 함께 공동의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함

— 지방자치제도 시행, 지방분권 강화, 지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설립 등 정책적 변화는 우리가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앙과 대비된 지방, 또는 생활권으로서의 지역이 정책과 일상 모두에서 중요성이 확대됨

— 따라서 지역문화에 대한 고정적인, 결정적인 정의나 해석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지역문화의 의미와 가치는 변화하는 것이 당연함

—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목표로 언급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사회 속의 지역문화**

— 지역문화는 산업집적지로서의 클러스터나, 특정 예술장르를 위한 생태계가 아니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음

— 이미 우리는 문화예술 공간, 시설, 행사, 축제, 프로그램 등에서 지역사회에 배태된 문화예술의 의미와 위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권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의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활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생태계적 관점 필요**

— 생태계는 구성요소와 조건의 상호적인 작용을 관계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기존에 장르 중심, 지원사업 중심, 작품 중심 등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의 큰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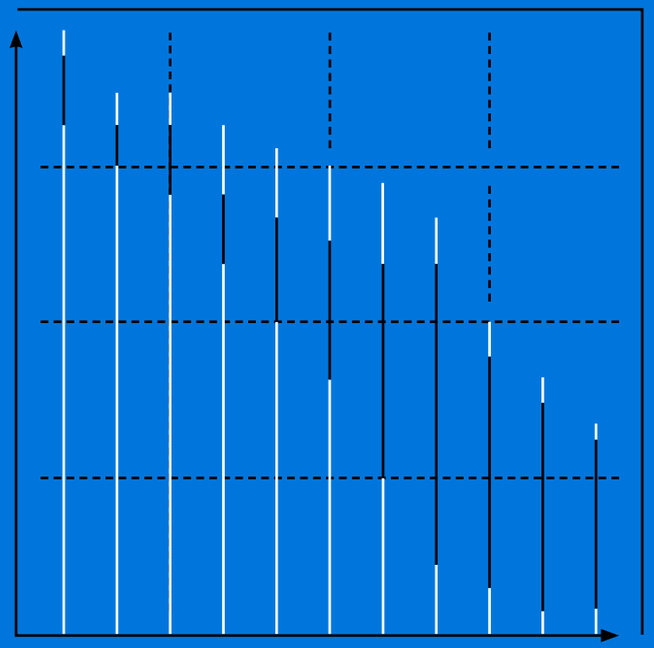
III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환경변화

1 주요 개념 정의

2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3 소결



1 주요 개념 정의

■ **환경변화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생태계 등 최근 지역문화 관련 논의에서 등장하는 용어들의 경우 지칭하는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수용하고 있어 개념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 **이번 연구에서 주되게 사용하는 '지역문화', '지역문화생태계'의 개념 정의와 함께 실제 활동의 현장에서 지역문화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자 함**

1) 지역문화

■ **'지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타 지역과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구역에 기반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말하거나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문화(지방문화)' 등으로 통용되고 있음. 역사성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이는 축적되고 생성이 완료된 과거의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음. 지역문화는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 혹은 타 지방과 대비되는 행정구역 기반의 해당 지역의 '개성, 특징'에 가까운 설정으로 통용됨**

— 1983년의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 등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또는 대도시와 대비된 개념으로서의 지방을 지역이라고 인식

■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 '지방문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온 통념에서 벗어나 '지역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면서 '지역문화'는 개념적, 실천적 의미 변화를 겪고 있음**

— 이종인(1998)은 '지역문화'를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신앙·예술·윤리도덕·관습 등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이자,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일상생활의 권역에서 가꾸어진 기층문화(풀뿌리 문화)이며, 공간적 개성(지역성)과 사회적 공동체성(연대성)을 지닌 문화로 정의

— 임정희(2006)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주민의 지역적 삶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형성되고 실천되는 문화를 '지역문화'로 정의

— 라도삼(2019)은 '지역문화'에 대해 지방단위의 행정에서 형성되는 문화, 지방에서 형성되는 문화라는 시각을 버리고 생활단위 문화, 특화된 지역의 형성과 관리 등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지역문화의 본격적인 진흥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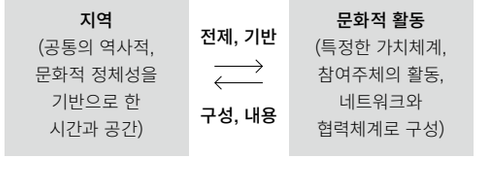
이는 '지역성'과 '정체성' 논의가 반영된 개념 정의라 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의 지리적·공간적 범위로 '행정구역'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함. 이는 동 법률이 실제 지역문화 관련 공공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문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지역성(Locality)' 관련 연구는 '지역문화'에 대한 통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음. 문재원(2019)에 따르면 '지역성은 삶터로서 로컬(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는 다양한 관계의 총체이자,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것을 의미'하고, 지역성에 대한 강조는 '로컬을 타자에서 주체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대한 강조를 의미. 즉, '지역문화'에 대한 통념이 '축적되고 생성이 완료된 것' 혹은 '행정구역 기반의 특징'[3] 정도에 머물렀다면, '관계, 가치지향, 주체로서의 로컬'을 강조하는 '지역성' 관점에서는 '지역문화'의 현재적 구성 요소와 순환관계, 협력체계, 그리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시-공간의 설정을 가능하게 함

- '생태계'라는 개념을 수용한 이번 연구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성 관점의 접근이 중요. '지역문화생태계'라는 접근법에서는 기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구성 원리로써의 '관계성과 협력체계', 구성 내용으로써 '가치체계와 주체' 등이 중요한데, 이 중 많은 부분이 지역성 관점의 접근법과 일치

- '지역문화생태계'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에서 '지역문화'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가치체계와 참여주체의 활동,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11›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



3) 로컬리티와 로컬리즘 : 로컬리티에 대한 접근은 '국가/로컬, 중심/주변' 관점의 배타적 로컬리즘과는 구분되어야 함. 로컬리티를 '주변부의 특징적 성향' 정도로 규정하는 것(로컬리즘)은 로컬리티의 문제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오류를 내장. 이때 로컬은 이미 구체성과 복잡성을 상실하고 추상화되고 고착된 한 방향만을 지정(문재원).

2) 생활문화

- '생활문화'와 삶의 양식 전반을 가리키는 광의의 '문화'는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음. 하지만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생활문화'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및 지역 내 유대 관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 이후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해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의 주요 정책범주로 자리 잡게 됨[4]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문화에 속하는 하위 범주로 표현하고 있음.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5]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지역문화에 생활문화를 포함시키는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법을 근거로 하면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의 여러 유형이나 종류 중 하나로 존재

‹표1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중 지역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

항목	세부 항목
제2조(정의)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6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는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개념.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지역성의 관점)이 '지역문화'의 접근법이라면, '생활문화'는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통칭하는 것으로 자발성과 일상성이라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주목하는 접근법. 개념과 접근방식 모두 다르지만 '생활권'과 '지역'이 중첩되면서 정책적 접근에서 생활문화와 지역문화가 혼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개념과 실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생활문화정책 변천사'(김규원, 예술경영웹진 442호)

5)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최근의 연구[6]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적 특성으로 '생활적 일상성, 자발적 주체성, 장르적 다양성, 문화적 인지성'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의 범위는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결국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관계설정이 중요.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개념이므로 각자의 접근방식에 따라 서로의 영역과 활동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는 관계설정이 요구됨. 지역문화의 관점에서는, 생활문화의 주체, 시설, 공간, 정책 등을 지역문화의 구성요소로 인지하고 지역문화의 중요한 활동의 장으로 생활문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 이는 하위범주라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 활동의 실질적인 관계성 파악을 위해서라 할 수 있음. 정책의 영역에서는 생활문화와 지역문화가 각각 어떤 정체성과 고유사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서로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방식보다는 고유한 정책 및 사업으로 각각의 중심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필요

‹표13› 생활문화의 연구적 개념 정의[7]

개념 정의	일반 정의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 정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개념 특성	개념 속성	·생활적 일상성: 생활영위활동과 함께 일어나는 삶의 동시적 문화 ·자발적 주체성: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고 활동하는 문화 ·장르적 다양성: 문화예술부터 생활기술까지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문화 ·문화적 인지성: 문화로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적 인지태도의 문화			
	개념 전개 특성	사회적 전개	공간적 전개	시간적 전개	
		사회생활의 영위와 함께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 전개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 전개	생애주기 내 반복적 문화 패턴을 만드는 문화활동 전개	
개념 범위	장르 범위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예술 장르에 해당하는 계열의 문화활동 분야	예술에 속하지 않는 장르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동시에 자기개발, 여가, 취미 등의 목적으로 향유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분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류 및 매개와 사회공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활동 분야	생활예술/생활기술/생활교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화활동 분야
	활동 범위	창작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		
		참여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		
		교육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문화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		
		향수	문화적인 것으로 부터 관람·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활동형태		

6)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 ‹생활문화활동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조광호, 201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07

3) 지역문화생태계

- 생태계라는 말은 생물학, 생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8]. 지역문화 논의에 생태계 개념을 끌어온 것은 이를 통해 지역문화 각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순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음. '지역문화생태계'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가치체계와 참여주체의 활동,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계를 말함

- 생태계 관점의 접근은 지역성과 정체성을 '관계성'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 '지역문화생태계'란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관계의 총체를 말함.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화생태계' 관점에서는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주체(민간, 공공), 활동(법·제도, 사업), 시설·공간(민간, 공공), 협력체계 등임. 이는 '문화예술이 생산되어 향유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인력, 활동(결과물 포함), 시설(공간)'이라는 문화자원에 대한 정의[9]를 기반으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협력체계를 포함시킨 것임.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라는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기록해 평가·유형화하였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7) : 주체(민간, 공공), 법·제도, 사업·콘텐츠, 시설·공간(민간, 공공), 협력체계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영역(5) :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한편 '지역문화생태계'는 행정구역 기반의 지원사업 전달체계와는 구분되는 것임. (로컬리즘의 한계를 넘어)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으로 지역을 이해할 때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음. 홍대, 문래동과 같이 밀집된 공간적 범위에서 집중적인 문화적 실천과 순환이 일어나는 지역, 문화시설 등 공간거점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권 차원에서 문화적 실천과 순환이 일어나는 지역, 기관·제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광역·기초 행정단위 기반의 문화적 실천과 순환 등 관계성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구성될 수 있음

8) 생태계(生態系, 영어: 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생태학(ecology)이라고 함(위키백과).

9) ‹문화예술통계 중장기발전 실행방안 연구› p.31, 문화체육관광부, 2011. ‹서울시 문화자원 실태와 분포특성›(서울연구원, 2015)에서 재인용

■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으로 지역문화를 이해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간과 공간, 관계성 각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함. 중심은 ‘관계성’이라 할 수 있음. 로컬리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선순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이해하기(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가 지역과 맺는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분석)가 필요

■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생태계를 ‘관계의 총체’라고 했을 때, 형성된 지역문화생태계와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자원에 대한 공공적 소유와 운영, 지역문화생태계의 유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시간, 공간, 주체, 네트워크, 협치, 제도, 사업 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함

2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 문화를 삶의 양식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는 광의의 해석에 따른다면 사실상 지역문화와 무관한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는 없을 것임. 구체적인 지역에서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화 즉 지역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주목할 필요

■ 문화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며, 이번 장에서는 지역문화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즉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에 대해 파악하려고 함

■ 지역문화생태계와 관련한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의 요소로는 ‘인구의 변화, 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의 심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대’ 등에 주목[10)]

1) 인구 구성의 변화

■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 (‹2018년 출생통계(확정)›, 통계청).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과 마카오(0.92) 뿐.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련 지표는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 0명대의 출산율,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구성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 부양문제 등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변화 외에도 문화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됨. 최근 인구 구성의 변화와 함께 제기되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대표적

■ ‘정주’ 혹은 ‘주민’ 개념의 변화 또한 불가피. 과거 토지나 주택의 소유 여부,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3~4인의 가족형태 등을 기준으로 주민을 식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구성, 주거 형태,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주’와 ‘주민’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고 관련한 정책을 고민해야 함

10) 2019년 6월 발표한 ‹문화분야 2045 중장기 비전과 핵심의제 연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미래사회 트렌드 분석으로 총 8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음. (1) 인구 감소와 사회구성의 변화, (2) 삶의 위협에 대한 저항과 사회 현상의 다양화 증대, (3)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간 존재 방식의 혼란과 관계의 질 변화, (4) 경제기반의 변화에 따른 협력과 공유 관계의 필요성 강화, (5)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과 인간의 관계 변화, (6) 환경문제의 확대와 안전이 기반 된 도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장, (7) 대의 정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의 확장, (8) 평화번영시대 새로운 한반도 문화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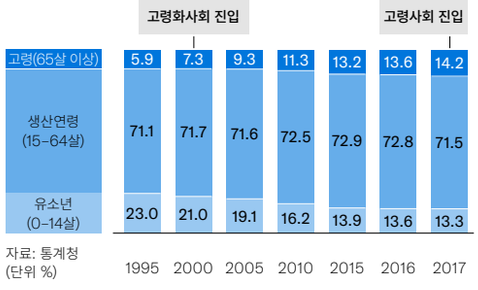
1-1) 고령사회(Aged Society)[11]로의 진입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 '고령사회'로 진입(65세 이상 인구 726만 명, 전체인구의 14%)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의 진입이 예상됨. 반면에 노년기 사회안전망 관련 지표는 심각한 수준**

– 2014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 (OECD 국가 평균 12.6%)

– 2015년 기준 노인자살률 58.6명 (10만 명당), 전연령 자살률은 26.5명

‹그림12› 생산인구, 고령인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단위 %)

* 출처 : 한겨레신문

- **서울시도 '고령사회'로 진입.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인구 1004만 9607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1만 명으로 14.4%를 기록, 광역시·도 가운데 11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

- **정부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음. 그리고 2006년부터 5년마다 기본법에 의거한 기본계획을,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06년부터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현재 제3차 계획(2016~2020)이 시행 중. 기본계획 내용의 대부분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일자리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음.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에 대한 재정투입은 2017년 기준 0.9%에 불과한 수준**

-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났으며 이는 새로운 노동 현상이자 동시에 세대 간 갈등의 요소가 되었음.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불안이 공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세대 간 갈등의 심화가 위기담론으로 확대재생산 되고 나아가 혐오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지역, 생활권 차원에서의 복지와 교육, 그리고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연대와 신뢰를 통한 갈등해소 노력이 절실함**

11)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 재정부담과 재정정책과제›(안종범, 2004)에 따르면, 고령화는 노인인구 구성비에 따른 UN의 국가 분류에 의해 정의됨. UN은 인구 구성에 따라 노인인구의 구성이 4% 미만인 경우에는 유년인구국(youngpopulation), 4-7%의 경우에는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경우에는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구분. 노년인구국의 경우, 다시 노인인구 구성 7%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 20%미만인 경우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 구분함.

1-2) 인구 구성의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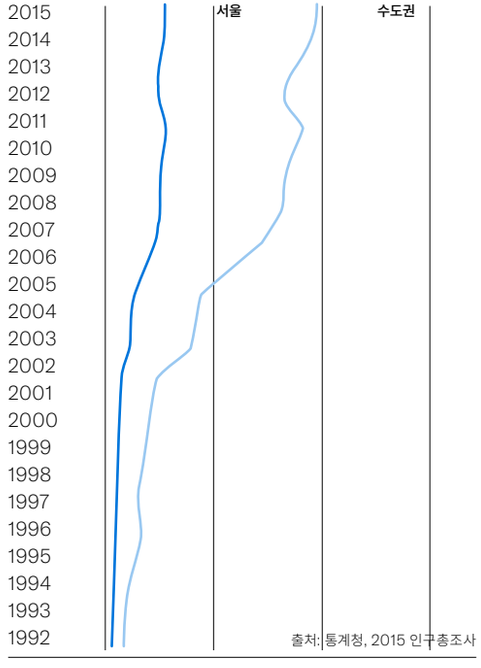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주민(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의 숫자는 205만4621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4% 수준에 해당. 외국인주민의 숫자가 전라북도 전체 인구(181만8157명)보다 많아진 것. 서울시의 경우 44만6473명으로 서울 인구 중 4.6%가 외국인주민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충청남도(5.4%)와 경기도(5.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

- **다인종·다민족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가 이미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분명. 외국인주민의 수는 9년 만에 2배가 되었음. 하지만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확장이 외국인주민의 폭발적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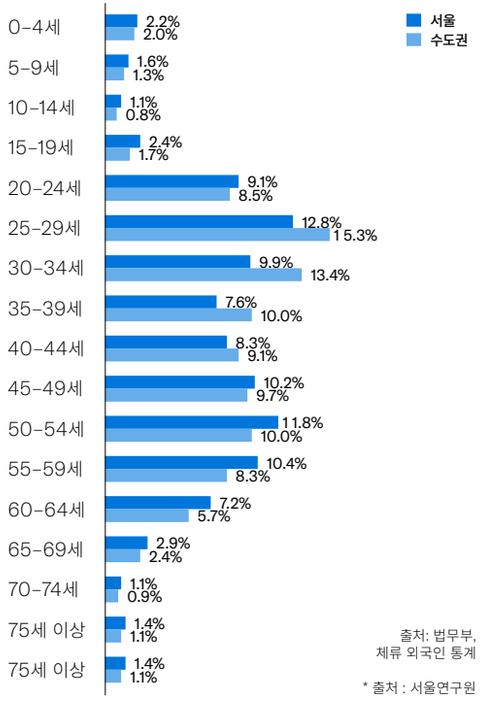
- **때문에 인구 구성의 다변화와 함께 제기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 논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공생을 의미하는 '문화다양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라 할 수 있음. 2017년 9월 발표된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표명되기도 했음. 보고서에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 모니터링을 권고함**

‹그림13›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의 수 변화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의 수 변화(1992-2015)



서울과 수도권의 외국인 연령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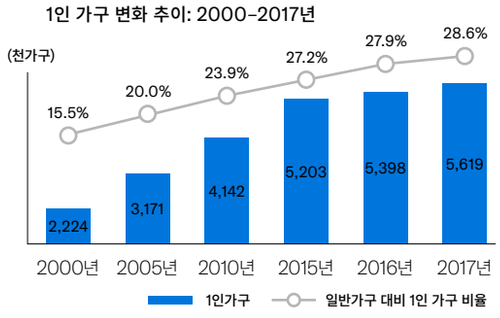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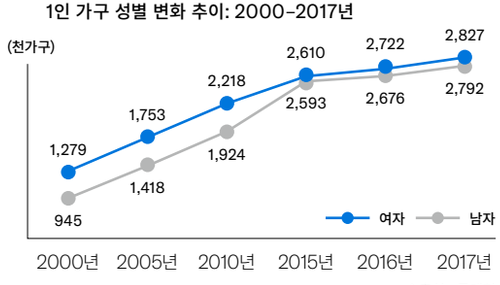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

* 출처 : 서울연구원

■ ‘문화다양성’은 지속가능성, 문화민주주의 등과 함께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요소들을 연결하고 받쳐주는 원리이자 가치체계라 할 수 있음. ‘문화다양성’이 지역문화생태계의 기본 원리로 작동할 수 있어야 공존과 공생을 통한 지역문화의 지속이 담보될 수 있음

‹그림14› 1인 가구 및 성별 변화 추이





* 출처 : 통계청

1-3) 1인 가구의 확산

■ 통계청의 자료[12]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152.6% 증가함. 같은 기간 일반가구는 2000년 1,431만 가구에서 2017년 1,967만 가구로 37.5% 증가. 1인 가구의 변화를 성별로 보면, 남성 가구는 2000년 95만 가구에서 2017년 279만 가구로 195.4% 증가했고, 여성 가구는 2000년 128만 가구에서 2017년 283만 가구로 120.9% 증가함. 서울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은 31.0%(2017년 기준)로 총 118만 가구임

■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로는 청년실업 및 소득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지체나 포기, 만혼과 비혼으로 인한 독신 가구와 이혼과 사별로 인한 단독 가구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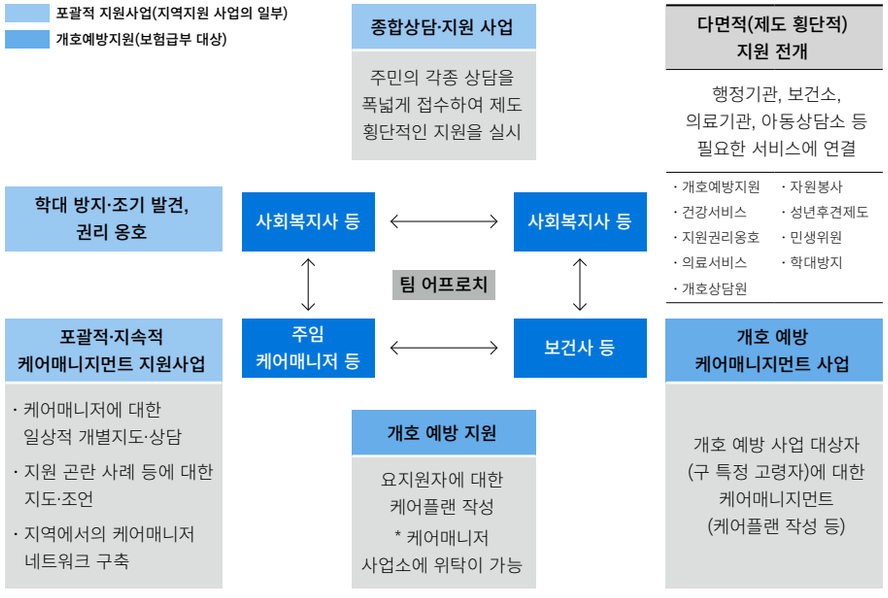
■ 1인 가구 증가가 특정한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 연령대에 골고루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됨.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

■ 1인 가구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임.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거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유지에 집중하는 정책을 시행 중, 1인 가구형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과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돌봄을 통해 외로움을 방지하는 사업을 수행[13]. 우리의 경우에도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주거, 의료, 복지 등 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강화,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의 사회적 유대감 형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 있음

12) 통계청 보도자료,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2018.9.27.)

13)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김형균, 부산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그림15› 일본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스템



* 출처: 지역노인 돌봄을 위한 포괄케어체계 구축방안, 황재영(2015)

2)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 기술의 변화가 인간 개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자본주의, 크리에이터 직업군의 등장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고 있음. 이른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노동 시간의 비약적인 단축은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 없는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체계의 재구성 그리고 지역에서의 문화적 삶의 양식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대의 도래

■ 하지만 기술의 변화(발달)가 곧 노동시간의 비약적인 단축과 여가시간의 증대, 문화 활동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 플랫폼 자본주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아닌 플랫폼에 종속된 일용직 노동자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불안정 노동의 증대). 또한 주거, 교통 등의 영역에서 확대되는 현실의 ‘공유 기반 경제’는, 실제로는 공유 가치의 확산과 이익의 분배가 아닌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라는 비판 확산

■ 기술 혁명의 시대를 겪고 있는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노동 중심 사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노동’에서 ‘문화’로의 중심 이동을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부터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체계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낼 필요 있음

2-1) 노동 환경의 변화

-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3위로 '크리에이터'가 새롭게 등장. 이 밖에도 10년 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운동선수, 컴퓨터공학자, 요리사, 프로게이머, 뷰티디자이너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직업군임을 알 수 있음

‹표14› 초중등 희망직업 상위 20위 현황(2009년, 2019년 비교)[14]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9년	2019년	2009년	2019년	2009년	2019년
1	교사	운동선수	교사	교사	교사	교사
2	의사	교사	의사	의사	간호사	경찰관
3	요리사	크리에이터	경찰	경찰관	회사원	간호사
4	과학자	의사	공무원	운동선수	의사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5	가수	조리사(요리사)	요리사	뷰티디자이너	공무원	군인
6	경찰	프로게이머	패션디자이너	조리사(요리사)	사업가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7	야구선수	경찰관	가수	군인	경찰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8	패션디자이너	법률전문가	유치원 교사	공무원	건축가	항공기승무원
9	축구선수	가수	변호사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CEO	공무원
10	연예인	뷰티디자이너	CEO	간호사	요리사	경영자/CEO
11	치과의사	만화가(웹툰작가)	사업가	경영자/CEO	PD	의사
12	변호사	제과·제빵사	스튜어디스	항공기승무원	유치원 교사	뷰티디자이너
13	유치원 교사	과학자	연예인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기계·자동차 공학자 및 연구원
14	피아니스트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개발자	간호사	법률전문가	스튜어디스	의료·보건 관련직
15	프로게이머	수의사	건축가	가수	수의사	화학·화학공학자 및 연구원
16	교수	작가	외교관	일러스트레이터	엔지니어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17	사육사	배우/모델	직업군인	심리상담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18	판사	연주가/작곡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작가	한의사	조리사(요리사)
19	공무원	군인	회사원	연주가/작곡가	음악가	연주가/작곡가
20	아나운서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운동선수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직업군인	마케팅·홍보 관련 전문가

* 출처 :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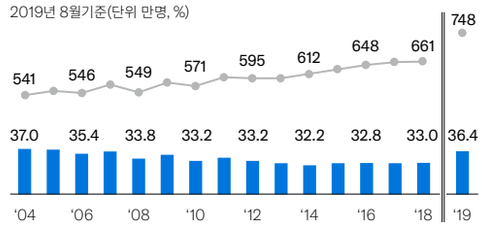
14) 2019년 12월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재구성

- 희망 직업군의 변화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상품화에 따른 노동 대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 놀이 문화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또한 '유튜브(youtube)'로 시작된 크리에이터 경제 구조화는 새로운, 다양한 직업군으로서 크리에이터의 등장과 확산을 유도하고 있음. 기술의 변화는 다양한 노동 형태와 직업군을 형성.

- 기술의 발전과 노동 환경의 변화는 기존 일자리의 축소와 형태의 변화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함. 자동화와 기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 '플랫폼 자본주의'의 출현은 공유경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강화하고 있음. 사실상의 하청계약과 임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플랫폼 자본의 부의 축적만 강화[15]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만들어낸 공유경제가 실제로는 소비자의 편의만을 강조한 채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고립, 파편화를 초래하는 상황

15) "플랫폼 형식으로 경제 전반이 운영되는 '플랫폼 자본주의' 내에서 노동자는 '크라우드 워커'(crowd worker)가 된다. 명목상으로는 현대 사회의 자유로운 산업예비군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및 실업자에 해당한다. 이들 '크라우드 워커'의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라면 배달 노동자나 대리 운전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음식 배달이든 차량 운전이든 수요가 있는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 워커는 플랫폼 앱을 장착한 모바일 기기들(스마트폰)을 소지한 채 곳곳에 흩어진 군중처럼 움직인다.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혹은 대행업체를 거쳐 주문(콜)이 들어오면 이들은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중심으로 주문을 받고 그 주문을 '수행'한다. 고객은 플랫폼 앱을 열고 주문의 내용과 장소를 입력하고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플랫폼 업체는 앱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의 평가와 크라우드 워커들에 대한 별점만 관리하면 된다."
- '플랫폼 자본주의, 삶과 노동의 새로운 판을 짜는 방식'
(김상민, 월간 ‹워커스› 33호)

‹그림16›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 출처: 일자리상황판

- 한편 2019년 현재 실업률은 3.8%, 청년실업률은 8.9%인데[16], 이는 취업포기인구 등을 제외한 통계라 실제로는 그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36.4%에 달하는 748만 명[17].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와 비율은 늘어나고 있음

- 노동문화의 변화도 시작되었음. 재택근무,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자율노동 기반의 공유 문화 공간이 기존의 노동집약적이고 생산력 중심의 노동 공간을 대체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직된 노동 환경과 문화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음

1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17) 일자리상황판 dashboard.jobs.go.kr/ 자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2)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18)]

- 기술의 발전, 노동 환경의 변화와 함께 '놀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놀이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는 놀이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함. 크리에이터의 등장과 확산의 배경에도 노동 환경의 변화와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가 존재

- 노동의 기계화, 자동화가 극대화 된 사회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가 바로 놀이이며, 놀이 문화의 확산은 노동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삶의 가치, 의미, 여유, 즐거움, 성찰 등이 중요한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함. 또한 놀이는 앞으로 단순히 노동의 대비적, 예비적 개념을 넘어 사회 활동, 삶의 의미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자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

-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확산은 놀이 기반의 산업과 경제의 형성, 그리고 놀이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확산을 형성하고 있음. '유튜브(youtube)'의 급격한 성장에서 확인했듯이 놀이 문화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내용과 형식마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1인 미디어'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의 대부분이 놀이 기반의 문화산업과 깊게 연결되고 진행되고 있음

- 런던 시에서 운영 중인 '런던플레이(London Play, londonplay.org.uk)'는 놀이 문화를 정책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으로 런던의 놀이 공간을 연구하고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를 창조하는 작업을 진행. 런던플레이 사이트에는 80여 개의 다양한 놀이터와 '런던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19)] '런던플레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놀이 문화 및 놀이 기반 사회에 대한 정책의 확장이 이루어질 전망

18) 놀이문화와 관련한 사회변화에 대한 내용은, ‹문화분야 2045 중장기 비전과 핵심의제 연구›(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9.6) pp.19-20를 참조하여 서술하였음.

19)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허하라! 런던play!!!' (2019.3.6. 한국교육신문) 기사 참조.

2-3) 새로운 가치체계와 지역

- 기술의 발전과 노동 대체, 노동 시간의 단축 등이 저절로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 가전제품의 발명이 여성 가사노동 시간과 강도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연구[20)]는 이를 뒷받침. 지난 100여 년 간의 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이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는 게 통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등이 발명되면서, 오히려 다른 가족구성원들이 가사노동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음. 결국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

‹표15› 혼인상태별 가사노동시간

구분	2004년	2009년	2014년
미혼남자	21	26	28
미혼여자	49	54	63
유배우 남자	38	43	50
유배우 여자	275	266	259
사별, 이혼 남자	73	82	89
사별, 이혼 여자	172	168	163

(단위: 분/일) *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문제는 '기술'이 아닌 '이데올로기와 가치'에 있는 것임.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이 아무리 더 발전한들 가사노동을 여성이 전담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

20) ‹사회 속의 과학기술› (윤정로, 2016, 세창출판사)

- '플랫폼 자본주의'의 상황을 봐도 그러함. 노동의 가치, 삶의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을 때 인간은 플랫폼에 접속된 '부품'으로 전락하게 됨. 라이더(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대행 등의 서비스 제공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웹툰과 같은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의 영역까지도 플랫폼 자본에 종속·장악되어 창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Uber)', '리프트(Lift)' 등의 플랫폼 자본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AB-5›(Assembly Bill no.5) 법안이 통과, 발효(2020년 1월 1일) 되었음. 이 법은 '독립계약자'와 '정규직노동자'의 분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ABC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만약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내용

‹표16› AB-5 법안이 명문화한 ABC 테스트 내용

A	회사의 지휘와 통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Is free from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company in performing work, both practically and in the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B	회사의 주요 사업이 아닌 부분에서 일을 해야 한다. Performs work that is outside the usual course of the company's business; and
C	회사의 업무와 독립적인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Is customarily engaged in an independently established trade, occupation, or business of the same nature as the work performed for the company.

-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기술의 발전을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기술의 발전은 임시직,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양산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기술의 발전이 삶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삶의 공간인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가치체계에 기반한 실천이 요구됨

- 새로운 가치체계는 이전에 없던 것을 의미하지 않음.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 혹은 부작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 사회적 공정성과 자원배분의 우선성

—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

— 자율성의 문제

— 인간적 삶의 가치의 훼손

- 한편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결의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함.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며 'Leave no one behi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삶의 공간인 지역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고민할 때 참조할 수 있음

‹그림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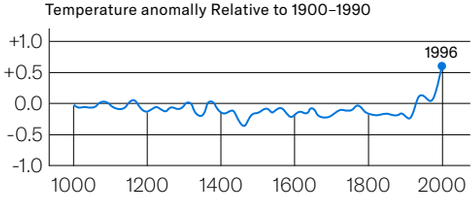
3) 인류세와 기후위기

- '인류세(Anthropocene)'란 인류가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의 새로운 지질 시대를 말함. 정확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산업혁명이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첫 번째 핵실험이 일어난 1945년을 시작점으로 보기도 함. '인류세'를 대표하는 물질로 언급되는 것은 방사능 물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콘크리트 등임.[21] '인류세'의 개념은 인간에 의한 지구 파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지금까지 각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동력은 '자연'이었으나, 인류세의 동력은 바로 '인간'이며 인간에 의해 지구와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조의 측면

- 지구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비윤리적 육식산업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고 이를 드러내는 것이 '인류세'의 시대. 지구 환경의 위기의 근원이 (인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있다는 측면에서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음. '인류세'는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와 지구 환경의 근본적인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로 성장주의·발전주의 기반의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전환과 생활양식의 혁신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음.

- '기후위기'의 문제도 심각함. 2015년, 200여개 국가가 동참한 ‹파리기후협약›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기온을 2도 아래, 1.5도를 넘지 않도록 모든 참여국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음. 이 배경에는 '1.5도'가 갖는 의미가 존재. 즉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2040년에는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리라 전망되는데 이 때 지구는 해수면 상승, 폭염, 기상 이변, 전염병 창궐, 물과 식량 공급의 불안정 등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구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

‹그림18› 지구 온도 변화 그래프



* 출처: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22]

- 기후위기의 확산, 미세먼지, 폭염 등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촉발함. 살기 좋은 도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유기농', '공동육아', '협동조합', '친환경 기반의 도시 환경', '생태적, 문화적 삶' 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인류세와 기후위기로 촉발된 생태적, 문화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욕구의 변화를 지역문화생태계 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

20) ‹사회 속의 과학기술› (윤정로, 2016, 세창출판사)

22) 마이클만이 제작한 '하키스틱그래프'(그래프의 모양이 하키스틱 모양이라 붙여진 이름). 그래프를 보면 1900년대부터 갑작스럽게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산업혁명 시기와 일치

4)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등장

- 인구 구성의 변화(고령화, 외국인주민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기술혁신과 일자리 감소 등 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등장. 세대 간 갈등, 연령차별, 여성혐오 등의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사회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젠더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확대 등은 지역문화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음

- 특히 '문화다양성' 관점의 경우 소수문화 주체의 다양성 혹은 표현의 다양성 수준을 넘어 지역에서의 공생의 방식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지역문화생태계의 가치체계이자 운영원리로 '문화다양성'이 중요해짐. 이에 자치단체 혹은 문화재단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정책의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이벤트 등이 개최되고 있음. 문화다양성이 삶의 다양성으로 지역에서의 공생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중

4-1) 위협받는 여성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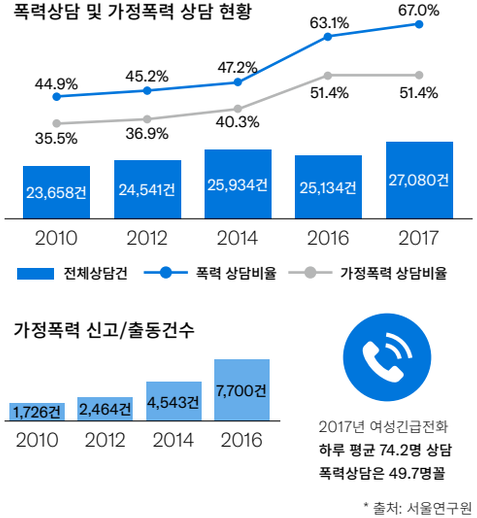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남녀별 인구의 변화를 보면 2040년에 이르러서는 여성 인구가 50%를 넘을 것을 예상. 여성 인구의 증가, 여성 고용의 증가, 여성의 사회적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고용형태의 차별, 경력단절 문제, 인사에서의 차별적 행위 등은 지속되고 있음.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더 위험한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표17› 남녀별 인구

구분	1970년	1990년	2010년	2020년	2040년
총인구	32,241	42,869	49,554	51,781	50,855
남자	16,309	21,568	24,881	25,946	25,293
여자	15,932	21,301	24,673	25,835	25,562
성비	102.4	101.3	100.8	100.4	98.9

(단위: 천명) * 출처: e-나라지표

‹그림19› 서울에서 여성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나?



* 출처: 서울연구원

- 2016년 '#OO계_성폭력 해시태그 고발운동'으로 시작된 문화예술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단, 미술계, 출판, 사진, 디자인, 전시기획, 웹툰, 영화 등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좁은 장르 생태계에서 구조적이고 만연했던 (남성, 권력의)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음

- 해시태그 운동과 이어진 '미투운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해결과 성평등 의식의 확산은 정책과 제도, 지역공동체의 운영원리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음. (1) 문화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및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2) 의사결정권자, 심사위원 등에서 성별 불평등 해소, (3)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비평 및 성평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 (4) 법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5) 예비예술인과 직업적 예술인 정책의 통합적 접근, (6) 지역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7) 성평등을 통한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 등이 필요[23]

- 한편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의 문제임.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고립되어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교육, 토론 등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등 젠더의식이 지역문화생태계의 상식이자 운영원리로 작동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함

23) '미투가 제기한 문화예술계의 과제'(이성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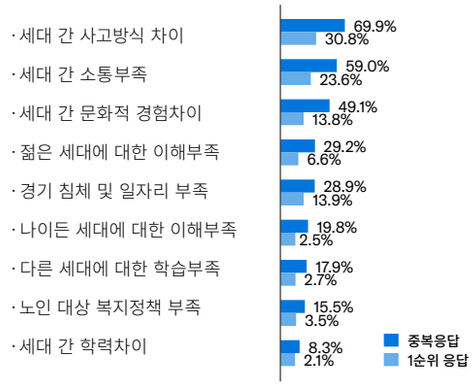
4-2) 세대 갈등의 심화

- 급격한 산업발전과 압축성장의 한국사는 각 세대의 시대경험의 격차를 형성. 여기에 과학기술의 발전,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의 거시적 조건의 변화는 세대 간의 이해 부족과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여기에 연령차별, 세대 간 교류의 부족, 성별·교육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은 구조화되고 있음

- 세대 갈등은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1) 가족 차원에서의 부양 문제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2) 세대 간 정치적 이념 차이의 문제, (3) 기회 혹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 즉 정년연장, 노인복지, 일자리 경쟁 등의 양상으로 드러나며, (4) 사회문화적 감성 혹은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혐오표현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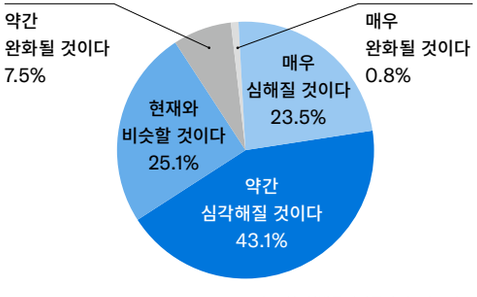
- 온라인을 중심으로 '꼰대', '틀딱충', '노슬아치', '초딩', '중딩', '급식충' 등의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차원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 세대 간의 갈등 문제의 본질이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른바 '제로섬' 관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림20› 세대갈등의 원인



* 출처: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그림21› 세대갈등의 전망



* 출처: 입법국정전문지 the leader

4-3) 혐오 표현의 증대

-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24]. 일반적으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연관성이 있고, 상호의존적, 상호증진적이라고 말함. 국제인권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는 폭과 범위는 넓게 적용되고 있음

- 반면에, '혐오표현'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음.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규정하는데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 몇몇의 해외 기관들과 기업 등에서는 '혐오표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18› 혐오표현의 정의

유럽 인권 재판소	"인종적 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자민족 중심주의, 소수자·이주민·이주민 출신 사람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불관용을 바탕으로 혐오를 확산, 선동, 고취,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유튜브	"인종이나 출신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복무 여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 일정한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고취하는 콘텐츠"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인 지위를 훼손하려 하는, 타인을 향한 표현의 형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송고충 처리위원회	"맥락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나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근거한 폭력을 허용, 고취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전쟁 선전; 임박한 폭력 선동; 인종, 민족, 성별, 종교에 근거한 해악을 끼치는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의 옹호"

* 출처: 아티클19 (www.article19.org)

24)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영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에서는 혐오표현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하위범주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을 제안. '아티클19'가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9› 혐오표현의 분류

제한되어야 하는 혐오표현	국제형사법과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은 국가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 특히 중한 형태의 '혐오표현'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선동 ·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차별적인 혐오에 대한 모든 옹호 ·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선동 또는 행위
제한할 수 있는 혐오표현	국가는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혐오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 폭력, 괴롭힘, 공격 등의 위협
법 테두리 내의 혐오표현	자유권규약 제19조2항에 따라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지만, 불관용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가의 중요한 대응을 요구하는 표현 · 격한 분노나 불쾌감을 유발하지만 위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혐오표현'의 기저에 자리하는 편견에 대해 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대항 발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출처: 아티클19

- '아티클19'가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제안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1) 국가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2) 국가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함. 그리고 (3)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을 포함,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편견과 불관용의 근원을 제거하며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아티클19'의 구체적인 행동제안은 국가 단위에서의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역문화생태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지역정부 차원의 정책과 조치,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 시민사회의 노력 등. 공공과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표20› 혐오표현 대응하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이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 조성은 국제인권법상의 국가가 지닌 의무일 뿐 아니라 '혐오표현'을 공론화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a.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 폐지 · 모든 사람들의 정보접근권 보장 · 디지털 기술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등 b. 평등과 반차별권의 완전한 보장 · 반차별법 제정 및 강화 · 형법에서 혐오범죄 인정 등
적극적인 국가정책	a. 불관용의 인지 및 대응 b. 평등 교육 c. 다원주의와 평등을 촉진하는 언론정책 d. 공공 교육 및 정보 공유 캠페인 e. 전환을 도모하는 정의
다른 행위자들의 자발적 노력	a. 시민사회의 노력 b. 영향력 있는 행위자 및 기관들의 연대 c.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의 역할 d.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e. 집단 간 유의미한 대화

* 출처: 아티클19

5) 민주주의의 확장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 '촛불'로 대표되는 직접민주주의 힘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은 한 단계 높아졌음. '청원형'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 정치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탄핵을 지나며 확장된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일이 많아졌음. 이는 다른 한편으로 기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함

- 지역분권과 거버넌스의 확산은 지역과 공동체 내에서의 자치의 확대로 연결되고 참여민주주의의 강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 혹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로 하던 시민사회 영역이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확장되면서 일상과 마을에서의 문화 활동의 확대와 이를 통한 관계망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함

5-1) 협력적 거버넌스의 등장

-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증대는 이전과는 다른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 과거 '관리론'에 입각한 거버넌스는 공통의 문제해결(정치)을 마치 협상과 같은 방법론적인 문제로 환원. "거버넌스 테이블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관료시스템과는 달랐지만 협상가들은 대부분 상당히 전문가적 엘리트로 충원됐고, 여기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노동자와 기층 민중들은 상층 부르주아 관리 계급의 일원 중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는 '호민관'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야만 했음. 거버넌스는 중간지원조직과 중간관리조직을 강화. 거버넌스는 기업경영술을 시민사회에 적용. 기업의 통치술은 국가와 사회의 통치술이 됨"(채효정, 2018)

‹표21› 신공공관리론과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철학기조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핵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시민관	고객	주인
원리	경쟁	협력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자
공무원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촉진자

- 하지만 최근 논의되는 거버넌스 모델은 '신공공관리론'으로 설명되는 과거의 모델과는 구분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의 기조 아래 과정의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모델, 협치사업의 모델로 언급되고 있음

5-2) 협력적 거버넌스와 문화재단의 역할

-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즉, 지역문화와 관련한 정책, 사업, 예산, 공간 등을 점유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하는가,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델에 기반한 '거버넌스 중심의 실행체계'에서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음

-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거버넌스(협치)의 고리로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김지헌)는 말처럼, 문화재단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행정과 주민, 지역문화 주체들을 잇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을 단순히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하거나, 지원사업의 실행과 관리 창구 혹은 지역주민과 예술가를 위한 민원 창구로 만드는 것, 그리고 문화재단 스스로가 지역문화의 기획과 실행조직임을 자처하는 경우에 문화재단 조직의 관료화와 함께 오히려 지역문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표22> 협력적 거버넌스 실행체계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역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지역문화 자원의 이해와 공유
창조적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	· 창조적 문화매개자가 지역사회의 역량을 배가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과 정보 제공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 창조적 지역문화 주체 발굴 ·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주체의 성장 촉진
지역문화정책 개발	· 지역 현장의 이해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개발 · 사업 중심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사고로 전환 · 공론장의 조성과 아카이빙

3 소결

- 인구 구성의 변화, 기술혁명, 기후위기, 성평등, 혐오표현 등 한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는 거시와 미시, 장르·영역, 가치체계, 세대문제 등과 복잡다단하게 연결되어 쉽게 파악하기 힘들 정도임.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위기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음. 특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 상황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미흡한 가운데 세대별·집단별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지역문화생태계 연구에서 이런 사회문화 환경 분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한국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환경 변화와 대처의 상당 부분이 지역사회 혹은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시민의 욕구와 역량이 대의정치에 동원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망을 통해 실현되고 확산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소들이 지역사회의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토론되는 것이 절실한 시점

1) 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 지역문화 영역에서의 변화가 촉발되고 있음. 지역문화생태계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서 촉발된 지역의 변화가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 - 주체(민간, 공공), 법·제도, 사업·콘텐츠, 시설·공간(민간, 공공), 협력체계 – 와 활동영역 -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도 예상할 필요 있음

- 또한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함. 앞서 언급한 인구 구성의 변화, 기술혁신, 인류세와 기후위기, 민주주의의 확대 등의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가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또한 지역의 협력체계 내에서의 교육과 토론을 통한 일종의 규범 형태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지역문화생태계는 주민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

2) 생태계 관점의 중요성

- 사회문화 환경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은 각각의 환경 변화가 공동체 및 개인의 생존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지역의 현실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관점이 요구됨. 앞서 언급한 대로, 생태계 관점으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관계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 생태계의 관점으로 사회문화 환경 변화를 이해한다면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뿐 아니라 그 근거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운영원리와 가치체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노동과 인간의 가치, 생태적 삶에 대한 고려, 인권과 성평등, 젠더의식,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거버넌스까지. 공존과 공생을 위한 사회적 가치가 지역문화생태계의 운영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3) 논의의 확장 : 거버넌스와 커먼즈[25)]

-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지역문화와 관련한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적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 민과 관이 서로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문화 관련 주요한 정책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관계 설정이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 민간주체들을 포함한 지역 내 협력체계, 거버넌스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등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이번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소유권과 커먼즈'의 문제 또한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직접적으로는 최근의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과 함께 언급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오늘날 지역문화생태계의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고 지속성을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신촌 일대가 겪었고, 홍대 앞이 겪고 있는 변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

25) '커먼즈'의 어원은 '함께(com-)' '의무를 진다(munis)'에서 온 것으로, 풀어보면 공동의 의무를 지는 구성원들이 유지하는 유·무형의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음. 우리말로 하면 '공유자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를 둘러싼 물질(물, 공기, 공원, 숲 등)과 비물질(데이터, 소프트웨어, 지식 등) 자원을 아우르는 개념. 마을공동체 등 선물경제에서 진화한 동시대 커먼즈 운동은, 이제 시민들 스스로 삶의 터전 속에서 특정 유·무형의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호혜와 공생의 가치를 도모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성장하고 있음(이광석, 2019).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생태계의 조성, 즉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과 배경으로 '소유권과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 있음. 국가적 소유 또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사적 소유라는 두 개의 방향 이외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소유'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 지역문화생태계의 중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소유'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표23› 프랑스 파리시의 소상공인쿼터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프랑스 파리시의 ‹소상공인쿼터제›
프랑스 파리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소상공인쿼터제 운영 · 2006년도에 최초 시행 · 과도한 지역규제라는 반발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09년 소송에서 승소
소상공인쿼터제는 4가지 유형으로 대상지역 선정하여 시행 · 일반적인 상업 및 수공업 보호거리 : 건물1층에 위치한 상업 및 수공업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 불가 · 강화된 상업 및 수공업 보호거리 : 각 건물1층은 상업 및 수공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특수한 수공업 보호거리 : 수공업 공간들은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전환 불가 · 백화점 지역 보존지구 :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높은 백화점 건물과 (인근)부지의 보존 및 상업 활성화 정책

‹표24›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방안 마련, 시행
문화지역 내 앵커시설 조성 · 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지역생태계를 보호하는 시설로 활용
문화업소쿼터제 등 각 업소 보호방안 마련, 시행 · 각 지역 내 문화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업소를 문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시민자산화 하는 방안 마련, 시행
문화특화지역 모니터링 및 발전정책 수립 · 3년 단위 조사인 ‹서울문화생태조사›에 기초하여 문화지역을 모니터링

- 지역문화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유지·확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역문화생태계를 형성·유지·활성화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원, 공간, 제도 등을 지역문화 주체들 스스로 형성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공통적인 것 혹은 '커먼즈'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필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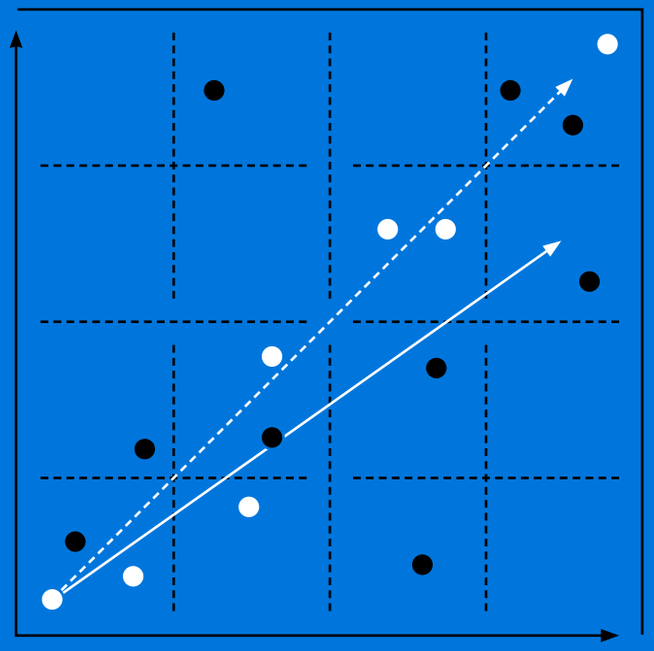
IV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의견과 쟁점

1 현장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조사 및 분석 결과

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결과

3 소결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의 주요 의견과 쟁점 :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중심으로

■ **구성 및 목표**

— 서울의 문화현장은 장르예술 중심의 활동을 넘어 지역별 문화활동으로의 급격한 증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자율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지역문화 거점의 문화활동 특징을 '지역문화생태계'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 주체들에게 주요 의견 수렴 및 쟁점 도출

- 서울 지역문화생태계의 현장 현황과 지역문화 구조 및 협력체계,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장 주체들과의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및 지역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환경 분석 등을 위해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각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주요 이슈를 토대로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시사점 도출

1 현장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조사 및 분석 결과

1) 현장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개요

1-1)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주제

■ **공통 주제(지역문화생태계 전반)**

— 지역, 지역문화,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정의

—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N개의 서울), 생활문화사업(거버넌스25)에 대한 지역 현장의 평가

— 최근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과 평가

—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

— 지역문화생태계 내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

■ **그룹별 질문(그룹별 특징)**

— 각 지역의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 요소

— 각 지역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징

1-2)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사항

■ **서울을 생활권 단위로 서남, 서북, 도심, 동북, 동남(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자치구들을 그룹화하여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2014.04.)
제5장 생활권계획 제2절 '생활권의 구분 및 설정'에 준함

—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이 분명하고 권역 내외로 생활환경의 차이가 발견되는 자치구를 선택하여 비교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의 지원체계가 활성화 되어있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치구를 선택

‹표25› FGI(Focus Group Interview) 참여자

구분	자치구	이름(소속)	일시	장소
그룹1 (동북)	성북구	정기황(문화도시연구소)	2019. 12. 2.(월) 13시	성북 미인도
	도봉구	안석희(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강북구	박미숙(강북구 예술인)		
그룹2 (서남)	관악구	주승리(책방달리봄)	2019. 12. 2.(월) 14시	문래캠퍼스
	영등포구	이소주((주)보노보씨)		
	금천구	김유선(산아래문화학교)		
그룹3 (동남/도심)	서초구	신은희(밸류가든)	2019. 12. 5.(목) 16시	세운상가 세운메이커스 교육장
	송파구	이윤복(즐거운가)		
	종로구	송경희(행복한 상상(주))		
	중구	조은만(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그룹4 (서북)	은평구	이동근(자바르떼)	2019. 12. 9.(월) 14시	무중력지대 홍제
	서대문구	송상훈(임팩트스테이션)		
	마포구	정문식(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2) 현장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주요내용

2-1)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내용

‹표26› FGI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공통	지역, 지역문화, 지역문화생태계 정의	· 개념 중심 접근의 불가능성과 한계 - 기존 정의에 대한 기계적 접근 보다, 기존 개념과 관점을 해체하는 방식의 접근 필요 - 지역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사업에 따라 구분 -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며, 행정구역으로 지역문화를 정의하기 어려움 · 행정구역 중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생태계' · 사회가 획일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써 지역문화 · 내 삶이 어우러진 문화, 예술 활동 · 동시대의 활동, 경험, 사람 등에 의한 동질성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 행정(서울시)에서 지역문화를 접근할 때는, 지역분권이나 지역균등발전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완결하려는 느낌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와 비참여 주체와의 격차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황에 맞게 설계 가능한 지점이 긍정적(N개의 서울) - 네트워크에서의 문화적 교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방향	· 지역주체들에게 자원이 어떻게 전달되고 배분되는지 서울문화재단에서 검토 및 관리 · 지역 문화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습의 시간 필요 ·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아니라 해당 주체의 분석 필요 - 지원 대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간 환경이나 요구 등의 차이 확연, 그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		
	지역문화생태계 내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	· 민간 주체를 발굴하고 어떻게 권한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사업에 의한 민간 네트워크가 아닌, 자발적인 형태의 민간 네트워크가 필요 · 다양성과 공공성 중요		
그룹별	지역문화생태계 구성 요소	· 광역도시에서 지역민과 외부인 구분 무의미 (관광객도 지역민으로) · 문화적 공감대를 통한 지역에 대한 접근은 local보다 region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 · 정책이나 사업이 존재하기 전부터 자생했던 마을의 역사 · 지역에 기반한 혹은 지역과 무관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예술 활동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이슈 및 특징	동북	성북구	·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도봉구	· 음악도시 중심 지원사업이 중요 이슈
			강북구	· 문화·행정기관들 간의 밀착과 갈등 문제
		서남	관악구	·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써 지역 정체성 모호
			영등포구	· 기술 생산체계의 특성인 '협력성'과 예술의 특성인 '개별성'이 공존
			금천구	· 정치적, 사업적 등의 이해관계 없이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축제 개최(11년차)
		동남/도심	서초구	· 행정 서비스의 발달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견제
			송파구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 통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개념
			종로구	· 국립, 시립 문화 시설/공간 밀집
			중구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조성에 주력
		서북	서대문구	· 기관의 권한이 강하며 민간 중심의 거점공간들과 연결지점에 대한 고민
			마포구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영역의 주체들이 교류
			은평구	·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목적과 방향성 재설계

2-2) 인터뷰 및 라운드테이블 결과 분석 및 시사점

①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지역문화

■ 행정구역의 개념을 생활권 개념으로 해체 및 재구성

— 개인의 관계망과 소속, 활동영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권역을 옮겨가며 활동하고 있기에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구심력을 생활권 개념으로 해체 및 재구성 여부가 관건

— 이를테면 구획된 행정동(행정구)안에서만 문화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구역(생활권)을 넘나들며 행해지고 있음에 주목

■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개념(지역문화) 정의 방식의 한계

—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구조로서의 도시와 지역문화라는 관점을 견지

▫ 세대별, 지역별, 성향별 등에 따라 지역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 상이

— 거시적, 담론적인 접근으로 인해 다양한 층위들의 맥락이 평면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유형을 분석하여 다층적 관계를 해석, 정리

▫ 개념을 정의하는 기존의 방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틀 안에 설명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서술도 함께 이뤄져야 함

② 행정이 지역문화를 접근하는 방식의 특징(한계)과 방향

■ 법과 정책에서 지역문화를 다루는 방식 : 지역균등발전, 지방분권

— 지자체별 서로 다른 문화환경과 여건임에 대한 이해와 고려 없이 문화예술 중심의 시설·공간을 설치(종로구와 중구의 경우에는 국가 단위 중심의 시설이 다수 분포.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지자체 재정조건이 타 구역과 다름. 이처럼 각 지역의 특징에 대한 차이를 지역균등발전 혹은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으로 단순 접근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

■ 지역문화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써의 지역문화진흥사업

—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사업인 "N개의 서울"과 "생활문화"사업의 목적(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 주체의 형성과 등장에 초점)

▫ 포괄 예산제를 활용한 "N개의 서울"의 경우 자원의 활용 방향과 지원체계에 대해 주체들이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경험

▫ 동아리지원과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의 경우 단일한 방식을 통해 형성되는 생활문화와 자연 발생하는 생활문화 간의 차이 발견

— 지역문화 관련 사업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 기존 주민들과 오히려 괴리감이 생겨 양분화 되기도 함

— 이러한 과정들이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논의의 장을 형성하여 이슈와 쟁점을 공론화 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기관이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완결하려 하기보다 민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함

■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 생태계라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자원 투입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지역 주체들에게 전달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

— 현재의 지원방식은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에 불과.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같이 단순 공급하는 형태의 관 주도 지원 방식은 지양

③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 미시적 생태계(소생태계)가 지역의 서사 및 현황에 기반하여 자립하고, 각각의 지역성과 공동체성 등을 나타냄

— 넓은 의미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작은 생태계부터 안정적이어야 함

▫ 지역의 공간, 모임, 조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화생태계 형성의 주요 사안

▫ 특히,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의 소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활성화되기까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지역의 서사, 현황, 주체들의 생활, 삶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

▫ 금천의 경우 디지털단지와 공단에서의 특징적인 노동의 형태가 생활과 연결되어 '생활·노동·문화'가 일체됨

▫ 영등포의 경우 정책이나 사업이 있기 전부터 자생적 움직임에 의한 마을의 역사를 간직

▫ 송파의 경우 경제적 동질성에 의해 집단화된 그룹의 구성원들이 그룹 안에서 각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공동체성을 획득하고 나아가 지역성을 확인

▫ 서초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 분포, 상업화와 소비 중심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산업 인구가 많은 편)

— 이처럼 지역에서 문화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 (각 지역의 지역문화는 각기 다른 이슈와 쟁점, 현황 등을 담지하고 있음에 주목)

■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의 필요성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전혀 다른 형태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나아가 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자생적 생태계 속에서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협치,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생활문화 등)들의 축적 및 정책의 성격과 작동방식에 따라서도 지역문화 자원과 주체들이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위해 각기 다른 개별 지역문화생태계를 공동의 가치체계로 유형화하여 비교·분석

— 유형화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1)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와 (2)정책·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문화가 '서로 횡단을 통해 협력((1)+(2))'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협력체계 및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

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결과

1)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1-1)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개요

① FGI 및 심층 인터뷰 주제

■ **주제1 : 지역문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표27› 전문가FGI: 지역문화의 정의

항목	내용
지역문화의 개념 및 정의	법적정의, 중앙-지방에서의 정의, 지역문화의 주체 관점에서의 정의, 지역문화의 고유성, 지역문화 관련 사업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관계
지역문화와 커먼즈	지역문화가 '공통적인 것(commons)'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고 유지-확산된다는 가설
지역문화 생태계의 구성요소	'시간과 공간'-'가치체계와 주체'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 '지역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타 지역과 구별되거나 행정구역 기반의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일컫거나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문화(지방문화) 등으로 통용

— 생활문화의 개념과 정의에서는 '지역성(Locality)'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문화 동호회에서 지역 축제에 참가하는 등 지역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도 존재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가 '소유권'이라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공통적인 것 혹은 커먼즈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지역문화생태계의 형성·유지·활성화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

— 지역문화생태계는 지역이라는 '시간과 공간', 생태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주체', 그리고 관계성과 순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협력체계와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음

■ **주제2 : 지역문화 관련 서울문화재단 사업에 대하여(지역문화진흥사업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 지역문화 진흥사업(N개의 서울)

-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의 새로운 지원구조의 가능성 확인
- 문화협치에 기반한 지역문화 협력구조 구축
-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의 부재
- 서울문화재단 내 사업간 연계와 협력의 문제
-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역 간 불균형과 사업 성과의 차이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 생활문화 담론의 확산과 주류화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지역 생활문화 공간 발굴 등)
- 생활문화·생활예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
- '거버넌스25' 사업을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협치 환경 조성 지향
- 정량적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② FGI 및 심층 인터뷰 진행 사항

■ **서울 지역문화의 (정책)환경적 변화, 서울 지역문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 구성요소,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 및 심층 인터뷰 진행**

— 전문가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정책과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현장과 직접 교류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 관계자
- 서울 지역문화 정책의 환경적 변화와 흐름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
-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의 환경적 변화와 흐름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연구자

구분	이름(소속)	일시	장소
지역문화 현장에 대한 이해도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2019. 11. 4.(월) 19시	문화연대
서울 (지역문화의) 정책적 환경	라도삼 (서울연구원)		
국가 단위 지역문화 환경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FGI 및 심층 인터뷰는 내부 포럼 형태로 진행

- 연구진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가설과 질문이 담긴 2개의 주제를 발표
- 전문가들은 사전에 전달한 연구 주제에 대해 각자 작성한 발표문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에 대해 서로 다른 층위에서의 경험과 이해도에 대해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26]

26) 해당 보고서 '4.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내용 중에는 전문가들의 발언과 발표문 일부를 인용

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주요내용

2-1)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내용

‹표28› 전문가FGI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지역문화 논의 배경	· 서울시 내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증가로 문화행정체계의 전반적인 변화 예상 -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방법과 광역문화재단의 고유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정책 분야의 지역 간 격차와 차별의 문제 발생 · 기호화 된 지역의 등장과 젠트리피케이션 -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촌과 부암동, 문래동 등 '문화지역' 등장 · 지역문화가 생활문화와 혼재되거나 일치되는 상황 발생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	· 지역문화란, 어떤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구획된 물리적 공간 범위 내에서 형성되는 혹은 형성된 문화 - 정서적, 산업적, 정치적 등 명확한 일체감이나 연계성으로 연결된 공간 - 다양한 규모와 범위,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행정적 구획으로서의 '행정구역'과 혼동(지역과 구역, 지방과 지역)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 · 지역이란, '동질적인 특징'을 가진 지구를 가리키는 말(온라인 사전) · 중앙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지역(지방)'과 행정구역으로서 '지역'이 사용 - 지방은 중앙(서울)과 대비되는 표현이므로 서울은 지역이 아니라는 개념이 발생 (지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음)
지역문화의 구성요소	· 지역문화는 모든 지역에 내재되어 있지만, 지역문화는 차이를 통해 드러남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역사성'과 '생활성' - 지역성이 형성되고 지역성이 읽히기(기호화) 위해서는 오랜 역사성이 필요 - 생활공간으로서 지역성은 '나'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나'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성을 표현하기에, '나'에 기반한 역사와 생활성이 중첩 · 여러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차이가 충돌하는 곳 -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며,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충돌 - 고유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문화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고민 · '다양성'과 '민주성'은 지역문화의 중요한 원리 -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유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문화형성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기반)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	· 서울시는 지역문화 정책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제출된 적이 없음 - ‹비전2030서울문화플랜› 내에서 개념이 제기 됐으나, 각 지역의 역사성이나 일상성으로 접근하지 못함 · 각 지역의 부상과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등으로 지역문화가 부상함 - 다양한 지역에서 각 지역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상 · 현재 서울시의 정책은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춰 형성. 그런데 그 정책이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2-2) 전문가 FGI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① 지역문화 정의에 대해

■ 광역의 정체성이 광역 내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정체성과 '성북구민, 마포구민'의 정체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과거부터 이어오는 현재(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는 현재)'그리고 '새롭게 유입되는 문화들이 충돌하는 현재'와 같이 여러 층위의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수립되기 마련

—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억지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역문화를 논할 때)'지역'과 '지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이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와 같이 '지방'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영역에서만 '지방'이 아닌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방자치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방과 지역에 대한 해석이 다름. 또한 해당 법률들에서 지방과 지역에 대한 관계 설정 없이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1항에서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다고 명문화 되어있음

■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차이

— 생활문화는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이며, 지역문화는 지역이라는 동질성(산업적, 정치적, 정서적 동질성 등)을 전제로 형성되는 문화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동일시하는 효과 발생. 이 경우에는 지역문화를 단순화 시켜버리는 문제가 발생

— 생활문화를 포괄적 개념인 지역문화의 일부분으로 보는 경향도 있음

② 지역문화의 구성요소

■ 문화 생태계의 기반은 다양성과 민주성

— 다양성은 종 다양성과 개체 다양성으로 나눠지며 종 간, 개체 간 문화적 교환이나 흐름이 자연스럽고 순환적인 상태에서 가능

— 각 지역이 중요한 문화를 가지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문화(문화의 민주성과 다양성)를 형성

— 지역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하위 문화체계임

■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역사성과 생활성

— 오랫동안 내려온다는 의미의 역사성을, 단순히 과거의 것을 박물한다는 개념이 아닌 '지금 현재 잔존, 잔재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함

— 주체의 관점에서 '나(우리)'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나(우리)'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를 통해 생활성이 구성

— 이처럼 역사성과 생활성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지역성'이 형성되고 '지역성'이 드러났을 때 그 지역이 기호화되어 읽히게 되는 것임

■ **지역은 고유 가치(역사성과 생활성)를 통해 기호성을 가지게 되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대중문화, 소비문화, 글로벌 문화 등)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기존 문화가 배제되는 현상도 발생(지역문화를 지키려는 주체들과 트렌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발생)**

③ 지역문화 관련 정책과 사업

■ **지역문화와 관련한 행정체계의 부재**

— 서울이 가진 중앙성과 단일한 도시체계로 인해 지역문화가 차별받고 있는 상황

— 행정체계에서 지역문화를 다루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전 2030 서울문화플랜›에서 정책적 조명을 받은 적이 있음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전제로 '일상 공간의 문화화', '문화적 도시재생',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제기)

— 서울문화재단에 설치된 지역문화팀은 자치구 대상의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정도를 넘어, 지역문화진흥 및 육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함

— 지역문화가 부상하는 것은 각 지역의 부상과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때문. 을지로나 익선동 등 다양한 지역이 부상하며 지역별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 이에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지역문화에 대해 어떤 협력관계를 맺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방향**

— 재단 외에도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가 존재하며 이러한 지역문화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함

— 또는 지역성이 형성된 지역이 (행정구역 중심으로)드러나면, 정책 또한 지역문화 양상에 맞춰 형성되거나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에 맞춰 형성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성 및 생활문화 기반이 행정차원의 문화자치와 맞물리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정책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함

3 소결

1) "서울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기초연구"의 방향

1-1) 생태계적 관점의 중요성

■ **서울의 지역문화가 무엇인지 정의·정리하기에 앞서서 지역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생태계'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하나, 정책, 지역문화의 주체 및 공간 등 모든 것들이 사업을 통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협력과 연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주요한 주체들을 특정하여 유형화하고 사례조사를 진행한다면 1차적으로 현상을 진단할 수 있음

— 나아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기존에 정부 정책 활동이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화 민주화 관점에서 문화시설·공간 등을 건립하거나 인력 양성 사업을 실행하는 정도임**

— 그러나 지역문화는 지역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떻게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가 관건

— 따라서 기회에 대한 지원, 생활에 대한 지원, 여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자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자산은 지역문화를 단순히 관람하거나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가치가 영향으로 실재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함

1-2) 서울문화재단 관점에서의 '지역'과 '생태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함

■ **'지역'과 '생태계'의 주체를 파악**

— 행정구역의 관점에서는 자치구를 주체로 행정체계의 관점에서는 기초문화재단을 주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 중에서도 지역성과 생활성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성과 '나(우리)'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살펴야 함

■ **지역문화에 대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고민해야 함**

— 광역에서 바라보는 지역(문화)과 기초에서 바라보는 지역(문화)은 차이가 있음. 특히 광역에서는 정책과 사업이 구분되어 수립·집행되지만 기초(현장)에서는 구분 없이 혼합되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재단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견지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해당 관점이 없는 상태로 지역문화를 접근하면 오히려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2)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

2-1) 지역문화의 특징

- **지역문화는 각 개인이 '살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특징과 각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성'에 관한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거주하는 지역으로의 지역문화는, 생활환경으로서 적절한 여건과 문화적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

— 문화적 특성으로의 지역문화는, 해당 지역의 문화가 형성된 조건과 특성적인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동질적인 세대와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 주체들의 집단에서 보이는 특징**

— 지역에 어떤 층위(직업, 경제력, 가족형태 등)의 인구가 거주 혹은 생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문화가 공존하기도 함(예를 들어 서초구는 법조단지의 문화, 클래식 악기 거리의 문화, 자녀가 있고 취업하지 않은 기혼여성들의 문화, 교육시설과 기관이 다수 밀집되어있는 구역의 문화 등)

— 이러한 특징은 행정체계 안에서 지표로 환산되기도 하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많은 산업 인구로 인해 형성된 문화는 행정체계에서 누락되기도 함

— 따라서 행정의 안과 밖의 지역문화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각 문화의 연관성을 통해 지역성을 도출해볼 수도 있음(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사가 밀집된 곳에서 산업적·정서적 일체감으로 형성된 직장인 문화가 존재하는 등)

2-2) 지역문화 정책의 현재성과 방향

- **지역문화 개념이 취약한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정책**

— 지역문화는 단순히 좁은 의미로의 지리적 행정구역에서 형성되는 문화이거나, 중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지방이 아닌, 생활성과 역사성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이나 지역으로 재구성된 문화

— 이러한 지역문화의 개념이나 정책의 방향성조차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문화로 해석되거나 문화도시를 위한 사업, 지역의 문화재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형성되고 있음

- **지역문화는 생활하는 지역의 '문화적 기반과 여건'에 관한 문제, 특화된 지역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문제, 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지역문화의 정책적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와 네트워킹화 하는 문제 등으로 구성 가능**

- **따라서 생활권 단위 중심의 문화, 특화된 지역에 형성된 문화 등으로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정책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중앙-광역-기초의 수직 계열화된 관계 안에서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이처럼 이른바 문화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상황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성 등 생활 기반으로 지역문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재규정과 정책의 방향, 시스템의 재구성화 등이 필요**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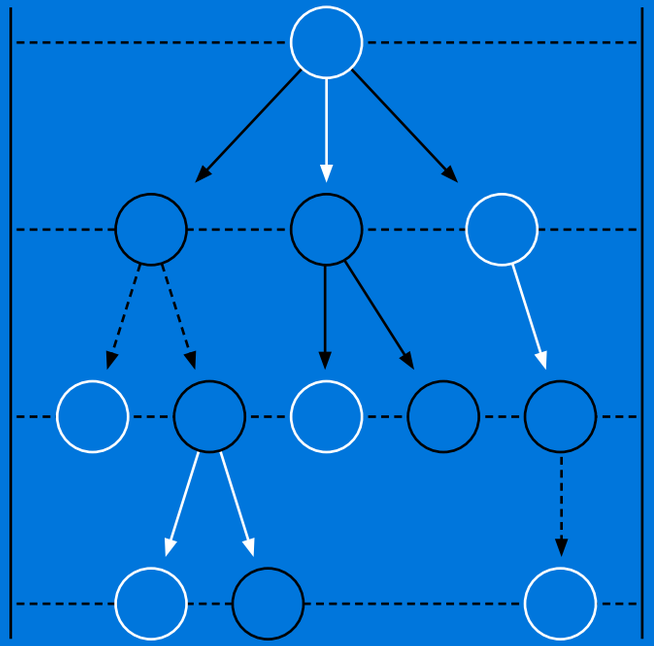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유형화

1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2 서울의 주요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3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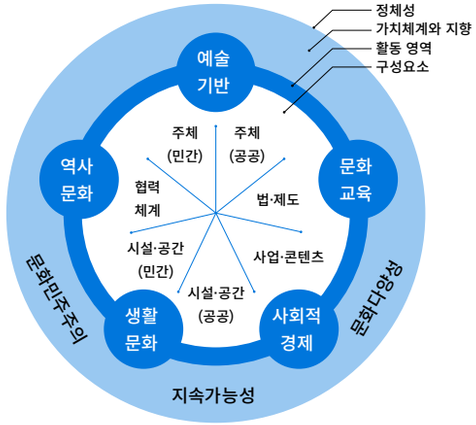


1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 앞서 지역문화생태계를 정의하면서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조를 7개의 구성요소와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음. 이는 지역문화생태계를 '순환구조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구조적 요소들과 그것들이 결합하여 만드는 활동의 장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 '주체(민간, 공공), 법·제도, 사업·콘텐츠, 시설·공간(민간, 공공), 협력체계' 등 7개 구성요소 간의 순환과 상호작용이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등 5개 영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

■ 하지만 지역문화생태계의 실천적인 분석은 구성요소와 영역의 파악에서만 그치지 않음. 지역문화생태계의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는 전제라 할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간의 순환과 상호작용 방식이자 지역문화생태계의 성격과도 관련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지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물론 '정체성'과 '가치체계, 지향' 또한 구성요소 및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도 함. 유형화는 정체성, 구성요소, 영역, 가치체계, 지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할 수 있음

‹그림22›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개념도



1) 정체성

- 지역문화생태계의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는 '원인' 혹은 '이유'를 말함. 대개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지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됨.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은 행정구역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민간 중심의 자연발생적 지역문화생태계의 경우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구역 단위의 정책적 노력과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의 결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우 행정구역과 일치할 수도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와 활성화된 영역의 배경에는 해당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이 있음. 이와 동시에 구성요소의 현재적 실천과 지향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구성요소 및 활동영역'과 '정체성'은 상호작용함

-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에 대한 조사와 논의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영역(장르) 구분을 넘어서는 깊이를 부여함. 또한 이는 지역문화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과정은 일반화될 수 없음. 물론 우리나라는 비슷한 역사,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므로 '정체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지는 않겠지만 '정체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생태계의 '개성'이 만들어질 수 있음

2) 가치체계와 지향

-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와 영역을 관통하는 '연결원리'이자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인식의 측면. 정책과 사업의 기조와 방향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인식의 측면까지 해당될 수 있음. 지역문화생태계의 시간과 공간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흐름에 놓여 있다면 '가치체계와 지향'은 현재로부터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큼. 그렇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사업, 지역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됨

- 지역문화생태계의 '가치체계와 지향'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 이는 '가치체계와 지향'의 형성과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소 및 환경 변화가 비교적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문화생태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 물론 보편적이고 일반화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을 뿐, 그것이 실제 지역문화생태계에 작동하는 방식까지 일반화되는 것은 아님. 지역문화생태계 구성요소의 현재 상황(인식, 관심사, 지향 등)에 따라 실제 현실에서 작용하는 내용과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음

- 앞서 사회문화 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가치체계와 지향으로 '노동과 인간의 가치', '생태적 삶에 대한 고려', '인권과 성평등 의식',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그리고 '거버넌스' 등이 제시되었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지역문화생태계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등을 지역문화생태계의 연결원리로 강조하고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생존, 존속을 위한 유·무형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인구 구성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와 함께 제기되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의 확대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문화민주주의'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문화생태계를 가로지르는 연결원리를 고민하고자 함

3) 구성요소

-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어떤 '구성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기존의 지표조사나 향유실태조사와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음. 각각 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는 활동과 영역을 구축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요소들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독립적으로 구분되고, 활동하고, 축적될 수 있는지 여부). 선행연구 자료의 지표조사와 향유실태조사 등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주체', '시설, 공간', '법, 제도', '사업, 콘텐츠'와 함께 이 구성요소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요소에 포함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라는 것은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지표의 의미가 아님. 생태계라는 관계성의 중요한 축이라는 의미이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함. 구성요소에 대한 의미부여와 집중이 중요한데 이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성의 근간, 기초가 되는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중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들이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축적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측정은 단순 계량화로 가능하지는 않음. 구성요소 별로 확인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문화생태계 전체 맥락에서 관계성과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표29›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주체 (공공/민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 주체들을 모두 포함. 구체적으로는, ·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문화정책, 문화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 지역문화재단 등 중간지원 조직 등이 해당
제도와 법	지역에서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법률, 조례 등이 해당. 구체적으로는, · 지역문화재단, 도서관 등을 포함한 기구, 시설, 축제 등의 설치 조례 ·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에 대한 지원·조성·육성 조례 등이 해당
사업과 콘텐츠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문화사업과 콘텐츠. 구체적으로는, · 지역대표 축제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각종 문화사업 등이 해당
시설과 공간 (공공/민간)	지역문화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의 시설, 공간. 구체적으로는,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문화기반시설 ·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시장, 공연장, 공유공간 등이 해당
협력체계	민간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민관거버넌스 체계 모두 포함. 구체적으로는,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운영 중인 문화활동 관련 (자문)위원회 · 지역 민간주체들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 거버넌스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이 해당

4) 활동 영역

■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를 위해 '구성요소'와 함께 고려할 것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영역'임. 여기서 '영역'이란 지역문화와 관련한 활동의 형태(구성요소들이 속해있거나 활동하는 영역), 혹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이슈들이 집합적으로 드러나는 장이라 할 수 있음.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어떤 장(영역)에서 활동하는지 파악하여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유형화)을 분석하려고 함

■ 지역문화생태계의 영역은 오랜 기간 지역문화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공공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함. 지금까지 지역문화생태계와 관련한 공공의 지원과 정책적 개입은 위에서 언급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특정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때문에 공공의 지원과 정책적 개입의 성과가 프로그램의 수, 참여자의 수와 만족도 등으로만 측정되고 지역문화 각 구성요소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연속된 사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지역에 축적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영역을 '예술창작,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예술, 전통문화' 등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였음. 산업적 측면의 접근과 중첩되어 있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활동영역의 경우 지역문화생태계의 개념과 관계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음. 단 '사회적 경제' 영역을 분석틀에 추가함으로써 문화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은 분석에 포함함. 또한 지역문화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단위 정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은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봄

‹표30›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 영역

활동 영역	내용
예술기반	전시, 공연 등 예술활동 및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한 영역
문화교육	학교, 기관, 시설 등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청소년교육 영역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생활문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예술활동, '생활문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 포함
역사문화	지역의 역사적, 전통적 문화자원 기반의 활동 영역

5) 유형화

■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는 7개 구성요소와 5개 활동영역 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조합에서 도출될 수 있음. 그 방식은 각각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요소와 연결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임. 즉, 구성요소와 영역 중 특정한 부분이 강조되거나, 혹은 몇몇 요인들의 조합이 강조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유형화'가 가능해질 수 있음. 구성요소(7개), 영역(5개)의 산술적인 조합으로는 수십여 개의 유형이 나올 수 있음

■ 하지만 유형화의 방식은 정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임. 애초 '생태계' 관점의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순환관계'와 '상호작용'은 정량화된 지표보다 '관계성, 밀도 등' 정성적인 평가로 측정 가능한 내용임. 지역문화생태계 분석의 요소로 구성요소와 활동영역 외 '정체성', '가치체계', '지향'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

■ 정체성, 가치체계 등은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와 활동영역이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결과임.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문화 활동가 등 해당 지역문화생태계 고관여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

■ 결국 유형화의 목적은 특정한 유형(모델)의 확산(일반화)에 있지 않음.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역량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지역문화생태계'의 복제는 불가능한 것임. 다만, 지역문화생태계 분석과 유형화는 지역문화생태계의 현실에 대한 파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됨. 유형화를 통해 파악한 장·단점을 통해 지역 스스로가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와 순환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임

2 서울의 주요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1) 지역문화 생태계 분석의 방향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조

— 지역문화생태계를 '순환구조'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구조적 요소들과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활동의 장으로 나누어 접근

— 특정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구성요소들이 활동영역과 만나는 지점에서 구체화되는 데이터들을 통해 해당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과 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함

— 구조들의 복잡한 결합으로서 만들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영역들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생태계의 구조에 종속되어 있다고 판단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는 활동과 영역을 구축하는 각각의 독립적 요소들로 구성

— 선행연구 등의 지표분석이나 지역문화 분석틀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주체', '시설·공간', '법·제도', '사업·콘텐츠'를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이들의 작동방식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협력체계'를 추가하여 살펴봄

— 각각의 요소들을 단순 개량화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지역문화생태계 전체 맥락에서 그 중요도와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여 접근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 영역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 영역은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결합하여 외화되는 결과이자 지역문화 활동의 형태 또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이슈들이 집합적으로 드러나는 장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 영역은 오랜 기간 지역문화 주체들의 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영역일 수도 있으나 공공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영역이기도 함

— 예를 들어 생활문화 영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 문화 향유 과정 또는 시민참여의 과정으로 다뤄졌으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독립적인 정책과 사업 영역으로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지역문화생태계와 관련된 공공의 지원과 정책적 개입은 이러한 지역문화생태계의 각각의 영역에 대응하여 특정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요소들의 연결원리

— 지역문화생태계의 각 요소들과 유형들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호작용의 맥락하에서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함

— 이 과정은 자연생태계와 같이 균형적 상태로 가고자 하는 자연발생적인 힘이 작동한다고 보긴 어렵고,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주체들의 목적의식적인 개입과 공통의 가치가 중요

— 지역문화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등 지역문화생태계를 연결하는 공통의 가치체계와 의지가 지역문화생태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함

‹표31› 지역문화생태계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	주체	· 자치구 담당부서 ·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 민간단체
	제도·법	· 자치구 관련 조례
	사업·콘텐츠	· 중앙정부 및 광역 보조금 사업 · 중앙정부 및 광역 지원사업 · 지자체 정책 및 사업 · 지역 대표 축제 · 기타 지역 대표 콘텐츠
	시설·공간	· 공연장, 전시공간 및 영화관 · 도서관 · 문화재/사적 및 박물관 · 복합문화공간 · 민간공유공간 · 기타공간
	협력체계	· 자치구 행정(자문)위원회 · 민관협의체 · 거버넌스 조직/기구
지역문화생태계의 활동영역	예술기반	· 공연, 전시, 영화 등 예술활동 및 콘텐츠 창작 영역
	문화교육	· 문화예술교육, 청소년 교육 관련 활동 영역
	사회적 경제	·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
	생활문화	·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사업 대상 및 시민참여형 예술활동 영역
	역사문화	· 전통문화자원 기반 영역

■ **분류체계에 따른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위의 분류체계에 대응하는 각 지역문화생태계의 데이터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조와 연결된 데이터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특정 영역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들은 이미 지역문화실태조사나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 정책보고서, 통계 등에 이미 많이 담겨있지만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은 매우 제한적

– 예를 들면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와 같은 지표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단순 정량값으로, 지역문화 활동의 활성화 정도와 지역 단체·조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함

– 이러한 개별 지표들의 정량적 값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생태계의 구조 안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혹은 각각의 영역의 핵심적 코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맥락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표32› 지역문화생태계 조사 자료 출처

활동 영역 / 구성요소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주체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N개의서울 모니터링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아르떼 자료실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현황 자료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현황: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종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서울시 생활거버넌스25 조사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부서 기초 자료 · 자치구 문화원 자료 ·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주요주체 인터뷰
제도·법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사업·콘텐츠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N개의서울 모니터링 자료 · 서울 문화원, 서울시 축제현황자료 · 자치구 예산서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아르떼 자료실 · 서울 문화원, 서울시 축제현황자료 · 자치구 예산서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현황 자료 · 서울 문화원, 서울시 축제현황자료 · 자치구 예산서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서울문화재단 생활거버넌스25 조사자료 · 서울 문화원, 서울시 축제현황자료 · 자치구 예산서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구 홈페이지 · 자치구 문화원 홈페이지 · 서울 문화원, 서울시 축제현황자료 · 자치구 예산서 · 주요주체 인터뷰
시설·공간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N개의서울 모니터링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아르떼 자료실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서울문화재단 생활거버넌스25 조사자료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 문화재청 홈페이지 · 주요주체 인터뷰
협력체계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N개의서울 모니터링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아르떼 자료실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자치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현황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재단 기초 자료 · 서울문화재단 생활거버넌스25 조사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 자치구 문화부서 기초 자료 · 주요주체 인터뷰

2)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지역

2-1) 대상지역 선정 기준

■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 모델이나 특성 존재

— 지역문화생태계의 분석을 통해 개별 지역문화생태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지역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요소와 활동영역에 있어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

■ 지역문화생태계의 존재와 실체성

— 지역 내 주요 주체와 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와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 서울 지역 내에서 생태계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 온 지역

■ 서울의 거점지역으로 정책, 사업의 주요 대상

—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관련 주요 사업 (N개의 서울, 생활문화 등) 참여 지역

— 지역 거점형 시설이나 활성화 사업이 시행된 지역

■ 지역문화에 대한 지원체계 활성화

— 자치구, 지역문화재단 등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제도 등의 유무

— 지역문화 기반의 제도, 정책 유무

2-2) 대상지역

지역	구획 기준	생활권 구분	참고자료 유무
성북구	행정단위 구획	동북권	선행연구, 기초조사 자료 있음
중구	행정단위 구획	도심권	
홍대 앞	생태계 중심 구획	동서권	
문래	생태계 중심 구획	남부권	

3) 지역문화생태계 분석

3-1) 성북

3-1-1) 생태계 구조 분석

① 활동 영역(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예술기반

▫ 성북 지역은 대학로의 배후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극 관련 주체와 공간 등이 많이 모여 있으며 성북동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성북 지역에 연극 관련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 최초의 예술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라벌예술대학이 성북(길음동)에 위치해 있었고, 근래에는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대학로와 가장 가깝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성북 지역에 연극인들이 모여들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극 공연시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연습실이나 극단 사무실은 성북에 두고 공연무대는 주로 인접한 대학로 지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타 장르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성북문화재단 설립 이전까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예술단체의 수에 비해 지역 기반의 문화활동은 매우 적은 편이였으며 이는 성북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전략적 과제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됨

■ 문화교육

▫ 최근 혁신교육,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면서 문화교육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

▫ 성북 지역은 비교적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의 정책과제 역시 역사문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문화교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특히 기존의 강좌형 문화교육이 아닌 생활권 기반의 생활문화와 결합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실험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문화교육과 생활문화의 경계가 모호한 활동들이 확대 되고 있음

▫ 반면 기존의 혁신교육이나 대안교육과의 연결고리는 취약한 편이고, 제도교육과의 접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문화교육이 문화기획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경향도 보임

■ 사회적 경제

▫ 성북의 사회적 경제 관련 주체 및 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에 속하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적지 않음

▫ 특히 법제도 환경 측면에 보았을 때 성북 지역은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등 구체화 된 조례들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

- 반면 중간지원조직의 이름(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드러나듯 사회적 경제 활동이 마을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독립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지역문화 활동 주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단체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생활문화**

- 최근 몇 년간 성북의 생활문화 관련 활동은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관련 자원의 확대와 공간, 주체 등의 성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성북의 생활문화 활동의 특징은 '동아리' 중심의 활동 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예술인의 생활권 내 비전문적인 예술활동이나 전문예술인과 비예술인 주민간의 공동작업, 일상화된 예술작업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활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 인프라와 독서문화 활동에 기반한 생활문화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성북의 생활문화 영역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성북정보도서관 내에 조성된 천장산우화극장이나 어린이미술관은 이러한 성북의 생활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역사문화**

- 성북 지역은 주요 문화재나 사적 등이 많은 편은 아니나 한양도성과 한옥, 근현대 예술인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역사문화 도시의 이미지가 강함
- 이는 성북문화원을 비롯해 자치구 차원에서의 역사문화 자원의 발굴과 관련 사업을 꾸준히 개발해 왔기 때문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역사문화 관련 주체들의 발굴이나 제도적 지원 체계의 구축, 협력 구조의 구축 등은 눈에 띄지 않음

② 구성요소

■ **주체(공공, 민간)**

-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핵심적인 주체로는 공공부문에서는 성북문화재단, 민간부문에서는 공유성북원탁회의와 관련 주체들이 있음
- 성북문화재단의 경우 역사문화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영역에 관계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들의 추진과 실행 외에도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원, 협력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민간 주체들도 거의 전 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다수의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주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남
- 이는 성북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 간의 거버넌스를 통해 장르 중심의 지역 활동 구조가 아닌 생활권과 일상 기반의 활동 플랫폼들을 다수 설계하면서 생활권 안에서 장르 영역을 넘나드는 일상의 활동들이 생겨나기 때문으로 보임
- 성북의 지역문화 주체들은 자율적인 활동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독립적인 민간 영역을 구축했다기 보다는 공공영역 안에서의 자기 영역을 확대해 가는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관 협력 구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

■ **제도·법**

- 상위법에 따른 기본조례 외에도 다양한 영역별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음
- 특히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단순 자문기구 설치 조례가 아닌 지역문화진흥법을 바탕으로 지역문화기본조례에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관련 조례들을 통해 지역문화의 인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유촉진 조례'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넘어서는 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사업·콘텐츠**

- 성북의 사업 및 콘텐츠는 중앙정부나 광역 지원이나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예술기반, 생활문화 관련 사업들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에 기반한 사업이 많음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핵심은 N개의 서울 지원을 통한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이며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은 재단의 사업인 동시에 지역문화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 성격을 갖고 있음
- '누리마실', '성북진경' 등의 축제는 기존의 용역 방식이 아닌 거버넌스형 축제실행 구조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유성북원탁회의를 비롯한 지역 주체와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축제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예술인의 참여는 축제를 통한 창작콘텐츠의 개발(서울괴담의 '여우와 두루미', '보이지 않는 도시')로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에 비해 자치구 문화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은 높음

■ **시설·공간(공공,민간)**

- 주체나 사업에 비해 시설 및 공간의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
- 각 활동영역에 특화된 공간이나 지역의 거점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하나의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 통합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라기보다는 각 영역의 활동이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그러나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미인도, 천장산우화극장과 같은 공간들은 공간 부족의 한계를 거버넌스 운영이란 방식으로 민간 주체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실험 중

■ 협력체계

- 역사문화 영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계들이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생태계 전 영역의 활동을 아우르는 협력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공유성북원탁회의를 통해 개별 영역, 생활권 단위의 공간에서도 각각의 수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버넌스 방식의 협력구조가 파생되어 생겨나고 있음

‹표33›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공공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성북문화재단 · 성북청소년 문화의집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 평생학습관	·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 ·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성북문화재단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 성북문화재단 · 돌곶이생활 예술문화센터 · 정릉종합 사회복지관 · 성북구 평생학습관	·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주체	민간	·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 장애인문화예술 판 · 성북연극협회 · 성북미술협회 · 길음예술사랑방 · 슈필렌 · 빈티지프랭키 · 아미고 · 종종걸음 · 석관드림 · 월간지 · 모모모 · 월장석친구들 · 개구장위 · 선잠52 · 정말기록당 · 호박이넝쿨책 · 정든마을 주민공동체 · 제철과일 · 너다워서아름답다 · 프로텍터 통 · 사하따나 · 서울괴담 · 극단 바람처럼 · 엘마드레 · 메로 · 공작소365 · 불나방 ·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 조합 · 와보숑 · 날마다드로잉 · 가청주파 · 무중력지대성북 · 성북신나 · 문화도시연구소 · 갤러리트럭 · 극장봄 · 극단 청년단 · 극단 씨지프 · 명랑거울 · 손이말하는테이블 · 밴드 강	· 성북문화예술 교육가 · 협동조합 마을온예술 ·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 공간 민들레 · 간디교육협동조합 · 자문자답 · 문밖세상 · 월간동네교육 · 햇살놀이터 · 놀이나무 · 아츠컴퍼니뜨락 · 극단 날으는자동차 · 아인클랑 · 캔파운데이션	·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 성북문화예술교육가 · 협동조합 마을온예술 ·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 성북신나 · 슈필렌 · 아트버스킹 · 장애인문화예술 판 · K2인터내셔널코리아 · 마을인시장 사회적협동조합 · 간디교육협동조합 · 미디어협동조합 와보숑 · 성북동 아름다운사람들 · 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합 · 햇살놀이터 · 공감씨엔씨 · 극단아리랑 · 놀이나무 · 대지를위한바느질 · 땡큐플레이트 · 숲과사람들	· 스플 · 아츠컴퍼니뜨락 · 엘마드레 · 엠엔터테인먼트 · 위시루프컴퍼니 · 위플레이 · 키득키득 · 7번출구 · 극단 날으는자동차 · 노란들판 · 놀자학교 · 더 행복한 음악 · 명상나눔 · 몽당 · 문화예술협동조합 타래 · 문화유통 · 성북문화예술 · 아인클랑 · 아츠메디플랫폼 문화예술 · 아트플러그 · 영상디자인파이 · 오디자인 · 전국청년문화예술 · 주인공 · 캔파운데이션	·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 자문자답 · 마을예술창작소 · 길음예술사랑방 · 마을예술창작소 · 우리동네아뜰리에 · 마을예술창작소 · 행복한정릉창작소 · 정든마을 · 성북동 아름다운사람들 · 생활문화동아리: 230개	· 성북문화원 · 한국내셔널 트러스트 · 간송미술관 · 길상사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제도·법	·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 조례 · 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공유촉진 조례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도서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독서문화진흥조례 ·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책읽는 성북 추진협의회 운영 규칙 · 평생학습진흥 조례 ·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콘텐츠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 N개의 서울 (서울문화재단) ·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 성북예술동 · 성북N작가공모 · 거리갤러리 · 성북도큐멘타7 ·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서울시) · 지역대학연계사업 · 성북진경(축제) · 누리마실(축제) ·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지원 (자치구) · 연극센터 건립 (서울시)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서울문화재단)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서울문화재단) ·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프로젝트 ·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사업 · 축제학교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 삼양로 청년창업지원사업 · 두근두근 별길마켓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 생활문화거버넌스25(서울문화재단) ·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서울문화재단) · 성북예술마을만들기 · 꿈의오케스트라 사업 · 서울시민예술대학 사업(서울문화재단) · 성북예술동 · 인문학습공동체 · 최만린미술관문화살롱 · 문화바캉스(축제)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사업 · 선잠제향 · 맹인독경 · 성북동야행 · 성북진경(축제)	
시설·공간 공공	· 성북예술창작터 · 성북구립미술관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 성북도원 · 미인도 · 최만린미술관 · 성북어린이미술관 (성북정보도서관) · 아리랑시네센터 · 성북마을 미디어센터 · 천장산우화극장 (성북정보도서관) · 길음문화복합 미디어센터(예정) · 연극센터 (예정,서울시)	· 성북구민회관 · 성북여성회관 · 성북청소년 문화공유센터 · 성북아동 청소년센터 · 성북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 성북구 청소년 놀터 · 정릉 청소년 휴카페 · 장위 문화예술 교육센터(예정)	· 성북구마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 페어라운드	· 성북구민회관 · 성북여성회관 · 미인도 · 동네마당 똘안 · 서울예술치유허브 · 동행 라온 · 성북구평생학습관 · 정든마을 · 주민공동이용시설 · 예향재 · 길음문화 복합미디어센터(예정) ‹도서관› · 달빛마루도서관 · 아리랑정보도서관 · 성북정보도서관 · 석관동미리내도서관 · 해오름도서관 · 월곡꿈그림도서관 · 종암동새날도서관 · 성북이음도서관 · 정릉도서관 · 아리랑어린이도서관 · 서경로꿈마루도서관 · 청수도서관	· 한양도성 · 선잠단지 · 이육사기념관 ·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 정릉 · 의릉 · 돈암장	· 정릉 예술인주택 · 창조인빌 · 시민청 (예정)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시설·공간 민간	· 179연습실 · 극장 봄 · 돌쌍기극장 · 성북마을극장 · 여행자극장 · 소극장 봄 · 권진규아뜰리에 · 17717 · 공감M아트센터(공연장) · 뜻밖의극장 · 극단놀터 · 나니아의 옷장(공연장) · 공간222 · 국민대학교 대극장 · 한국종합예술학교 공연지원센터 · CGV성신여대	· 공간 민들레 · 청소년의숲 사회적협동조합	·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돌곶이생활예술 문화센터 · 마을예술창작소 길음예술사랑방 · 마을예술창작소 우리동네아뜰리에 · 마을예술창작소 행복한정릉창작소 · 마을예술창작소 잇다 · 컬쳐몽땅 · 호박이넝쿨책 · 감성달빛 · 삼태기마실사랑방 · 길음소리마을센터 ‹작은도서관 : 40개소›	· 간송미술관 · 한국가구박물관 · 우리옛돌박물관 · 한용운 옛집 · 최순우 옛집 · 권진규 아뜰리에 · 길상사 · 성락원	
협력체계	· 공유성북원탁회의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 성북예술마을연석회의	· 공유성북원탁회의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 성북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 · 성북예술마을연석회의	· 공유성북원탁회의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 공유성북원탁회의 · 생활문화공간네트워크 · 축제협력네트워크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 성북예술마을연석회의	· 창조문화도시위원회	

3-1-2)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

①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

■ **생활권 기반의 활동구조**

▫ 성북의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사업 중 대표적 사업인 예술마을만들기의 경우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문화교육 등도 지역 내 생활권 안에서 예술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진행되기도 함

▫ 예술마을만들기의 활동 권역 설정은 행정단위(동단위) 기준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미아리고개 예술마을만들기, 월장석 예술마을만들기와 같이 행정의 틀을 따르지 않고 생태계 특징에 주목하여 활동 권역을 설정하기도 함

▫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의 활동계획 수립 시 지역(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이해를 위한 과정을 함께 설계

■ **장르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주체**

▫ 성북은 예술인 중 연극인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역 활동의 주체 중에도 연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실제 지역 내에서의 활동 그룹이나 조직을 들여다보면 지역 연극인 외에도 기획자, 정책전문가, 비평가, 지역 주민까지 다양한 활동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업과 콘텐츠 역시 예술기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융합적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음

■ **마을활동으로의 확장**

- 생활권 기반의 활동이 이뤄지면서 참여 주체들이 마을단위 활동에 참여하거나 마을활동 주체들이 생활권 기반의 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문화 생태계 안에서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음
- 특히 예술마을만들기 활동의 경우 참여 예술인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일(활동)과 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② 성북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 **호혜성과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활동 전망의 구축**

- 성북 지역문화 생태계의 주요 주체들은 개인으로 활동에 참여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활동그룹 안에서 공동의 목표 설정과 활동 경로의 설계, 활동 전망의 구축을 함께 진행
-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문화재단이 거버넌스 형태로 만드는 워킹그룹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있음

■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

-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활동들의 경우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활동이 대부분이며 공적 지원이나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설계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 때문에 공적 지원이 끊기거나 행정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활동 자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보이기도 함
- 또한 민간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연계 등이 부족한 편이며 이는 활동의 확장과 함께 물적 토대도 확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활동주체 발굴과 성장을 위한 체계 부족**

- 지역의 비교적 탄탄한 협력구조 안에서 활동과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체간의 관계의 밀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활동이 지속될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특징은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도 하며 참여 주체들의 성장을 위한 계획이나 체계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이는 생태계 자체의 폐쇄성이 강화되고 노쇠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③ 지역문화생태계로서의 지향 또는 가치체계

- 성북 지역문화생태계는 거버넌스 기반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으며 호혜성과 사회적 우정이라는 공통의 가치체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주체들의 활동 영역을 일상적인 삶의 영역으로 옮겨 오면서 장르적 구분이나 사업적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인 생태계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음
- 성북문화재단은 조직의 미션으로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단의 주요 활동과 과제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전면에 배치하고 있음

<그림23> 성북문화재단 비전/미션

비전	주민 삶 속에 피어나는 성북의 문화		
미션	1. 문화가 일상이 되는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2. 구석구석 찾아가는 생활문화		
전략 목표	주민주도 문화활동	지역문화 공동체	균형발전 문화복지
전략 과제	주민주도 문화활성화 지역문화 네트워크	인문 및 생활문화 공동체 확대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일상문화 향유
성과 지표	· 대표 축제의 주민 주도 모델 확립 ·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 · 도서관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생활문화 확대 · 공동체 활성화 · 행복한 책 읽는 공동체	· 성북의 아동과 가족문화 증진 · 성북의 시각, 영상 예술문화 콘텐츠 확대 · 도서관 및 공연예술 활성화

3-1-3) 소결 : 성북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

■ **다양한 협력구조와 강력한 거버넌스**

- 공유성북원탁회의로 대표되는 성북의 거버넌스는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활동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음
- 이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서 성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사업의 대부분을 바텀업 방식으로 설계하고, 예산에 대한 배분과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음
- 이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이나 미인도와 같은 공간운영,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구조와 운영, 지역 축제의 기획과 운영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생태계 구조 안에서의 활동의 유기적 결합과 전환**

-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구조, 생활권 중심의 활동 영역은 기존의 정책이나 지원사업 중심의 지역 활동의 구조를 넘어서는 유기적 결합과 사업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음
- 지역 생태계의 필요에 따라 사업의 구조와 운영의 전반에 대한 재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성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생태계의 요구와 공공지원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

■ **상대적으로 취약한 물적 토대**

- 성북 지역은 주체나 협력구조와 같은 인적 자원이나 제도적 자원들은 풍부한 편이나 시설/공간, 예산 등 물적 토대는 취약한 편이여서 사업이나 활동의 확장이 어려움
- 또한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참여 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적 모델이나 기반이 충분하지 못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음

3-2) 중구

3-2-1) 생태계 구조 분석

① 활동 영역(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예술기반

-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예술기반 영역의 특징은 압도적인 시설과 공간들에서 찾아볼 수 있음. 중구 지역은 역사적으로 연극, 영화산업, 청년문화(70년대 포크음악)의 중심지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성된 예술기반 시설들이 적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물적인 자원(인프라)에 비해 지역문화 차원에서의 주체 형성이나 활동들이 활발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이는 중구라는 지역이 도심권의 중심 지역으로 일종의 서울의 중앙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예술활동의 측면에서도 광역이나 전국단위의 주체들과 활동이 중구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머물렀던 것이지 지역과 연결되는 활동과 결과들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
- 그러나 최근 중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생겨나고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등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음
- 과거 중구의 예술기반 영역이 영화, 뮤지컬, 대형 공연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청년, 대안공간, 생활문화로의 중심 이동이 이뤄지고 있음

■ 문화교육

- 중구 지역은 도심권 중앙에 위치하여 상업지역의 비중이 높고 거주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교육 영역의 활동이나 구조가 풍부한 편은 아님
- 문화교육과 관련한 독립적인 주체나 사업들 보다는 지역의 청소년 교육 영역에서 문화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이며 충무아트홀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 정도가 독립적인 성격의 문화교육 사업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지원들이 확대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사회적 경제

- 중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자치구의 사회적경제과와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단 외에도 서울시의 세운협업지원센터가 공공에서의 주요 주체로 활동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지원이나 활동 측면에서 눈에 띄는 특징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문화·예술 기반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산업 생태계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소상공인 생산자 협동조합이 눈에 띄는데 제작이나 수리, 인쇄 분야의 협동조합들은 문화기반의 전통적인 소규모 산업 생태계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생활문화

- 앞서 살펴본 문화교육 영역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중구의 인구학적 배경과 산업적, 지리적 특징들은 생활문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
- 서울문화재단의 동아리 조사에 따르면 128개의 동아리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생활문화 관련 공간들의 수나 사업·콘텐츠는 예술기반 영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 구의 정책적 방향이나 중구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을 살펴보면 생활문화 환경의 조성과 활동 촉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생활문화 기반의 축제와 활동이 중구를 배경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생활문화 활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역사문화

- 서울시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의 지리적 특징 상 다양한 문화재와 역사문화 관련 자원이 다수 존재
- 중구의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들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화 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중구 역시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들에 비해 지역 단위의 관련 주체나 활동, 콘텐츠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이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과 사업들이 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② 구성요소

■ 주체(공공,민간)

- 중구의 경우 지역기반의 예술기반 주체들이 활동하고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였으나 최근 을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과정과 자치구 문화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새로운 예술 주체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음
- 을지로, 충무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통적인 소상공인 형태의 인쇄, 제작 문화산업 주체들이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만한 특징
- 한편 오랫동안 중구 문화예술생태계를 상징하던 영화나 뮤지컬 관련 주체들이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중구의 지역문화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임

■ 제도·법

- 중구 지역문화생태계가 갖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에 비해 중구의 제도적 지원의 토대는 그다지 인상적인 부분이 보이지는 않음.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의 조례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구만의 비전이나 정책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

■ 사업·콘텐츠

- 중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영화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충무아트홀을 중심으로 뮤지컬 분야도 주목 받아왔음. 그러나 영화나 뮤지컬의 경우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작동하기 보다는 거대한 산업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의 연결 지점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기엔 어려움
- 이는 문화교육이나 생활문화, 사회적 경제 영역 등에서 영화나 뮤지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주체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최근 을지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창업 사업이나 도심산업활성화 사업, 다시세운프로젝트 등이 지역문화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음
- 또한 국립이나 시립 시설, 축제나 활동들이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아젠다가 변화하면서 중구의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음

■ 시설·공간(공공,민간)

- 중구의 예술기반 시설은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수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중구 시설과 공간의 상당수가 국립, 시립 공간으로 지역 생태계의 주체들이 그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님
- 구 시설인 충무아트홀 역시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실제 뮤지컬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생태계와의 접점은 약한 편이였으며 최근 충무아트홀을 지역문화 생태계와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
- 민간 시설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공간이 적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나 이용과는 관계없는 공간들이 대부분이며 지역 생태계 안에 있는 공간으로 보기엔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최근 을지로 지역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쇄골목이나 세운상가 주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년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 협력체계

- 아직까지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안에 눈에 띄는 협력체계는 보이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중구 안에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나 공간을 중심으로 을지놀놀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의 지역문화 주체들과 새롭게 등장한 주체들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이후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34›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주체	공공	· 중구청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 중구문화재단	· 중구청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 중구문화재단 · 중구교육혁신센터	· 중구사회적경제지역 생태계조성사업단 · 세운협업지원센터	· 중구청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 중구문화재단	· 중구청 시민친화국 문화관광과	
	민간	· 황학소굴 · 써드플레이스 ·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 ·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 만리아트메이커스 · R3028 · 에이플레닛 · 슈필렌 · 보리스튜디오 · 디자인점빵 · 아트스페이스노 · 세운협업지원센터 · 세운공공 · 비아토르앙상블 · 갤러리안정PYV ×남촌산책 · Studio SML · 에피파니 프로젝트 · 아시아 플랫폼 · 나호선 일렉트릭 · 남이디자인 · Public Show · 을지Our · Mo-Bright · 새작업실 · 산림조형 · 프래그 스튜디오 · 아틀리에 손 · 을지로전파사	·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 사회적협동조합파인트리 (중구사회적경제위탁) · 문화예술교육 더베프 ·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 황학뜬구름연구소 · 창작의민족 · 예술노동자협동조합 · 명동예술타운협동조합 · 개발협력 협동조합 빙고 · 서울가수협동조합 · 문화관광유통협동조합 · 여행사연합협동조합 · 아름다운디자인협동조합 · 플레이포레스트협동조합 · 서울패션디자이너 협동조합 · 케이에스에스엔협동조합 · 서울문화콘텐츠협동조합	· 그래서 책방 · 커넥티드북스토어 생활문화동아리 : 128개	· 중구문화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한마음인쇄협동조합 · 한국영상제작스텝 협동조합 · 한울타리인쇄제조 협동조합 · 다모아인쇄광고 협동조합 · 연예인협동조합 · 협동조합광장 · 문화나눔협동조합 목선재 · 비즈앤저널 협동조합 · 나비협동조합 · 언론문화협동조합 · 문화나무 협동조합 · 캐릭터메이커스 협동조합 · 한국문학예술인 협동조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수리수리협동조합 · 세운공장 협동조합 · 디지털인쇄협동조합
제도·법		·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 영화·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독서문화진흥 조례 ·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생교육진흥 조례 ·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관광진흥위원회 조례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사업·콘텐츠		· 예그린뮤지컬어워드 ·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정동문화축제 · 을지로도시재생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 뮤지컬전문아카데미 · 을지놀놀	· 자치구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예술교육소통관) · 중구는 예술대학 · 꿈의 오케스트라 · 중구혁신교육 지구사업 · 청소년 배우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현장직업체험		· 광희문 문화마을축제 ·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 문화사랑방 ACT · 예그린살롱음악회 · 생활예술인페어(서울시) · 서울지식이음축제 (서울시) · 서울서점페어(서울시) · 서울김장문화제(서울시)	· 정동야행 · 장충단 추모문화재 ·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기념축제 ·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마당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 건어물맥주축제	· 중구 청년 공동문화창업 ·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 을지로도심 산업활성화사업 · 을지로예술공장 ·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
시설·공간	공공	· 충무아트센터 국립극장(국)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시) · 명동예술극장(국) · 삼일로 창고극장(시) · 서울남산국악당(시) · 세실극장(시) · 한국의집 민속극장 · 해치홀 · CKL스테이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 서울시립미술관 · 문화역서울284 · 세운상가 · 서울애니시네마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팹랩서울 · 서울로7017	· 중구 청소년수련관	· 중구's 소셜플랫폼	· 중구생활문화예술센터 (서울시생활문화지원센터) · 중구구민회관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 중구종합복지센터 · 중림종합복지센터 ‹도서관› · 중구구립도서관 · 중구구립신당도서관 ·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 어린이도서관 · 손기정문화체육센터 · 정보도서관 · 서소문공원 · 서울도서관 · 장충문화체육센터	‹국보/사적› · 숭례문 · 한국은행 본관 · 광희문 · 환구단 · 정동교회 · 약현성당 · 서울성곽 · 서울역사 · 구 러시아공사관 · 중명전 · 명동성당 · 덕수궁 · 남산골 한옥마을 ‹박물관› · 안중근의사 기념관 · 우표박물관 · 지구촌민속교육 박물관	· 만리동예술인주택
	민간	· 경향아트힐 ·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 · 명동난타극장 · 명보아트홀 · 문화일보홀 · 신세계 메사홀 · 썬앤문 전용관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 정동극장 · 정동마루 · NH아트홀 · 그레뱅뮤지엄 · 비디갤러리 · 써드플레이스 · 일우스페이스 · 조선일보미술관 · 중구문화원 · 메가박스 동대문 · 메가박스 EOE4 · 대한극장 · CGV명동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 CGV동대문 · 롯데시네마 애비뉴엘5 · 롯데시네마 황학 · 청춘극장 · 명보아트시네마 · 예감터 여민 · 루덴스 · 마음산책 · 갤러리문안 · 공간 형 · 세운아트스페이스 · 스페이스바 · 을지로 OF · ㅋㅋㄹㅋㄷㅋ · 콜론비아츠 · n/a갤러리			· 마을예술창작소 엮임 · 예감터 여민 (서울시생활문화지원센터) ‹작은도서관 : 15개›	‹박물관› · 고당기념관 · 농업박물관 · 동국대학교 박물관 · 손기정기념관 · 유관순기념관 · 이화박물관 · 한국현대문학관	
협력체계		· 중구문화예술 거버넌스					

3-2-2)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

①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

■ 다양한 주체 및 공간의 등장으로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 확장

— 전통적인 영화, 인쇄·디자인, 제작 산업의 중심

- 오랫동안 충무로는 영화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였으며 수많은 인쇄·디자인 업체와 예술창작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제작 업체와 공방이 을지로를 중심으로 형성
- 영화의 경우 거점으로서의 의미는 점차 약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영화관과 같은 관련 시설들 역시 운영되고 있음
- 인쇄나 제작 산업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남아있는 주체들이 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해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며 최근의 도심권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하여 활로를 모색 중

— '힙지로'로 표현되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과 변화

- 과거 문래 지역에서도 보였던, 공동화되는 도심 공간에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을지로 인쇄골목 지역을 중심으로 중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음
- 여기에 다시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기반의 소규모 제작산업 주체들이 새로운 대안의 모색에 함께 참여하면서 생태계의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

■ 생태계 내 활동영역의 불균형

— 예술기반 영역 중심의 구조

- 민선7기 출범 이후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생활문화나 문화교육 관련 활동과 주체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최근에는 지역정치 내의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기반 역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문화정책 밖에서의 변화(도시재생 사업 등)를 통해 새로운 주체와 활동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모아낼 수 있는 문화정책의 추진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불균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

— 플랫폼으로서의 생태계

-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역사적 특징, 지리적 특징, 시설과 공간의 특성 등을 살펴볼 때 서울이라는 거대 생태계 내의 다양한 지역문화 주체들과 활동 등이 중구 지역문화생태계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음
- 최근 중구 지역에 모이고 있는 주체들의 특징을 살펴봐도 중구 안에서 정주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복수의 활동지역을 갖고 있는 주체들의 비중이 높음
- 중구의 인쇄 산업, 제작 산업은 오랫동안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보조하는 산업이었으며, 오랫동안 숙련된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은

장인으로서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 옴

- 이런 중구 지역문화생태계만의 특징은 서울이란 지역문화생태계의 허브이자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② 중구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 새로운 문화산업 구조화와 생태계의 가능성

- 중구의 인쇄, 제작 산업은 예술창작의 과정과 구조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재해석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몰락과 쇠퇴의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술창작 생태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와 같은 독특한 문화산업의 구조가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성장과 가능성의 자양분이 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그려볼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산업의 주체들이 소상공인 형태의 전통적인 경제활동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화는 숙련된 장인과 예술, 그리고 지역문화의 결합을 그려볼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개발

-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시기 문래에서 경험했고, 이후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또 다른 위기로 중구의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음
- 이미 '힙지로'란 이미지로 을지로 지역의 인쇄 골목이 주목 받으면서 일부에서는 임대료 상승, 새로 유입된 주체와 기존 인쇄 골목 주민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을지로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도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였으나 최근 을지로의 도심개발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서울시가 밝히면서 일단은 기존의 인쇄, 제작 산업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③ 지역문화생태계로서의 지향 또는 가치체계

- 중구 지역은 오랫동안 서울 문화예술 활동의 광역 거점으로서 기능해 왔으며 시대를 상징하는 다양한 문화적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었으나 지역이란 틀로 묶기엔 어려웠음
- 그러나 최근 다양한 주체들이 중구를 중심으로 등장하면서 중구의 광역성에 균열을 내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민선7기 중구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맞물려 가속화 되고 있음

‹그림24› 중구 민선7기 9대전략 중 문화부문 전략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일상 생활문화 확산	도서관 인프라 구축
· 예술가 창작주거 공간 조성 · 중구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 중구는 예술대학 운영	· 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 주민 참여형 스튜디오 운영	· 도서관 시설확충 · 이웃과 함께하는 도서관 만들기

- 현재 중구 지역문화생태계를 관통하는 공통의 가치체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엔 어려우나 일정 부분 생태계적 관점에서 중구의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3-2-3) 소결 : 중구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

■ 복합적 구조와 다양한 형태로의 확장 가능성

- 중구는 전통적인 장르예술 기반의 공간과 인쇄, 제작 문화산업 주체, 도시재생과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주체, 서울시의 거점형 문화 공간과 축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 주체,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 이러한 지역문화생태계의 복합적인 구조는 다양한 형태로의 결합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같은 사례들이 그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혁신적인 주체의 등장과 문화적 상징성

- 중구 지역은 해방 이후 한국 연극이 태동했던 공간이었으며, 70년대 청년문화의 산실이었고, 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거점으로 저항문화가 성장했던 공간이었음
- 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했지만 서울이란 거대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중구 지역에서 만들어져 왔으며, 이는 중구 지역문화생태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함
- 최근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주체들의 활동과 공간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모멘텀의 부족

-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특성, 서울의 주요 도심권으로서 지역화의 어려움, 높은 지가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위기, 지역 협력구조의 부족은 지역문화생태계로서 중구를 바라보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역 자원의 쏠림으로 생활권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기반 자원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활동 주체들도 도시재생 지역이나 도심 핵심 지역에 쏠림으로 지역과의 연결이 어려움
-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적 지원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3-3) 홍대 앞

3-3-1) 생태계 구조 분석

① 활동 영역(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예술기반

- 홍대 앞 지역에 두드러지는 예술기반 자원 및 활동에는 축제와 행사 등을 꼽을 수 있음. 주로 인디음악과 관련한 축제 및 행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도심 안 음악 축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다양한 규모의 음악 공연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음)
- 마포구에서 두드러질 정도로 많은 예술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홍대 앞 지역. 더불어 홍대 앞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술활동이 거리예술과 맞닿아 있음을 전제로 서울시 내에서는 도봉구와 더불어 마포구에서 유일하게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
- 또한 소규모 창작 집단, 공예가, 1인 창작자, 편집숍 등이 홍대 앞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이와 같은 주체들이 작품을 전시, 판매 하거나 공연,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상 예술이라는 모토로 20여년 가까이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음
- 미술, 인디음악, 출판, 디자인 등의 문화예술 장르에 기반한 인프라들이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었으나 상업 자본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홍대 앞 지역의 외곽 또는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가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예술가 네트워크 사업,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홍대 앞의 민간 주체들과 함께 홍대 앞 지역문화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음

■ 문화교육

- 생산자와 창작자, 예술가의 비중이 높은 홍대 앞 지역의 특성상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이를 소비·향유하기 위한 층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문화교육'과 접점을 찾기 어려우며 인프라도 적은 상태
- 문화교육을 위한 시설, 공간, 주체들이 타 영역에 비해 적은 편. 홍대 앞 지역 중심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예술 수준의 문화교육이 이뤄지는 중
- 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교육'이 홍대 앞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교육인지 혹은 문화교육은 지역의 특성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사회적 경제

- 마포구청 일자리 경제과와 마포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단과 같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공공 주체들이 존재. 따라서 타 영역에 비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관리가 잘 되어 있음
- 또한 홍대 앞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이 추진 중이며 문화예술 관광,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 문화예술과 관련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눈에 띄지만 홍대 앞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많지 않음. 소재지가 홍대 앞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단체들이 다수임(홍대 앞의 지역성을 반영하며 활동하는 단체로는 일상예술창작센터,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라이브클럽협동조합 등이 있음)
- 홍대 앞 지역과는 무관하지만 주변 지역 망원동, 성산동, 서교동, 합정동 등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존재. 이와 같은 단체들은 주변 지역에서 지역과의 연계성을 보이며 활동하지만 반면에 홍대 앞에서 일어나는 거리예술, 인디음악, 버스킹 등과 같은 예술활동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음(예를 들어,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트립티,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미산문화협동조합, 늘장협동조합, 땡땡책협동조합 등은 주변 지역과 활동의 밀도는 높으나 홍대 앞 지역문화와는 차이가 있음)

■ 생활문화

- 공공에서는 클래식과 오케스트라 중심의 생활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워크숍과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같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또한 생활예술 활성화와 동시에 청년예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진행 중
- 홍대 앞 지역 이외,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음
- 서울시의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 기준 생활문화 동아리는 119개가 발굴되었으며, 생활문화 사업 이전부터 마을예술창작소와 생활창작가게 'KEY'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문화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음
- 청년과 인디음악 등을 주제로 한 서교생활문화지원센터가 홍대 앞 지역 인근에 건립 예정이며 시설을 기반으로 생활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 예상

■ 역사문화

- 홍대 앞 지역은 현재 시점에서의 문화예술 경향을 반영하고 소비하는 속도가 빠른 편임. 그렇기 때문에 홍대 앞 지역문화의 역사는 현재 시점에 따라 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환됨
- 홍대 앞 지역 외에 서교동, 당인동, 합정동, 성산동, 상암동 등에서 역사문화와 관련한 자원과 활동을 찾아볼 수 있음. 홍대 앞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홍대 앞 이외 지역과의 역사문화 연계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② 구성요소(주체, 제도·법, 사업·콘텐츠, 시설·공간, 협력체계)

■ 주체(공공,민간)

- 홍대 앞 지역문화와 관련한 주요 공공 주체로는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청의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 등이 있음(마포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지원 사업단도 홍대 앞 지역문화에 연관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 특화되어 있음)
- 마포문화재단과 마포구청은 홍대 앞 지역문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각 주체들이 어떤 협력구조와 전략을 통해 홍대 앞 지역문화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홍대 앞 지역은 문화예술 특화지역으로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음. 상업 공간(카페, 공연장 등),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극단, 창작자(집단), 인디 밴드 등
-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로 인해 홍대 앞의 지역문화생태계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민간 주체들이 지속하여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도·법

- 타 지자체와 비슷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는데 주목할 만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 도봉구와 더불어 서울시 내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임. 홍대 앞 지역을 특정하여 제정한 조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포구에서 예술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홍대 앞 지역과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또한 홍대 앞 지역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음. 조례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장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두 조례가 홍대 앞 지역문화의 특징을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적용되어야 하며 또는 홍대 앞 지역문화를 고려한 독립적인 조례 제정도 염두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콘텐츠

- 홍대 앞 지역은 예술기반의 사업과 콘텐츠가 많은 편이며 크게 (1)예술 활동 주체와 관련 있는 사업(지역 상주 예술단체 창작 지원,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과 (2)지역과 관련 있는 사업(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 사업,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3)축제와 행사와 관련 있는 사업(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또한 홍대 앞 지역에 마포구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홍대 앞 기반의 문화예술 관광, 체험 비즈니스 모델 등이 개발 중임
- 그 중에서 축제와 행사와 관련한 사업과 콘텐츠가 두드러지며 홍대 앞 지역에 다양한 성격이 공존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고 있음. 출판, 디자인 산업 밀집 지역으로서의 홍대 앞, 융복합 예술 장르의 실험과 시도가 돋보이는 홍대 앞, 인디음악과 거리예술이라는 독립적인 장르로서의 홍대 앞 등(ex.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잔다리페스타,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울인디뮤직페스타 등)
- 홍대 앞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공간, 예술가, 창작자 등)을 아우르는 사업과 콘텐츠는 부재한 상태
- 홍대 앞 이외 지역에서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클래식과 오케스트라 등의 문화예술 아카데미와 워크숍이 진행되는 등 생활예술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 시설·공간(공공,민간)

- 홍대 앞 지역에는 다양한 규모의 공공·민간 문화시설들이 존재
- 홍대 앞 지역 이외에는 도서관과 박물관, 역사유적지 등이 존재

■ 협력체계

- 홍대 앞 지역의 문화환경에 대한 고민과 쟁점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이 존재. 또한 최근 예술활동 거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홍대 앞 지역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생성과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
- 마포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인 마포NPO네트워크 '모두 마포'에서도 홍대 앞 지역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홍대 앞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한 활동에 참여

‹표35›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주체	공공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마포문화재단	· 마포문화재단 · 마포평생 학습관	·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마포문화재단	·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 마포구청 관광과 · 마포구의회관광산업 활성화연구회
	민간	· 안티카페 손과얼굴 · 일상예술 창작센터 · 스트리트H · 라이브클럽 협동조합 · 한국음악레이블 산업협회 · 서교음악자치회 · 잔다리컬쳐 컴퍼니 · 경의선 책거리 ·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 네스트나다 · 문화뉴스 · 아르떼TV · (주)문화 예술인법인 딴따라땐스홀 · (사)한국 음악발전소 (뮤지스땅스) · 서울프린지 네트워크 · 장풍모임 (풍물패) · 해랑이랑 · 와우책 문화예술센터 ·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 기억발전소 · (유)아토	· 이음액츠 · 바다보석 · 우리가 만드는미래 · 팝업놀이터 · 스트레스 컴퍼니	· 마포사회적 경제네트워크 · 홍우주사회적 협동조합 · 일상예술창작센터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 (사)와우책 문화예술센터 · (사)대안영상 문화발전소 아이공 · 마포FM ·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 마을카페네트워크 마.카.롱 ·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 작은나무협동조합 · 힐링필링협동조합 · 이피큠협동조합 · 서울거리아티스트 협동조합 · 위드프리마켓 협동조합 ·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 트립티 · 된다공예협동조합 · 그리다협동조합 · 1인출판협동조합마포 · 성미산문화협동조합 · 룰루랄라 예술협동조합 · 땡땡책협동조합 · 늘장협동조합 · 공동체경제 모아 · 전통아트협동조합 · 학술전자출판 협동조합 · 문화예술지식공유 협동조합	· 라이브클럽협동조합 · 조이플러스 협동조합 · 큐브문화이벤트 협동조합 · 협동조합 란미르포유 · 공동판매구역 협동조합 · 한국미술협동조합 · 서울문화협동조합 · 벽화문화창작소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엎드림 · 합 협동조합 · 문화예술협동조합 몽상 · 인력거관광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아트허브 · 허클베리핀 팬 협동조합 · 협동조합 벼리 · 대중문화예술 협동조합 · 소리창조 · 대중문화기술 경영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 국제예술협동조합 · 프리랜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이음 · 해양문화교육 협동조합 · 철학하는예술가 협동조합 · 교육연극협동조합 재미사마 한국버스킹협동조합외 약 200여개	· 생활창작가게KEY · 성미산마을극장 · 마을예술창작소 토끼똥 · 마을예술창작소 와우살롱 · 마을예술창작소 이너프라운지 · 마을예술창작소 해랑장 ·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 · 마을예술창작소 개와고양이의정원 생활문화동아리 119개	· 장풍모임 · 마포문화원 · 광흥당	· 마포관광협의회 ·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제도·법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콘텐츠	· 지역 상주 예술단체 창작 지원 ·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문화채널 마포) 및 협력사업 (아트패스 마포)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 N개의 서울 · 마포구 지역행사 및 축제지원사업 ·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사업 · 수요예술포럼 · 경의선 책거리 · 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 · 홍대앞예술시장프리마켓 · 서울와우북페스티벌 · 페스티벌 나다 ·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 잔다리페스타 · 홍대 거리미술전 · 서울인디뮤직페스타 · 마포로컬리스트 컨퍼런스 · 서울무용영화제 · 마포 경의선 책거리 「312일 저자데이」 · 잔다리마을 문화축제 · 행복드림 아트 페스티벌 · 판 페스티벌	· 마포 혁신교육지구 · 마포역사문화와 함께하는 시티엔티어링	· 마포마을여행 플랫폼 구축사업 · 마포구사회적 경제특구사업	· 생활예술 활성화를 통한 청년예술가 일자리 창출 · 주민예술가 1만 양성 프로젝트 “꿈의무대” 사업 · 문화가 있는 명품도시 구현과 마포구민향수권 확대사업(남북문화교류, 착한공연 전시 프로젝트, 전문문화예술공연)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마포구민 생활예술 체험 (문화예술아카데미, 청소년가족워크숍, 꿈의 오케스트라) · 서교생활문화지원센터	· 당인리 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 마포나루 굿 행사 ·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 마포 국악 페스티벌 ‘온고지신’	· 자전거 대행진 · 서울건축문화제 · 서울억새축제 · 마포구 어린이축제 ‹마포둥이 모여라!› · M-PAT 클래식 음악축제마포 · 마포커뮤니티 예술축제 ‘꿈의무대’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 성미산 마을축제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시설·공간	공공	· 서교예술실험센터 · 마포아트센터 · 홍대걷고싶은거리 · 경의선 책거리		· 마포아트센터	· 마포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마포구 고용복지 지원센터 · 상암소셜박스	· 마포구민회관(예정) · 서교생활문화지원센터 · 마포아트센터 · 마포구립서강도서관 · 마포구립하늘도서관 · 마포중앙도서관 ·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 마포평생학습관	· 상암동 일본군관사 · 망원정 터 · 서교동 최규하 가옥 · 김대중 도서관	· 마포 관광정보센터 · 마포출판문화 진흥센터 · 문화비축기지 ·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 경의선 숲길공원 · 하늘공원 · 난지천공원 · 노을공원 · 평화의공원 · 월드컵공원 · 서울함공원 ·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
	민간	· 포스트극장 · 산울림소극장 · 정태호소극장 · 윤형빈소극장 · 김대범소극장 · 임혁필 소극장 · 클럽크랙 · 예스24무브홀 · 블루라이트 라이브홀 · 신한카드FAN 스퀘어 · 더 스텀프 · 홍대 난타 극장 · 씨디티켓라운지 · KT&G상상마당 · 하나투어 V홀 · 레드빅스페이스 · CJ아지트 베짱이홀 · JU씨어터 ·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	· 비보이 전용극장 · LIG아트홀 · 제일라아트홀 · 아르떼홀 · 롤링홀 · 뮤지스땅스 · 안티카페 손과얼굴 · 해랑장 · 지하소문 · 클럽 빵 · 네스트 나다 · 벨로주 · 채널 1969 · 갤러리 보는 · 김달진 미술자료 박물관 · 대안공간 루프 · 잔다리 갤러리 · 플레이스 막 그 외 다수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사)대안영상 문화발전소 아이공	· 생활창작가게 KEY · 성미산마을극장 · 개와 고양이의 정원 · 공간 릴라 · 해랑장 ·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 · 늘푸른 소나무작은도서관 · 복사골 작은도서관 · 성메작은도서관 ·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 용강동 작은도서관 · 초록숲 작은도서관 · 해오름 작은도서관	·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순교자 박물관 · 한국영화 박물관	· 마포디자인 출판지원센터 · 트릭아이뮤지엄
협력체계		·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 마포NPO 네트워크 모두마포 · 마포시민협력 플랫폼 왓헤픈드					· 마포디자인 출판진흥 지구협의회

3-3-2)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

①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

■ **홍대 앞 지역은 문화예술 특화 지역이지만, 문화예술 연계 영역의 특징적인 사업과 주체들도 존재**

— 관광 자원으로서의 홍대 앞

▫ 홍대 앞 지역은 관광 관련 조례 제정과 시설 마련, 관광산업활성화연구회(마포구의회)와 마포관광협의회(민간) 등을 통해 주요 관광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중

▫ 또한 '홍대로 문화로 관광으로' 사업을 통해 홍대 앞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대 앞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

— 출판, 디자인 산업 집중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출판과 디자인에 집중한 조례가 제정

▫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협의회 등 홍대 앞 지역을 중심으로 출판,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됨

■ **홍대 앞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활동과 자원들이 존재**

— 생태 자원

▫ 홍대 앞 지역과 인접한 경의선 숲길공원을 비롯하여 상암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노을공원, 평화의 공원, 월드컵공원이 있으며, 한강 주변으로 난지지구 한강시민공원, 서울함 공원이 있음

▫ 홍대 앞의 지역문화가 생태자원들과 연결되는 지점은 미미하나 접점 마련을 통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음(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와의 연계성 고민)

— 마을 생태계 및 주민 공동체

▫ 홍대 앞 인근 지역인 성산동과 망원동을 중심으로 마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염리동과 상암동 등 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지만 홍대 앞 지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성산동과 망원동에 집중)

▫ 대표적으로는 성미산마을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에 특색을 가져오고 있음. 망원동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홍대 앞 지역과는 또 다른 색깔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

■ **마포나루 굿 행사,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상암동 일본군관사, 망원정 터, 서교동 최규하 가옥, 김대중 도서관, 광흥당 등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자원들도 존재하지만 홍대 앞 지역문화와의 접점은 부재하거나 미약함**

② 홍대 앞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토대 중요**

- (유형 분류표를 기준으로)예술기반 민간 주체, 사업·콘텐츠, 시설·공간을 살펴보면 공공이 보유하거나 행하고 있는 자원보다 민간 영역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이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이처럼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이 홍대 앞 지역에 정주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일거리 및 활동 플랫폼이 마련돼야 함

■ **지역문화생태계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홍대 앞의 지역문화생태계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 홍대 앞 지역문화는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예술 공간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이 공간을 소비하기 위한 소비층이 많은 편임
- 물론 예술가 주체들도 존재하지만 홍대 앞에 정주한다기보다 소비층처럼 공간 또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홍대 앞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공연장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타 문화예술 공간의 현황과도 비슷함. 때문에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를 먼저 파악하고 주체가 성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함
- 이를테면 공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사람 중심으로 볼 것인지(사람이라고 했을 때 소비층의 포함 여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콘텐츠 중심으로 볼 것인지 등

■ **안정적 지원 구조 및 전략 수립**

-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징적인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홍대 앞 지역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부재한 상태
- 기존의 정책과 사업은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에게 개별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원받는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가 홍대 앞 지역에 소재만하고 있는지 혹은 홍대 앞 지역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는지 알 수 없음
- 따라서 개별 주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문화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맥락에서 지역 기반의 혹은 지역을 통한 지원이 필요. 이와 같이 정책과 사업의 방향이 전환된다면 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문화생태계의 밀도와 확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홍대 앞 지역문화에 관여하고 있는 (문화)행정기관이 지역문화생태계를 안정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

③ 지역문화생태계로서의 지향 또는 가치체계

-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는 홍대 앞 내부의 거버넌스와 외부의 거버넌스 간의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으며 자율성과 독립성, 예술성이라는 공통의 가치체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
- 거버넌스에는 다장르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 홍대 앞 지역에는 인디음악 중심의 공연장이 많은 편임. 그렇다보니 공간 중심의 생태계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음
- 마포문화재단의 미션이 '창조적 역량'과 '지역발전 및 주민 문화복지 증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작과 향유 기반의 활동과 과제가 배치되어 있음을 예상. 그러나 '지역발전'이라는 표현이 지역의 어떠한 것을 발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발전했으면 하는 지역의 상이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과제가 있음

‹그림25› 마포문화재단 비전/미션

MISSION	VISION	CORE VALUE
창조적 역량과 소통 공감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문화복지 증대	지역의 미래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	**창조** | CREATION **도전** | CHALLENGE **소통** | COMMUNICATION

4대 목표와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예술 경영 시스템 구축	독창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자원 생태계 활성화	사회공헌 서비스 확대
· 창의적 조직 시스템 구축 ·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공연관광 콘텐츠로 특성화	·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 · 지역문화 자원 통합 네트워크 조성	· 구민 문화충전 기회 확대 · 문화 나눔 활성화

3-3-3) 소결 :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

■ **복합성과 다양성의 홍대 앞 지역문화**

- 문화산업 기반의 (인디)음악 생태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긴 하지만 축제와 출판 및 디자인, 미술, 공연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존재
- 다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이 서로 교류하거나 융합되는 등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예술이 교류하거나 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혹은 각자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홍대 앞의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함

■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주체들의 확장성**

- 홍대 앞 지역문화를 보전하고 홍대 앞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주체)이 존재함. 홍대 앞 지역문화 의제 관련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과 현장 활동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을 통한 주체들의 활동이나 거버넌스가 작동은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문화생태계에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함
- 또한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주체들은 홍대 앞 지역에만 정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대 앞 지역 바깥으로까지 지역문화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문화 및 관광 산업과 지역문화와의 관계 설정**

- 홍대 앞이라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 산업에 따라 다채로운 지역문화가 공존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적 측면으로 형성된 지역문화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기도 하여 생태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때문에 지역 기반의 산업 환경들이 생태계와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임

3-4) 문래

3-4-1) 생태계 구조 분석

① 활동 영역(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 **예술기반**

- 문래 지역은 민간 중심의 다장르 문화예술 공간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또한 '문래'라는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한 축제와 행사가 존재.(이를테면, '문래창작촌'이라는 명칭을 통해 특정 장르 중심이 아닌 창작과 예술활동이 지역과 통합되었다는 인상)
- 문래예술공장,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예술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결하는 시설이 존재하며 인근에는 문화예술 복합거점 시설과 문화발전소 등이 설립 예정
- 문래 지역에 특화된 제도적 정책이나 사업은 부재. 그러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과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지역예술협력 사업 등을 통해 문래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문화교육**

- 문래 지역 내에서는 문화교육과 관련한 시설·사업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 그러나 예술가와 민간 문화예술 공간이 상당수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
- 제도에서 수립한 사업에는 평생학습, 성인문해교육, 혁신교육지구, 영등포 마을대학 등이 있음. 문래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영등포구 내에서 문화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문래 지역과 향후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문래 인근 지역에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예정)
- 평생학습관, 청소년센터, 창의예술교육센터 등의 문화교육 시설이 문래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문래에 정주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떤 형태로 문화교육 시설과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 **사회적 경제**

- 문래 지역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이 존재하며 문래의 지역문화 조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
- 문화예술과 관련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눈에 띄지만 문래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소재지만 문래 지역일 가능성도 있음

■ **생활문화**

- 영등포 시민예술단, 영등포 생활문화 기록학교, 영등포문화재단 생활예술 지원사업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화 사업들이 수립·집행 되고 있음
- 영등포구 내 주요 도서관 외에 추가로 공공복합건물과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 또한 40여개의 공·사립 작은 도서관이 존재하므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문래 지역은 창작자 중심의 시설과 공간이 다수인데 반해 생활문화 관련 인프라는 부재한 상태. 때문에 문래 지역에 생활문화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면 어떤 맥락과 접점이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

■ **역사문화**

- 준공업 지역인 문래는 그 자체로 역사문화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음. 실제로 영등포구청에서는 문래의 준공업 지역을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기도 함
- 문래 지역에 유적이나 물질적인 역사 자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영등포구 자체에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와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 보존과 가치를 알리고 있음
- 그 외 역사문화와 문래 지역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움

② 구성요소(주체, 제도·법, 사업·콘텐츠, 시설·공간, 협력체계)

■ **주체(공공,민간)**

- 문래 지역문화와 관련한 주요 공공 주체로는 대표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구청의 문화체육과, 미래교육과, 사회적경제과 등이 있음
-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지원 사업단도 영등포 지역문화에 연관이 있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에 보다 더 특화되어 있음
- 예술기반 민간 주체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민간 주체들, 영등포문화재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구청의 담당과들은 어떤 형태로 문래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가 보이지 않음

■ **제도·법**

- 영등포구 또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례'임(건립 예정 중인 문화시설을 감안하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을 지역 내에서 도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음

■ **사업·콘텐츠**

- '문래'라는 지역의 명칭을 활용한 축제와 행사들이 존재. '문래창작촌'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의 특징과 특성을 브랜딩하는 모습이 엿보임
- 영등포구 내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문래인데 문래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은 부재한 상태
- 영등포구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다수 개최됨(자치구, 서울시, 전국 단위 축제 및 행사)

■ **시설·공간(공공,민간)**

- 공공과 민간은 다수의 문화예술 시설·공간을 가지고 있음. 각 시설과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음(ex. 공간 네트워크, 공간 현황 정보 플랫폼 등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음)
- 해당 시설·공간은 특정 장르(공연장, 전시장 등)에 집중되어 있기보다 예술가, 창작자의 작업실 혹은 융복합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임

■ **협력체계**

- 문래 지역을 중심으로 문래마을예술인회의가 존재하며 문래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쟁점을 공론화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문래마을예술인회의가 문래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표체라면 영등포공유원탁회의는 영등포구 전체를 아우르며 영등포구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 두 대표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표36› 문래 지역문화생태계 주요 현황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공공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영등포문화재단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 영등포 문화재단	· 영등포구청 사회적경제과 ·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 영등포문화재단	· 영등포구청 문화예술과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주체 민간	· 문래마을예술인회의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 극단 몸꼴 · 스페이스 나인 · 레이버241 · 애플비트 · 경계없는 예술센터 · 청색종이 · 스토리 포토 웍스 · 시안아림 · 노니퍼니 · 부루나예술단 · 문래코러스 · 343 소혹성 · 코튼필드 · 윤성희 트리오 · 나무수레 · 극단 민들레	· 하자센터	· (주)안테나 · (주)아주건강한 속삭임 · 협동조합공작소 · 한국미술심리상담사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 예술치유 품 · 주식회사 말하는사람들 ·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 주식회사 보노보씨 · 주식회사 샐러드 · 경계없는예술센터 · 극단민들레 · 에듀케스트라 · 사회적협동조합 연희단팔산대 · 한국관광 협동조합 · 협동조합 서울시민프로축구단 · 경험과상상 문화예술 협동조합	· 대한드론스포츠 협동조합 · 아티산 협동조합 · 서울빛뜰 협동조합 · 써드플레이스 협동조합 · 행복한이벤트를 만드는 협동조합 · 한국요트와보트 협동조합 · 쿰쿰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 들살이문화 협동조합 · 노동문화발전소 협동조합 · 대한가요지도사 협동조합중앙회 · 가이드 협동조합 · 생활체육민속장기 협동조합 외 약 210여개	· 생활문화동아리 102개	· 영등포문화원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제도·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날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
사업·콘텐츠	· 구립, 지역예술단체 지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 N개의 서울 · 구민사랑 열린 음악회 · 서울국제 초단편영화제 개최 지원 · 문화축제 콘텐츠 기획(봄꽃축제, 구민의 날) · 무지개다리사업 · 문화적도시재생사업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 노인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프로젝트 · 지역예술협력 사업 · 문래창작촌예술제 · 헬로우문래 문래맛 · 이야기가 있는 문래목화마을축제	·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 · 영등포혁신교육 지구사업 ·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 영등포 마을대학 운영 사업 ·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사업	·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4개년 기본계획 수립 ·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특화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 · 청년지원플랫폼 조성 · 사회적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사회 정착화 · 영등포문화재단 예술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 유휴, 저활용 건물을 재생한 마을도서관 조성 사업 · 영등포 문화재단 생활예술 지원사업 · 영등포 라키비움 · 영등포 북 페스티벌 · 영등포 시민예술단 · 영등포 생활문화기록학교	· 영등포문화원 육성 지원 · 지역문화행사 및 부군당제 행사지원	· 서울세계불꽃축제 ·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 한강 버스킹 페스티벌 (구.거리공연페스티벌) · 한강 열대야 페스티벌 (구.물빛페스티벌) · 한강 멍때리기 대회 · 서울정원박람회 · 서울안전체험한마당 · 여의도봄꽃축제 · 영등포 단오한마당 축제 · 정월대보름 축제 · 안양천 벚꽃 양평마을 축제 · 신길6동 벚꽃축제 · 도림동 장미마을 축제 · 신오철쭉제 (별별영화축제 대체) · 한울타리 조롱박·수세미축제 · 은모래길 어울한마당 · 영등포 동행 페스티벌 · 선유걷고싶은거리 관광명소화 · 당산 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협치사업 운영지원) ·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및 추진 ·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

	예술기반	문화교육	사회적 경제	생활문화	역사문화	기타
공공	· SeMA벙커 · 문래예술공장 ·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아트홀 · 타임스퀘어내 공공문화복지공간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 예정)공공공지 문화예술 복합거점 · 예정)문화발전소 대선제분 부지	· 창의예술 교육센터 · YDP미래 평생학습관 · 서울시교육청 영등포 평생학습관 ·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센터 · 서울온 드림교육센터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청년건축학교 · 무중력지대-영등포	· 영등포문화재단 영등포아트홀 · 문래정보문화도서관 · 대림정보문화도서관 · 선유정보문화도서관 · 여의디지털도서관 · 라랄라도서관 · MBC부지 도서관 · 서영물류부지 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21개	· 여의도 비행장 역사의터널 · 부군당	· 영등포공원 · 여의도한강공원 · 여의도샛강생태공원 · 여의도공원 · 양화한강공원 · 선유도공원 · 문래공원 · 안양천시민공원 · 앙카라공원
시설·공간 / 민간	· 문래창작촌 · 대안공간 이포 · 갤러리 두들 · 어반아트 게스트하우스 · 플랫픽 · 갤러리치포리 · 아트스페이스세이 · 사진공간빛타래 · 아워몬스터 · YOKKO스튜디오 &주말극장 · 비하인드 윈도우갤러리 · 스페이스문 · 문화인력시장 꼴 · 상상채굴단 · 스페이스 나인 · 예술공간 세이 · 사진문화공간 아지트 · co-rideandtide · Projectroom doosee · Studio S · 옥상텃밭 · 유탄 스튜디오 · 청색종이 · 흰 땅콩 · 그림창고 · 물 스튜디오 · 잠시 집 · 브띠끄빈 · 피스오브피스 · Space T · 재미공작소 · 그림책식당 · 나무수레 공방 · 로코안경공방 · 문래 숲 · 우쿨렐레 파크 · 보노보씨 손공방 · 문래예술공방	· 하자센터		· 문래예술공방 ·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세바퀴 사립작은도서관 20개		
협력체계	· 문래마을 예술인회의 · 영등포공유 원탁회의 · 예정)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 문래마을 예술인회의 · 영등포공유 원탁회의	· 문래마을 예술인회의 · 영등포공유 원탁회의	· 문래마을 예술인회의 · 영등포공유 원탁회의			· 예정)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 예정)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3-4-2) 문래 지역문화생태계의 정체성

① 문래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

■ **문래 이외 지역에서도 지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자원들이 존재**

— 생태자원

- 영등포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과 맞닿아 있으며 그에 따라 수변 생태 자원이 발달되어 있음(여의도한강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여의도공원, 양화한강공원, 선유도공원, 안양천시민공원. 그 외에도 영등포공원, 문래공원, 앙카라공원이 있음)
- 문래 지역은 지리적으로 생태자원과 맞닿아 있진 않지만 문래 지역의 예술창작활동을 수변 생태 자원과 연결시켜볼 수 있음

— 다양한 문화 축제 및 행사

-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하여 여의도 봄꽃축제 등 전국단위 축제가 영등포구에서 개최되며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한강 멍때리기 축제와 같이 이색적인 축제도 개최되고 있음
- 또한 영등포구 내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 축제도 활발하게 열리고 있어 예술기반의 문래 지역문화와는 또 다른 성격의 지역문화가 영등포구 내에 존재함을 알 수 있음

② 문래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 **지역 기반의 활동 플랫폼 구축**

- 문래 지역은 준공업과 문화예술이 교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영역이 교차하며 '문래창작촌'이라는 활동 플랫폼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음
- 오히려 현재까지는 공적 지원과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문래 지역에 창작 공간들과 문화예술 주체들이 모여들어 이와 같은 활동 플랫폼이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음
- 시사점은 민간 주체들의 자생적 활동에 의해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 플랫폼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물리적·경제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의 전략이 필요함

■ **영등포 도시계획과의 접점 마련**

- 문화도시 및 도시계획 조례와 실제로 실행예정인 도시재생 계획에 비춰 영등포구의 문화적 흐름과 지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추정
- 특히 공공공지 문화예술 복합거점과 문화발전소와 같이,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도시재생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예술기반 영역이 활발한 문래 지역과의 연계성 전략이 필요
- 우려 지점은 문화적 기반과 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지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확률도 높음
- 이에 대해 행정기관과 지역문화 주체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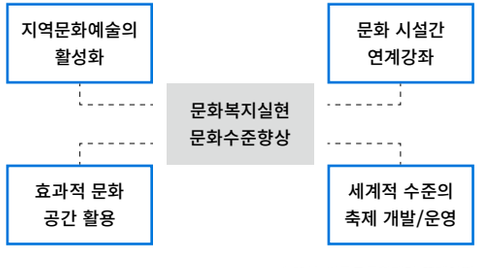
■ **새로운 주체들과 기존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이 중요**

- 문래 지역의 문화 특징은 예술기반 창작 활동 영역의 민간 주체들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에 있음
- 기존의 특징대로 예술기반 주체들에 대한 발굴을 지속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새로운 영역의 주체들을 발굴하여 기존의 주체들과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
- 자칫 특정 영역으로 편중되어 폐쇄적인 생태계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있음

③ 지역문화생태계로서의 지향 또는 가치체계

- 문래 지역은 기술 생산체계의 특징인 "협력성"과 예술의 특징인 "자율성·예술성"이 공존하고 있음. 이러한 공존의 배경에는 준공업 지역의 특이성을 예술이 협력 관계(지역, 역사, 사람, 재료 등)로 인식하고 접근하면서부터 변화하게 됨
- 또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기 전부터 마을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생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반면 오늘날에는 문래 지역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부재하기 때문에 문래 지역문화의 특징과 특성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보전하고 제고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영등포문화재단의 비전에서 "문화복지실현과 문화수준향상"라는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지역문화의 다양한 생태계를 염두하고 있다기보다 "문화 향유자" 및 "문화 소비자"를 중심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음(대신 4가지 세부 비전에서는 생태계적 관점이 엿보이기도 함)

‹그림26› 영등포문화재단 비전



* 출처: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3-4-3) 소결 : 문래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징

■ **가능성과 확장성의 문래 지역문화**

▫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한 영등포문화재단의 적극성과 문래 지역 주변의 문화예술 시설 설립 등을 통해 문래 지역문화의 특징이 보다 선명해지고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

▫ 문래 인접 지역이면서 이미 특색 있는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 당산과 양평으로까지 문래 지역문화의 특징이 확장될 것이라 예상. 또한 문화예술 시설 설립 구역과도 연결되면서 영등포구 내 문화예술 벨트 형성에 기여

■ **이질적인 영역(기술과 예술) 간의 동질성을 포착**

▫ 문래 지역은 준공업 시설과 예술 기반의 창작 공간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각기 서로 다른 성격의 영역이지만 대척점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있다는 인상임

▫ 경쟁력과 차별성을 전제하였을 때, 이와 같은 특징이 문래 지역만의 강점이라 할 수 있음

■ **문래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 문래마을예술인회의와 영등포공유원탁회의를 통해 문래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지역문화 활동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음

▫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구조와 문래 지역 기반의 활동이, 정책이나 사업을 지원만 하는 형태를 넘어서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해 민과 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 그로 인해,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해 주체들이 정책과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가져오게 함

3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

1)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유형화의 방향

■ **정량적 기준에 따른 계량화가 아닌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따른 특징 파악**

— 지역문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 등에서 주되게 사용된 분석 방식은 지역문화의 각각의 요소를 수치화 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문화실태조사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

— 이와 같은 정량적 접근은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거나 지역 간 비교라는 측면에선 분명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나 지역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생태계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냄

— 아래의 표는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지역문화 지수 값으로 서울시 자치구들의 순위를 정한 것으로, 정량적인 값을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37› 서울특별시 대상 전국 지역문화 종합지수 순위(상위10개)

순위	기초자치단체명	지수 값
1	서울 종로구	1.2435
2	서울 마포구	0.7252
3	서울 성북구	0.7077
4	서울 은평구	0.4142
5	서울 중구	0.3226
6	서울 서초구	0.2757
7	서울 영등포구	0.2734
8	서울 광진구	0.2213
9	서울 관악구	0.1107
10	서울 성동구	0.0902

* 출처: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 종로구가 지수 값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주되게는 활동지수, 향유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이는 국립, 시립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 지역의 광역성이나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구대비 향유 프로그램의 수가 많다는 특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

— 앞서 중구 지역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도심권 지역의 경우 지역문화생태계로서의 특징 보다는 서울의 광역생태계로서 시설, 자원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Local)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하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문화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량화 된 개별 지표들의 측정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원리, 그리고 각 영역 활동의 맥락이 충분히 고려 될 필요가 있음

■ **가치 지향으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와 이에 따른 과제 도출**

—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래 중앙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이 주류를 이뤄왔으며 지역문화 역시 행정 중심의 구획과 계열화를 통해 구조화 되어 왔음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문화기본법의 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수직계열화 된 지역문화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역문화 현장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를 재개념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문화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함은 기존의 중앙정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전달체계 안에서 지역문화를 일종의 하부단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순환체계로서 지역문화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지역문화생태계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요소와 활동의 결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종의 벡터로서의 성격을 가짐

— 즉 지역문화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함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한 가치 지향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 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통의 가치체계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때문에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는 지역문화의 현상태에 대한 결과론적 분석이 아닌 변화의 방향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의제설정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활동 영역의 연결원리에 따른 접근

— 지역문화생태계는 지역문화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인 맥락에서부터 구성요소 간의 다양한 결합, 활동 영역의 확장 등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만들어 냄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요소들의 정량적 측정으로는 각 요소들의 총합으로서만 지역문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짐

— 가령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체의 정량적 지수만으로 지역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주체들이 제도나 공간, 사업과 연결되는 방식과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특징적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이 활동들은 다시금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성장 또는 소멸에 영향을 주기도 함

— 때문에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활동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지가 지역문화생태계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생태계가 복제 불가능한 개별적 특성을 갖는 것에 반해 보편적 가치체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

— 이 공통의 가치체계 역시 지역문화생태계 내에서 균일한 힘과 방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로서의 지역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문화생태계를 유형화 하고자 함

2) 유형 구분

2-1) 유형 구분의 범주

① 문화민주주의

— 문화민주주의는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의 방식, 혹은 생태계가 변화하는 방향의 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작동하는가를 설명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음. 이 과정은 주체화의 과정인 동시에 문화정책 담론의 확장과 궤를 같이함

— 정책영역에서의 문화민주주의 담론은 주체로서의 시민이 문화와 예술에 접근하는 방식을 주되게 다루고 있으나, 이를 생태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공공을 통해 공급되는 문화와 예술을 시민이 어떤 방식으로 향유할 것인가에서 시민 스스로가 문화와 예술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로 변화해온 문화민주주의 담론은 어떠한 주체들이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성하고 그 힘과 방향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함

— 또한 주체와 제도, 사업, 공간 등이 결합되는 과정에 있어 문화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문화생태계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

② 문화다양성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 지역문화의 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별도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표준화 될 수 없는 지역문화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문화정책 안에서 문화다양성은 여전히 ‘다문화’ 중심으로만 이해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문화적 표현의 권리와 생산과 향유 과정에서의 다양성이란 맥락은 잘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 자체의 내용과 성격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통한 시민적 권리(문화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그 표현과 참여의 방식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③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은 최근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혁신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 논의는 대안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음

—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진흥 정책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 생태계적 관점에서 지역문화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가능성이란 가치를 피해갈 수 없는데 이는 생태계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의 작용과 기능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유의 특성을 갖기 때문

— 현재 문화정책의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한계적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즉 현재의 활동이 이어지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이라 볼 수 있음

— 때문에 지역문화생태계를 유형화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은 지역문화 활동이 펼쳐지는 물적 토대와 주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음

2-2) 각 범주에 따른 유형모델

‹표 38›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 분류

구분	유형	핵심요소
문화 민주주의	행정주도형	주체(민간, 공공), 제도·법, 사업·콘텐츠, 시설·공간, 협력체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형	
문화 다양성	예술창작형	주체(민간, 공공), 사업·콘텐츠, 시설·공간, 활동영역
	생활문화형	
	지역문화기반형	
지속 가능성	문화경제 (산업, 관광)형	주체(민간, 공공), 제도·법, 사업·콘텐츠, 시설·공간, 사회적 경제(문화산업), 역사문화
	공공정책형	
	지역균형발전형	

① 문화민주주의

■ 행정주도형

— 지역문화생태계 내 주요 정책과 사업 등이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 행정 중심으로 구조화 된 유형

— 민간주체의 경우 지원사업이나 용역 등을 통해 지역문화생태계 내 활동에 참여

■ 민간주도형

— 민간주체의 자생적 활동을 바탕으로 활동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된 유형

—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은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생태계 외곽에 존재

■ 거버넌스형

—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의 협력구조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가 형성된 유형

— 공공의 주요 정책, 사업의 결정 구조에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거나, 행정의 책임과 권한이 민간으로 일정 부분 이전

② 문화다양성

■ 예술창작형

— 예술기반 활동을 주축으로 예술활동 주체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 지역문화생태계 내 주요 정책, 제도, 공간 등도 예술 창작 중심으로 구조화

■ 생활문화형

— 문화교육, 생활문화 활동 등 시민의 참여와 향유 중심으로 지역문화생태계가 구조화 된 유형

—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요 사업과 활동들도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과 지역 시민사회 활동의 맥락에서 형성

■ 지역문화기반형

—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가치지향을 바탕으로 예술창작과 생활문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유형

—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반한 문화와 예술의 재개념화

③ 지속가능성

■ 문화경제(산업, 관광)형

— 민간 주체의 예술기반 사회적 경제 영역, 문화산업 기반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성화 된 유형

— 예술기반의 창업과 다양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

■ 공공정책형

— 공공지원과 일자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활동 모델이 만들어진 유형

— 뉴딜 사업형의 문화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담보

■ 지역균형발전형

— 공공성에 기반한 예술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민간 영역에 대한 행정의 직접 투자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유형

— 지역 내 경제적 순환구조가 지역문화생태계의 맥락에서 형성

3) 서울 주요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 분석

3-1) 성북

‹표39› 성북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행정주도형	예술창작형	문화경제 (산업, 관광)형
민간주도형	**생활문화형**	**공공정책형**
거버넌스형	지역문화기반형	지역균형발전형

■ **거버넌스형**

— 성북 지역은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문화재단의 강력한 거버넌스가 지역문화생태계의 전체적인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협력구조가 각각의 활동 영역에서 작동

■ **생활문화형**

— 성북은 대학로의 배후지역으로 서울의 자치구 중 마포구 다음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예술활동의 전략과 마을활동에 대한 자치구의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예술창작 자체 보다는 생활문화 중심의 활동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활문화는 동아리나 동호회 중심의 생활문화와는 다른 생활권 기반의 주민주도형 예술활동의 성격을 가짐

■ **공공정책형**

— 성북 지역은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

— 지역문화생태계 안의 상당수의 주체들이 공공의 뉴딜형 일자리나 지원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에 의존

3-2) 중구

‹표40› 중구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행정주도형	**예술창작형**	**문화경제 (산업, 관광)형**
민간주도형	생활문화형	공공정책형
거버넌스형	지역문화기반형	지역균형발전형

■ **행정주도형**

— 중구 지역은 오랫동안 광역의 문화생태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기반의 독립적인 민간주체들이 형성되어 오지 못함

—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가고 있음

— 이를 통해 중구문화예술거버넌스와 같은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나 아직은 거버넌스 기구라기 보다는 느슨한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함

■ **예술창작형**

—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거주인구가 적은 편에 속하며, 상대적으로 광역 창작공간이 집중되어 있어 생활문화 보다는 예술창작에 특화된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되어 옴

—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역 주체들의 경우도 창작공간에 기반한 예술창작 주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문화경제(산업, 관광)형**

— 중구 지역은 전통적으로 연극, 대중음악, 관광으로 이어지는 시장이 문화 기반 경제활동의 중심을 차지해 옴

— 최근에는 도시재생의 흐름과 맞물려 대안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민간주체 중심의 시장과 전통적인 문화관련 산업 업종 종사자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음

3-3) 홍대 앞

‹표41›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행정주도형	**예술창작형**	**문화경제 (산업, 관광)형**
민간주도형	생활문화형	공공정책형
거버넌스형	지역문화기반형	지역균형발전형

■ **민간주도형**

— 홍대 앞은 서울의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지역문화생태계로 지역문화 정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홍대 출신의 미술전공자와 신촌에서 이주해온 대중음악인들이 독립적인 예술생태계를 만들어 옴

— 특히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는 행정적 구획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왔으며, 오히려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확대되면서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가 가속화 되는 경향을 보여줌

■ **예술창작형**

— 홍대 앞 지역문화생태계는 시각예술과 대중음악의 두 축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비예술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창작활동이 주된 지역문화 활동의 핵심을 차지해 옴

— 최근 서교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립 계획 등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당분간은 예술창작 중심의 생태계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문화경제(산업, 관광)형**

— 홍대 앞 지역은 예술창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는 대안공간, 제작샵, 디자인, 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옴

— 이러한 지역문화생태계의 독특한 환경은 관광자원 형태로도 개발되어 왔으며 홍대 앞 지역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이러한 상업화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역문화생태계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

3-4) 문래

‹표42› 문래 지역문화생태계 유형

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행정주도형	예술창작형	문화경제 (산업, 관광)형
민간주도형	생활문화형	공공정책형
거버넌스형	지역문화기반형	지역균형발전형

■ **거버넌스형**

— 초기 문래 지역은 홍대 앞과 같은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문화생태계에서 밀려난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문래동 철공소 지역에 이주하면서 형성되었고 홍대 앞처럼 민간주도형 생태계의 특징을 가졌음

— 그러나 문래 지역에 형성된 이 독특한 생태계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행정과 민간의 접점이 점차 확대됨

— 이는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거버넌스 중심의 협력구조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영등포문화재단과 문래 지역의 민간주체 간 거버넌스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예술창작형**

— 문래 지역은 소규모 철공소들이 밀집해 있던 공간으로 거주인구의 특성상 생활문화 기반의 활동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

— 생태계 형성 과정에서도 창작공간의 확보라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이주해 온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술창작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음

■ **지역균형발전형**

— 문래 지역은 창작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활동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 활동도 같이 이루어 짐

— 쇠락해 가는 도심 공업지역에 형성된 지역문화생태계라는 특징은 독특한 문화경제 환경을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영등포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조 활성화 등의 공공정책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음

4 소결

■ **지역문화생태계 분석의 의미**

— 지역문화를 분석하는 많은 조사와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지표를 설정하여 객관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론 중심의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접근은 지역문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맥락과 그것이 축적되어온 시간, 이로부터 생겨난 공통의 감각들을 제거한 채 형식적 틀로서만 지역문화생태계를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함

—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의 틀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맥락을 읽어내는 해석의 과정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필요

— 때문에 지역문화생태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각각의 요소와 활동영역들을 대상화하고 수치화하기 보다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

■ **지역문화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문화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기 보다는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항상 새롭게 설정됨

— 때문에 각각의 지역문화생태계들은 복제되지 않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으로 나타남. 이는 각각의 지역문화생태계가 발전단계로 구분될 수 없으며, 상호비교를 통해 어느 한쪽이 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

—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화정책 내에서는 항상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일종의 Ideal-type을 설정하려 노력해 왔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왔음

— 지역문화생태계는 일정한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고정된 시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축적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와 의제도출**

—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는 현재의 상태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

—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화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점들을 만들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의제가 도출 될 때 의미가 있음

—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지역문화생태계의 유형은 고정된 값이 아닌 지역문화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변수로서의 의미가 강함

■ **공통의 가치체계와**
지역문화생태계의 미래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생태계가
각 구성요소 간의 결합과 활동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우연적인
결합이 아닌 결합원리로서 일련의
가치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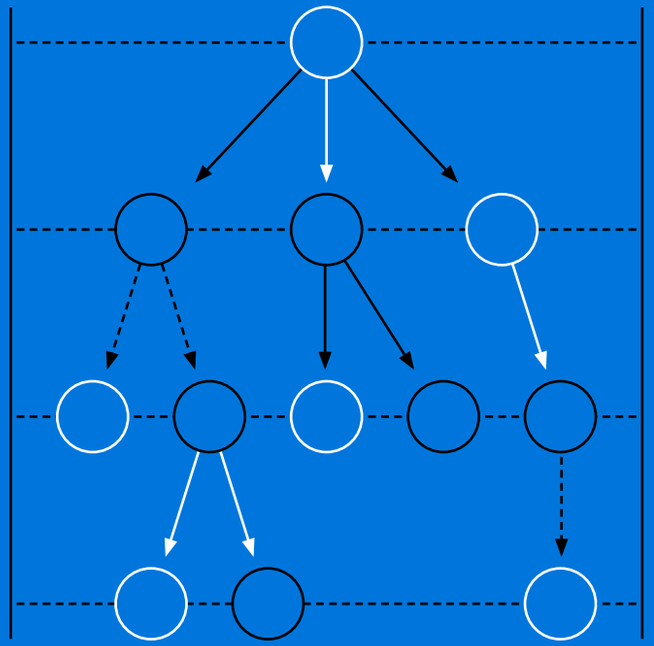
– 이 가치체계 역시도 지역문화가
형성 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값으로 존재한다고 보진 않음.
이 가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문화생태계의 결합 원리로서
가치체계가 작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의 과정이
지역문화생태계를 실체로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란 결국
이 가치체계를 지역 내에서 작동시키는
공론과 합의의 구조를 만들어 낼 때 가능

VI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개념화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의 지리적 범위와 경계를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음

- 현대 사회에서 지역문화는 '지방'이라는 상대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자율과 분권의 가치에 기초한 새로운 문화적 관점으로 접근돼야 함

- 지역문화는 지구화(glocalization), 도시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공통의 정체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삶과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가치이자 원리로서의 '로컬리티'(지역성)"로 이해돼야 함

- 지역문화 생태계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역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특정한 가치체계와 참여주체의 활동,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재개념화 돼야 함

2) '삶과 커뮤니티의 생태계'를 위한 정책 범주화

- 맹목적인 개발과 성장이라는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지역과 지역문화를 경쟁과 이권을 위한 사업지로 대상화해 왔음

-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사회적 관계와 커뮤니티의 복원, 삶의 전환과 도시의 재생 등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 새로운 지역문화 정책은 맹목적인 개발과 경쟁을 위해 지역사회를 대상화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삶과 커뮤니티를 둘러싼 지역 내 생태계적 가치와 관계를 능동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영역"으로 이해돼야 함

- 생태계 관점의 접근은 구성요소와 조건의 상호적인 작용을 관계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기존 장르 중심, 지원사업 중심, 작품 중심 등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이고 협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지평을 열어줄 것

3) 시민 주도적 협치(거버넌스) 환경으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

- 현재까지의 지역문화 정책은 행정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사업 공급을 반복하였으며, 지역문화생태계의 현황이나 필요와는 무관한 일방적이고 관료화된 사업을 반복해 왔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성과 의사결정권이 “중앙 정부보다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이행돼야 함

- 현재의 행정 전달체계와 사업 공급 중심의 지역문화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 사업을 “시민 주도적 협치(거버넌스) 환경으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으로 재설정해야 함

- 행정구역 중심의 정책 공급에서 생활권 중심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제도 혁신. 해당 지역의 고유한 문화성 및 생활문화 기반이 행정 차원의 문화자치와 맞물리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정책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것이 중요함. 지역문화생태계는 지역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어떻게 주체들의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인지”가 정책과 제도 수립의 핵심 요소

4) 문화적 가치를 확대하고 연결하는 사회적 장(field)으로서의 지역문화 생태계

- 지금까지 지역문화 정책은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접근해 왔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은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거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나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본질적이고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지역문화생태계의 차원에서 문화·예술은 좁은 의미의 문화사업, 업종이나 장르로서의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연계하는 사회적 층위로 접근돼야 함

- 이런 맥락에서 기존 공급형, 단일 사업구조로서의 지역문화, 역사문화, 생활문화,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문화도시, 관광, 축제,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이 지역문화 생태계의 통합성, 연계성 차원에서 재구성 돼야 함

5) 기후위기와 포스트휴먼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지역문화생태계 정책

- 지구 온난화, 슈퍼바이러스(코로나19) 창궐, 미세먼지 일상화 등 기후위기와 재난사회가 일반화된 시대. 인간의 편리함과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고도 성장해온 삶의 방식(생산양식)을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지역문화생태계 중요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명의 차원에서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포스트휴먼 시대가 제기되고 있음. 앞으로의 지역문화 정책은 인간의 삶은 물론 생물적, 비생물적, 비인간 (Non Human Being) 존재를 고려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한 정책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류세(자본세)와 생태위기, 반려동물과 동물권, 유전자·나노·로봇(GNR) 기술혁명과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사회적 의제들은 지역문화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과거의 인간 중심적 세계로 제한되지 않으며, 다가올 미래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지역문화생태계 정책은 삶의 전환, 지역의 생산양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기후위기와 포스트휴먼 시대를 고려하고 준비하는 정책 수립 필요

2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서울시의 지역문화 정책 담당 부처 설치

— 현재 서울시 행정에는 지역문화 정책을 담당하고 기획조정 할 부처가 부재한 상황

— 서울시 자체의 지역성(“지역으로서의 서울”), 서울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분권 등이 강화되고 있는 정책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담당 부처 설치

—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내에 (가칭)지역문화생태계팀 설치

— 서울시의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조율, 서울 내 다양한 지역문화 생태계들 사이의 거버넌스 활성화,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과 타 분야 지역정책 사이의 연계성 강화 등

■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생태계 거버넌스 체계 수립

— 민선5기 이후 서울시 정책(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도시재생 등) 방향에 따라 다양하고 꾸준하게 형성된 도심 내 지역문화 주체들과의 정책·사업 협력 필요

— 최근 급격하게 확산된 서울 내 기초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 광역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정책·사업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협치) 체계 필요

— 서울문화재단 내에 상설 거버넌스 구조로 (가칭)서울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서울시 지역문화생태계팀,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생활문화팀, 기초문화재단, 민간 지역문화거버넌스 주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협의, 각종 지역문화·생활문화 관련 사업 체계 구축 및 협력,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연구조사 활동, 각종 공론장(공론화) 운영 등 진행

■ 지역문화 관련 서울시 법제도 기반 강화

—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 중에서 지역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며, 전반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

— 현행 서울시 자치법규 중에서 문화정책의 모법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문화 정책과 지역문화생태계 지원·협력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강화 : 지역문화 관련 ‘장’을 추가하고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내용 명문화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조례) 개선방안 연구’ 필요

2)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실태조사와 지표체계 전문화

■ 서울의 지역문화 실태조사 활성화 및 전문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로드맵 마련하고 지역문화격차를 비롯하여 지역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 추진

— 지역문화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문화의 현황과 변화 등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가 필요

— 현재 정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문화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전문화,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서울 내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로드맵 마련

— 서울 내 지역문화격차를 비롯하여 지역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표 개발 및 데이터 관리 : 서울시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현재의 최소화, 형식화된 지역문화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서 지역문화 실태조사 구조화

■ 서울시 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 지표 체계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

—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칭)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minimum list)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모든 지역이 최소 기준 이상에 도달 할 수 있는 관리 지원체계 추진

— 서울의 25개구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가칭)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 : 중장기 지역문화생태계 정책의 방향과 목표 객관화

— 서울 내 25개 자치구별로 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으로 서울 내 모든 지역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및 지원

— 서울시 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 지표 관리를 통해 지역문화격차를 최소화

—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운용

— 최소 기준 지표 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구성요소(주체, 시설·공간, 사업·콘텐츠, 협력체계, 법제도 외), 활동영역(예술기반, 역사문화,

문화교육, 생활문화, 사회적 경제 외), 가치체계와 지향(문화민주주의,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외) 등을 반영하여 지역문화격차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전반의 활성화 유도

3) 자율과 분권의 가치에 기초한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협력체계 수립

■ 지역문화생태계와 시민력 활성화에 기초한 정책 수립 및 지원 체계 정비

— 현장·당사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 및 협치 구조 마련 : '생활권 현장 › 전문기관·지원기관 › 기초지방자치단체 › 광역지방자치단체 › 중앙 정부(기획재정부)'로 지역문화생태계의 자기 결정권과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 시급

—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협치) 과정 중심으로 지역문화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행정·제도 개혁 추진

■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형 협력체계 구축

— 현행 중앙 중심의 위계적인 전달체계를 자율과 분권에 기초한 거버넌스형 협력체계로 혁신

— 서울시 뿐 만이 아니라 중앙 정부(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사이의 정책·사업 협의 채널 제도화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사이의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협약(3년 단위) 체결 및 집행

— 지역분권 및 문화협치 원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사이의 '(가칭)서울형 지역문화행정협력체계' 모델 수립

■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공공기관(전문기관) 사이의 역할 조정 및 협력 강화

—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 서울시 문화·예술 전문기관, 25개 자치구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사이의 사회적 역할 조정 및 협력 강화

— 중앙 집중적이고 전달체계 중심의 역할 분담 전면 개편

[중앙 정부] 지역문화 관련 국가 단위 전략 수립, R&D, 부처간 통합(융합) 정책 및 사업 조율, 국가간 교류 및 협력 등

[서울시] 도시 단위 전략 수립, 25개 자치구 협력형 정책 개발 및 R&D, 25개 자치구 통합(융합) 정책 및 사업 조율,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등

[25개 자치구] 생활권 정책 및 사업 계획수립과 집행, 자치구별 협치형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및 지원, 지역화와 생활 현장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 활성화 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경우 직접 사업이나 사업 분배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 전략 수립, 국가 단위 R&D, 정부 내 타 영역과의 횡단(크로스 커팅 이슈) 정책 및 사업, 국가 간 교류와 협력 등 플랫폼 역할 강화

— 지역별 전달, 분배형 사업들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책임과 권한 이행

—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 서울시 문화·예술 전문기관 내에 지역 및 현장 협력형 논의구조 제도화

4)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정책 마련

■ 지역문화생태계 정책에 기초한 지역문화 재정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 서울시 문화예산 중에서 (가칭)지역문화생태계 다양성 예산 쿼터제 도입 : 지역문화생태계의 필요와 협의를 통한 재원 배정 제도

—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예산 배정, 서울시의회의 지역주의 경쟁구조를 통한 예산 확보 관행 등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예측가능한) 지역문화 재정 운용 시스템 필요

—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의를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사업·예산의 기획과 운용 추진

— 서울시 문화예산의 지역문화생태계 재정 확보 및 운영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필요 : 지역문화 관련 예산의 실태 파악과 운용 정책 수립 연구

■ 국비 지방비 매칭형 정책사업 추진 방식 전면 개혁

— 중앙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 결정과 예산 매칭형 사업 구조 혁신

— 지역별 사업의 고유성, 차별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 개혁 : "지역(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중앙(중앙 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이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전환

■ 중장기적, 협력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정책 및 제도 지원

— 개별 사업화된 재정 지원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문화 정책 및 제도 마련

— 지역문화생태계 환경 조성, 지역 간 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재정 사업 운용

— 앞서 언급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단위 문화·예술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예술 전문기관 사이의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협약(3년 단위) 체결 및 집행

5)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이성, 통합성, 협력성을 고려한 원리사업 기획·추진

■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5개 자치구 간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성, 연계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

— 서울 내 25개구의 지역별 지역문화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사이의 지역문화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이 확보돼야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가 형성되고 활성화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칭)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은 '지역문화격차 해소', '지역과 지역 사이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지역과 지역 사이의 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한 중장기 사업 체계 구축', '문화협치에 기반한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수립

— 인근 지역 사이의 경쟁 중심적인 지역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성과 협력적 가치를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거점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화**

— 문화예술인이 밀집해서 활동하며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거점 지역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적 지원정책 수립 필요

— 홍대 앞, 문래동, 대학로 등 지역문화 생태계 거점 지역들은 역사적 궤적을 통해 축적된 도시의 소중한 자원

— 지역문화생태계 거점 지역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구조 속에서 꾸준하게 변화하고 축적된 생태계이자 서로 연결된 장소성과 기능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문화 공유지(커먼즈)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문화다양성, 집단적 창의성 등을 내재하고 있는 거점 지역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 필요

—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의 질적, 양적 확대 필요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해당 기초문화재단, 민간 주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예술활동 거점지역 사업추진단'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사업 모색

■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핵심 원리 사업의 운영 방식 혁신**

— '창작과 생활이 분리된 지원 구조'를 '창작과 생활이 통합된 지원 구조'로 전환

— '단년도 예산지원 구조'를 '다년간 예산지원 구조'로 전환 : 지역문화 관련 계획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구조 만들기

— '창작 결과물 및 작품 중심의 지원 구조'를 '문화예술인 및 단체 대상 포괄적 지원 구조'로 전환

— '맥락 없는 단일트랙 지원 구조'를 '경력 및 생애주기별 지원 구조' 및 '지역 및 생활권별 지원 구조'로 전환

6) 지역문화생태계 기반형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 지역문화생태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 지역문화생태계 내 주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유사 표현 분야별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 작품 활동의 지속성을 위한 평생교육, 유통 판매를 통한 재생산구조 확보, 협력을 위한 공론장 형성, 안정적 작품 준비공간과 발표공간 운영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계획과 운영을 예술가들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환경조성 지원

— 도시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의 역할 확대 : 재난사회, 위험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단절과 고립감 그리고 이로 인해 내재된 폭력성과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교육과 협동, 공동체와 함께 완성해가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호명과 역할 부여

— 지역문화생태계 내에서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성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등 공공 정책·사업에 참여할 있는 수준의 문화예술분야 단체들의 규모화와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

■ **지역문화생태계 기반형 예술분야 창업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문화예술분야 취·창업 준비자를 위한 단계별 컨설팅과 지원 및 매니지먼트

— 취·창업을 준비하는 예술분야 전공자나 작가들을 위해 관련 분야에 밝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예술창업보육협동조합의 필요

— 최장 2년 간 사업개발, 비즈니스 개시, 수익창출 등 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이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을 보장(프랑스 문화예술 창업보육협동조합 모델 참조)

— 비즈니스 개시 단계부터는 프리랜서 작업자들을 위한 회계, 행정, 계약, 작품판매 등을 대행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수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거버넌스 구성과 시범사업 실시 등 필요

■ **지역문화 연계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제도화**

— 지역문화생태계 내에서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 옥상문화공간 등 장르 특성화된 공공문화시설의 해당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제도화 추진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성과 운영안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문화예술전문 공공시설을 해당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에 운영을 위탁

— 지역문화생태계와 연계하여 공공문화시설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해당 시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조직이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통해 자생성 확보 및 안정적 발전을 이뤄가도록 함

7) 지역문화 관련 중앙 정부 및 서울시 핵심사업과의 연계성·융합성 강화

■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성 및 융합성 강화**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걸쳐 지역문화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 지역도시를 둘러싼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생태계의 형성, 지역문화격차 해소 등은 도시재생 정책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의 중앙 정부와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은 도시의 또 다른 재개발(개발 트렌드로서의 재생사업),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의 하드웨어 중심 재생사업,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을 뿐 문화적 가치, 삶의 질, 지역문화생태계, 지역 주체와 시민력의 형성, 지역협치(지역거버넌스) 등의 차원에서는 정책적 판단과 접근이 부족

— 본래 도시재생 정책은 유럽의 경우와 같이 "생태, 교육, 문화" 중심의 사업구조를 중요한 원리로 추진하는 도시정책.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하드웨어, 토건 중심의 특성화를 위한 공급형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문화비축기지, 노들섬, 세운상가, 서울로 7017 등에서 새로운 실험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적 재생 혹은 시민 협치형 재생을 위한 법제도 장치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과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협력 사업을 적용해야 함

— 이를 위해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걸쳐 지역문화생태계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필요

■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문화도시, 생활문화, 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등 주요 문화정책사업들이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 생태계 내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결되고 융합될 수 있는 협력체계 필요**

— 개별 정책사업들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생태계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정책사업들을 재구성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형 지역문화 생태계 사업'의 활성화 필요

— 거버넌스형 지역문화 생태계 사업은 각자 진행되고 있지만 상호보완성과 연계성이 높은 문화정책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연결하는 활동을 지원 : 활동 주체(인력 지원), 커뮤니티 기반 상호학습 활동(CoP 지원), 연구조사 활동(리서치, 연구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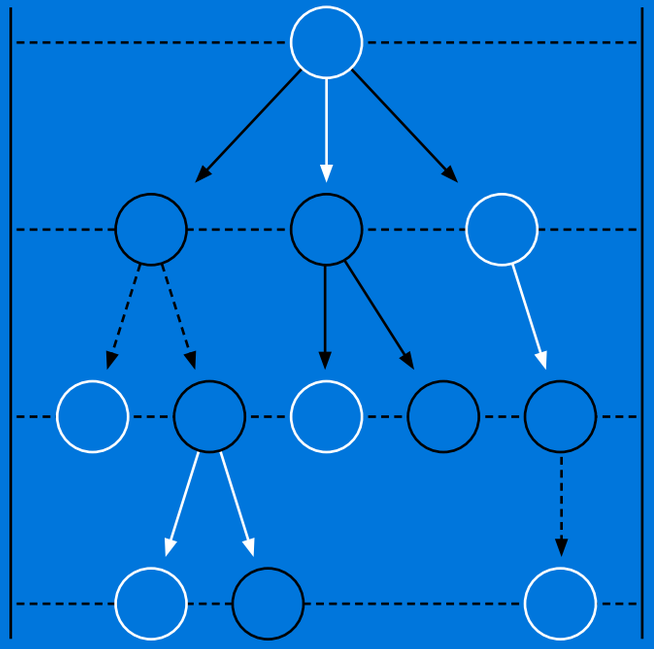
— 지역문화생태계 내에서 개별 문화정책사업 주체들이 활동 과정과 경험들을 네트워킹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론장, 플랫폼 형성 지원

—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화정책사업의 인력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합적, 협력적 운용 체계 수립 필요 : 지역문화 생태계의 차원에서 역할, 전문성, 지속성과 성장 경로, 노동 환경, 협력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

‹표43›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서울시의 지역문화 정책 담당 부처 설치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생태계 거버넌스 체계 수립
지역문화 관련 서울시 법제도 기반 강화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개정 ·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실태조사와 지표체계 전문화
서울의 지역문화 실태조사 활성화 및 전문화 · 지역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지표 개발 및 데이터 관리 · 빅데이터 시스템으로서 지속적인 지역문화 실태조사
(가칭)서울시 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 지표 체계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실태조사와 지표체계 전문화
지역문화생태계와 시민력 활성화에 기초한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정비 · 지역문화생태계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문화 지원체계 전면 개편 및 행정·제도 개혁
지역문화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형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지역문화전문기관 사이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중기협약 체결 및 집행 · '(가칭)서울형 지역문화행정협력체계' 모델 수립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공공기관(전문기관) 사이의 역할 조정 및 협력 강화 · [중앙정부] 지역문화 관련 국가 단위 전략 수립, R&D, 부처간 통합 정책 등 · [서울시] 도시단위 전략 수립, 자치구 통합 정책 및 사업 조율 등 · [자치구] 생활권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자치구별 협치형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및 지원 등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정책 마련
지역문화생태계 정책에 기초한 지역문화 재정 확보 및 지원 체계 마련 · 서울시 문화예산 중 (가칭)지역문화생태계 다양성 예산 쿼터제 도입 · 지역문화 관련 예산의 실태 파악과 운용 정책 수립 연구
국비·지방비 매칭형 정책사업 추진 방식 전면 개혁
중장기적, 협력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생태계 정책 및 제도 지원
지역문화생태계의 특이성, 통합성, 협력성을 고려한 원리 사업 기획·추진
서울시 25개 자치구 협력형 지역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
서울의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주요 거점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체계화 · 예술인 밀집 거주 지역문화생태계 거점 지역들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정책 수립 · '(가칭)예술활동 거점지역 사업추진단' 구성
지역문화생태계 관련 핵심 원리 사업의 운영 방식 혁신
지역문화생태계 기반형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내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역문화생태계 기반형 예술분야 창업보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역문화 연계 공공문화시설 운영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제도화
지역문화 관련 중앙 정부 및 서울시 핵심사업과의 연계성·융합성 강화
도시재생 정책과의 연계성 및 융합성 강화
문화도시, 생활문화, 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등 정책사업들 내 협력체계 필요

참고문헌



— 강윤주,심보선, 2013, 생활예술공동체 내 문화예술매개자의 역할 분석: 인천 '문화바람'의 경우, 경제와사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구

— 김선희, 2009, 지역문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_광주비엔날레 사례를 중심으로

— 김수아, 2015, 홍대 공간의 문화적 의미 변화 - 공간 이용자의 기억을 중심으로, 미디어,젠더 & 문화

— 김창수, 2012, 도시마을 창조전략 -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 재생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회

— 남기범, 2014, 창조도시 논의의 비판적 성찰과 과제, 도시인문학연구

— 라도삼, 2010, 2010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라도삼, 2007, 서울의 문화자원 분포와 문화생태 연구

— 라도삼, 2010,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라도삼, 2006, 새로운 도시패러다임- 문화도시: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필요조건. 도시문제

— 문화사회연구소, 2018. 중구 문화도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박승현, 2008,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 -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 박신의, 201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분석과 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 부산문화재단, 2019, 부산문화재단 비전2030

— 서울문화재단, 2019, 2018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문화재단, 2018, 서울문화지표 조사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8,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서울문화재단, 2014,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4, 서울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전략

— 서울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서울시, 2016,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서울시, 2016,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 서울시, 2013,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성북구, 2016, 성북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

— 소진광, 2015, 창조도시의 양면성: 창조와 해체의 융합,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손경년, 2011, "문화예술로 여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 한울아카데미

— 신정란, 최창규, 2010, 홍대지역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양혜원, 2018, 지역분권 관점에서의 주요국가 예술지원정책 분석 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 원도연, 2011, 창조도시의 발전과 도시문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인문콘텐츠

— 유창복, 2015, 협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 이상봉, 2018, 한국사회 중앙-지방 불평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 로컬리티 인문학

— 이상훈, 2018,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민의 사회적 배제 현상 분석- 부산광역시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 이의신, 2018, 지역축제가 생활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 정진원, 김천권, 2012, 문화도시조성 쟁점요인의 중요도 분석 - 인천광역시 전문가와 시민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조광호, 2016, 지역문화정책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채수진, 2013, 지역의 시대별 정체성과 구성요소로서의 지역문화콘텐츠 연구_서울 서촌 지역을 중심으로

— 주희현, 2017, 홍대인근 출판사 밀집현상에 대한 소고, 문화예술경영학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2017년 기준 지역문화 실태조사

— 한상진, 2008, 사회적 경제 모델에 의거한 창조도시 담론의 비판적 검토: 플로리다, 사사키, 랜드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ECO

— 홍대앞 연구네트워크, 2015, 홍대앞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 Florida, R., Mellade, C. and King, K., 2016.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The Global Creativity Index). Toronto: Martin Prosperity Institute.

— Holden, John. 2015. The Ecology of Culture.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UK.

— Kreidler, J., Eng, M., 2005. Cultural Dynamics Map: Exploring the Arts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 Markusen, A., and Gadwa, A., 2010. Creative Placemaking. Washington DC: Mayors' Institute on City Desig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Markusen, A., et al., 2011. California's Arts and Cultural Ecology. San Francisco: James Irvine Foundation.

— Vaizey, E., 2011. The Creative Ecology. 10 February, State of the Arts conference, London.Florida, R., Mellade, C. and King, K., 2016.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The Global Creativity Index). Toronto: Martin Prosperity Institute.

— Holden, John. 2015. The Ecology of Culture.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UK.

— Kreidler, J., Eng, M., 2005. Cultural Dynamics Map: Exploring the Arts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 Markusen, A., and Gadwa, A., 2010. Creative Placemaking. Washington DC: Mayors' Institute on City Desig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Markusen, A., et al., 2011. California's Arts and Cultural Ecology. San Francisco: James Irvine Foundation.

— Vaizey, E., 2011. The Creative Ecology. 10 February, State of the Arts conference, London.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김종휘(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연구기획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김진환, 이주영)

책임연구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장)
공동연구 김재상(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박선영(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성연주(문화사회학 연구자)
최준영(문화연대문화정책센터)

협력컨설턴트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염신규(한국문화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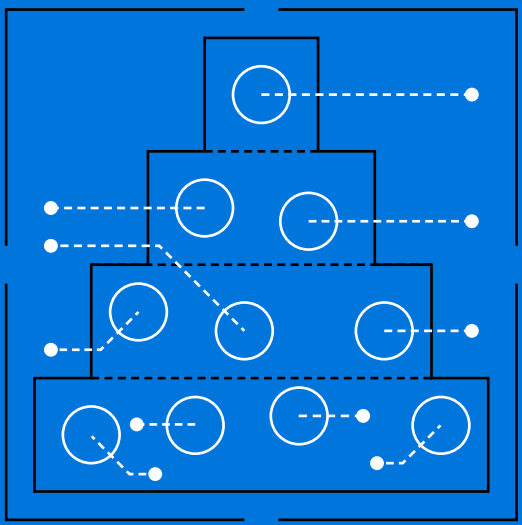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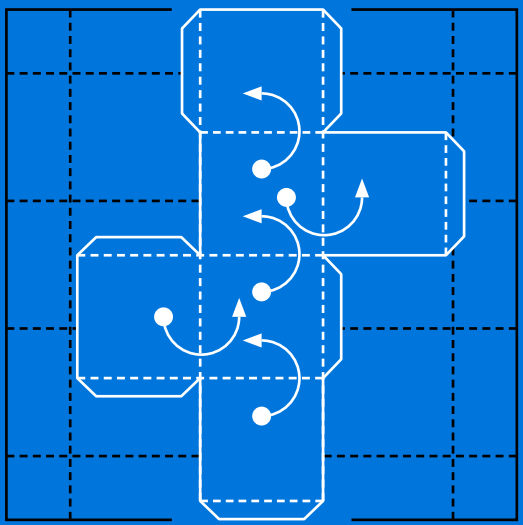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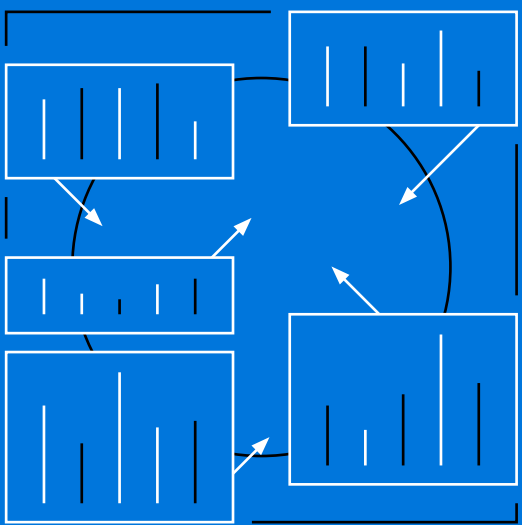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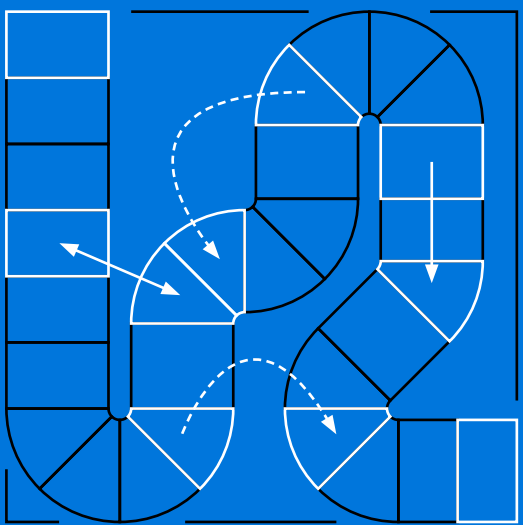
디자인 LIFT-OFF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발행년 2020년

서울문화재단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ISBN 979-11-86489-37-6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비매품/무료
13600
9 791186 489376
ISBN 979-11-86489-37-6

www.sfac.or.kr